

I.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필요와 목적

학교는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 및 규범을 교육하는 사회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학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는 그 청소년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우리나라 처럼 학력이 개개인의 자격증으로 중시되는 사회에서 학교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중퇴하는 학생의 수가 많다. 특히 작년에 실업계 고등학생 중 26,216명이나 중퇴했다. 이 숫자는 전체 실업고생의 3.3%에 해당하는 숫자로 100명 중 3~4명의 학생이 중퇴했다는 결론이다. 중·고등학교 학생을 모두 합쳐 계산해도 이러한 사정은 비슷하다. 91년 한해동안 전체 학생의 1.7%인 76,213명이 중퇴했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학력위주 사회분위기를 생각할 때, 학교 중퇴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좌절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커다란 사건이다. 학교 중퇴는 이런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 한해 절도범의 47.4% 또 강도 사건의 51.9%가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통계청, 1990 : 350). 이는 1965년 강도사건의 36.6%에 달하던 소년범비율보다 무려 15.3%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에서 중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1년의 15.1%에서 1990년의 19.5%로 늘고 있다. 이에 1985년 국무총리조정실과 문교부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퇴한 후 비행이 더욱 심각해지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의 퇴학징계 절제’를 각 학교에 공문으로 지시할 정도로 중퇴청소년은 시급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비행과 연관된 중퇴청소년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학교 중퇴 후 비행이 심화되는 것은 중퇴생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학교를 중퇴하면 반드시 비행청소년이 되는게 아님

에 주목한다. 중퇴청소년 집단에게 공통되는 특성은 ‘비행’이라기 보다 “학교 생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외국의 한 연구(National Advisory Council)에서 중퇴생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서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업에 대한 열의와 동기가 미약하다. 또한 앞날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학업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하다. 이 점은 비행으로 중퇴한 청소년에게도 해당된다. 이들도 학교생활에 성공하지 못하여 중퇴했고, 그 결과 비행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중퇴생뿐 아니라,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지 못하여 중퇴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대안을 마련해 내고자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협받는 또 하나의 집단인 징계생집단도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다. 이들도 문제행동으로 정학이나 근신과 같은 징계를 경험하나, 그 징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협하고 있는지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정학생이나 중퇴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 개인의 경험을 반추해 볼 때 청소년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아를 성숙시키는 시기이다. 살아가면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청소년기의 긍정적(장애물을 넘어본) 경험에서 비롯되고, 자신의 생활을 진단하고 반성하는 기준도 청소년기에 자신이 계획했던 미래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한 순간 한 순간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소년기에 건강하게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내일의 주역으로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집단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2 연구의 방향

비행청소년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였다. 비행을 일으키는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여기서 비행의 요인을 밝혀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처방을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와 학교가 모두 교육의 장인 점을 주지시켰고, 나아가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원 개개인의 각성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지만, 비행청소년이 되는 자세한 과정이나 현재 청소년들이 주위의 학교나 사회제도로부터 어떻게 영향받고 또 지도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일례로 퇴학당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징계당했고, 어떠한 지도를 받았는지, 그것의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제도에까지 질문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학생과 중퇴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제도적 접근법과 기존의 연구가 주로 채택했던 개인진단적 접근법으로 구분될 있다(Fennimore, 1988). 개인진단적 방법은 “중퇴생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학교 중퇴생 문제에 접근한다. 다시 말하면, 중퇴를 예상하게 하는 어떤 징표를 학생의 내면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 개인, 학교라는 3가지 영역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학교중퇴생의 특징이나 중퇴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분위기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 학생의 집은 몹시 가난한가, 부모님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수입이 적은가, 식구들 사이에 심한 불화가 있는가, 식구 중에 술주정뱅이나 약물중독자가 있는가, 부모가 문제가정 출신인가, 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학교 중퇴생인가, 학생은 집안에서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 또는 버림받는가 등을 질문한다.

다음에는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대해 묻는다. 그 학생은 자부심이 없거나 공부할 동기가 약한가, 사느게 의미없어 보이는가,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

독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묻는다. 또 학교에서 학생이 어떤 형태로 생활하는가에 대해 질문한다. 자주 결석하는가, 학교공부에 관심이 없는가, 중요감에 차 있거나 자포자기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또는 다른사람과 대화하거나 읽기와 셈하기에서 곤란을 느끼는가, 성적이 나빠 낙제를 했나 등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이 접근방법은 “문제가 학생 자신에게 있다”고 가정하여 개인만을 문제삼는 약점이 있다. 그래서 학교라는 틀 안에서 좀 더 질서를 잘 지키고 공부 잘하도록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학교중퇴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만을 문제삼고 학교 안팎의 불합리한 제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 한 균형잡힌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개인진단적인 접근방법만으로는 정학·중퇴청소년 문제의 해결에서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의 정학·중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적 접근법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의 교육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이 방법은 “학교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기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학교 중퇴생 문제에 접근한다. 학교의 조직과 운영, 학교행정가와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생관계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개선점을 찾는다. 학교 제도는 상하계층적으로 조직되었는가, 학교 안에서 행정가, 교사, 학생 사이의 대화는 상위하달식으로 일방적인가, 학교규칙은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학생징계절차가 너무 자의적이지 않은가, 학교행정가는 학생교육보다 학교 질서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가, 학교는 지역사회와 서로 협조하지 않고 격리되어 있는가,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권위주의적인가, 교사는 학생에게 이것 해라, 언제 해라, 이렇게 해라는 등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가, 학생을 개성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개성없는 집단으로 취급하는가. 이러한 제도적 접근은 개인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보다 실현하기가 더 어려워서, 대부분의 학교가 제도적 접근법에 소극적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학교가 지역사회, 가정, 학생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 방법은 학교가

변화시키기 어려운 학교 밖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요소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한다.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반항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조용히 그 상황을 피해 학교를 중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밖의 가정과 사회의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잘 반응하도록 학교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퇴생 발생에는 학교밖에서 학생을 끌어내는 요인(Pull Out Factor)과 학교안에서 학생을 내모는 요인(Push Out Factor)이 상호 작용한다고 볼 때, 중퇴생을 발생시키는 학교제도적 요인으로 위압적인 조직구조, 절차상의 형식주의, 권위주의적인 교수방법, 교육적 불평등의 네가지를 들 수 있겠다.

학교중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의 주요 잇점은, 학생의 교육적 욕구와 필요에 대해 학교와 교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개선된 학교제도 안에서는, 학교나 교실에서 학생들은 다 평등하게 취급되고, 모든 학생에게 현실적이면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걸어주게 된다. 교사는 관료조직의 필요와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학생을 위해 융통성있게 운영된다. 결국, 중퇴할 가능성이 많은 문제학생을 구제할 뿐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정학생과 중퇴청소년의 실태 및 지도상황을 조사하여 정학·중퇴청소년의 예방 및 사후지도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학·중퇴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학·중퇴청소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이유로 그들이 정학·중퇴를 하게 되는지를 찾아 보고, 그 원인에 따라 중퇴청소년을 유형화하였다. 특히 중퇴청소년의 경우, 각 유형에 따라 그들의 진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사하여 그들

의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정학생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정과 학교 생활이 일반 학생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둘째, 정학·중퇴청소년의 지도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어떠한 지도와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알리고 학교 안에서 정학이나 중퇴가 결정되는 과정, 그 효과, 사전·사후의 지도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밖에서 정학·중퇴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셋째, 정학·중퇴청소년 실태와 지도 현황의 조사에 근거하여 정학과 중퇴의 예방 및 정학·중퇴청소년의 지도에 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중퇴청소년의 실태와 정학생의 실태를 나누어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했다. 그 방법은 중퇴청소년 3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정학생 52명을 포함한 학생 1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중퇴청소년은 모두 직업훈련원의 학생이다. 사실 매우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중퇴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연구하려면 각 층에 걸쳐 표집이 고루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중퇴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 내어도 그 기관이 비협조적이어서 여러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접촉에 성공한 38명만 면접하였다. 한편, 정학생도 면접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대안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정학생들과 면접을 하게 되면 ‘그들의 부정적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면접에 응하게 할 수 없다’는 학교선생님들의 만류로 면접하지 못하고 설문조사만 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정학·중퇴청소년 지도현황과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정학·중퇴 청소년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면에서도 방치된 채로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최근에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중퇴생 예방대책이다. 우선 정학·중퇴청소년의 학교 안 지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징계규정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

석하는 한편, 전국 각급 학교의 교도주임과 학생주임에게 소속학교의 정학·중퇴청소년 지도현황을 설문조사하고 바람직한 지도 대책을 물었다. 설문 조사의 표본 추출은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층화하여 각 범주 별로 실제 모집단의 인구에 비례하여 ‘한국교육연감’에 기록된 전국의 중·고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총 436개교가 선정되어 우편설문을 실시하여 교도주임은 155명, 학생주임은 161명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과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I-3-1〉 조사대상과 방법

조 사 방 법	대 상
면 접 조 사	중퇴청소년 38명
	각급 학교교사 50명
	상담기관교사 5명
설 문 조 사	교도주임 155명
	학생주임 161명
	정학생 52명
	비정학생 48명
문 서 분 석	징계규정 26개교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정학·중퇴청소년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자 서울시내의 상담기관에 전화로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지도프로그램 실시여부를 조사하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학·중퇴청소년의 지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제껏 진행한 제2·3장의 연구를 기초로 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우선, 처음에는 중퇴후의 진로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 대상을 직업훈련원과 비정규학교 중퇴청소년을 찾아 심층 면접하려고 계획했으나, 훈련원과 학교의 비협조로 시행하

지 못했다. 이것은 정학생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적인 조사는 못해도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 중에서 몇십개 학교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하려했으나 실천하지 못했고, 협조적인 학교의 소수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정학생과 중퇴청소년 연구를 과학적으로 하자면 정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각급학교, 공사립 직업훈련원, 비정규학교, 소년원 등에 있는 각층의 중퇴생 실태를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할 것이나, 이 연구는 직업훈련원에 있는 중퇴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중퇴청소년 모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에 연구기간의 제한 때문에 종단적연구방법을 사용하지 못해서 정학생이 중퇴청소년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중퇴청소년이 사회에 나가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조사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학·중퇴청소년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기에 많은 제한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 다음, 각급학교, 직업훈련원, 소년원, 교육청, 교육부 등이 가지고 있는 정학과 중퇴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를 폭 넓게 수집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작업은 정부기관의 협조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정책제안에서 관련기관과 접촉하여 여기서 제안한 대책이 실현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실현이 보장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연구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Ⅱ. 정학·중퇴청소년의 실태

본 연구는 정학·중퇴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학·중퇴청소년 선도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퇴청소년과 정학청소년의 실태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중퇴청소년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오랜시간 생활하는 터전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우관계의 망을 형성하고, 학업성취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벌로 경험하고, 자신의 동년배들과 동아리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자아를 확립해간다. 이러한 까닭에 청소년의 삶에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 정학이나 중퇴와 같은 징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징계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기 쉽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되듯이 부정적 자아개념은 비행 및 범죄를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경향은 아래 <표 Ⅱ-1-1>의 보호소년의 학력을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즉 보호소년 중 학교를 중퇴한 학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Ⅱ-1-1> 보호소년의 학력(Ⅰ)

학력별 연도별	계	불취학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재학	중퇴	졸업
1981년	2,191	73	3	418	394	75	523	256	154	260	32
1982년	2,329	50	1	411	332	55	685	289	143	310	49
1983년	2,313	47	10	306	296	72	704	270	221	340	40
1984년	2,500	24	12	234	242	90	899	247	236	465	42
1985년	2,364	15	2	212	220	42	862	241	158	535	69
1986년	2,350	15	5	156	195	48	862	290	194	511	68

자료 : 장석민 외, 1988 : 46에서 재인용

〈표 II-1-1〉을 재학자와 중퇴자 및 졸업자의 수를 비교하기 위해 〈표 II-1-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이 표에서 시사하는 바는 보호소년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중퇴자인 것으로 나타나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사회에 방치되면서 비행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검찰청자료는 소년범죄자 중 중퇴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흉폭화된다고 보고한다.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소년범죄자가 18.7% 증가한 반면, 중퇴범죄자는 무려 53.6%나 증가하였다. 또한 살인을 저질렀던 중퇴생은 81년 31명이던 것이 90년 57명으로 무려 38.5% 증가했다(대검찰청, 1981~1990).

〈표 II-1-2〉 보호소년의 학력(II)

연 도	불취학자	재 학 자	중 퇴 자	졸 업 자
1981년	73(3%)	232(10%)	1,201(54%)	682(31%)
1982년	50(2%)	199(8%)	1,406(60%)	670(28%)
1983년	47(2%)	303(13%)	1,350(58%)	606(26%)
1984년	24(1%)	338(14%)	1,598(64%)	531(21%)
1985년	15(1%)	202(9%)	1,609(68%)	530(22%)
1986년	15(1%)	247(11%)	1,529(65%)	553(24%)

이러한 통계 수치를 참조해 볼 때 중퇴청소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중퇴청소년 모두를 우범자집단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비뚤어진 시각이다. 이러한 비뚤어진 일단의 시각은 중퇴청소년이 얼마나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퇴청소년의 층은 매우 다양하다. 중퇴청소년은 제각기 다양한 이유에서 중퇴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려고 의도하지 않고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에서 학교를 중퇴했다고 해도 모두 성공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중퇴를 결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중퇴하게 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결국, 학교생활을 잘 견디지 못하여 도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퇴를 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많은 까닭에 중퇴청소년 집단은 많은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중퇴청소년은 과연 잠재적 우범자인가? 중퇴를 하게 되는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양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퇴청소년 모두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중퇴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중퇴청소년의 수를 추산해 보고, 중퇴청소년의 중퇴사유와 진로개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중퇴청소년의 양적추산

최근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 수는 91년만 보아도 중학교는 22,348명이고 일반 고등학교는 27,649명, 실업 고등학교는 26,216명으로 총 76,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이다 (표 II-1-3 참조).

이렇게 사회로 방출되는 중퇴생은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와 불리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일 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학을 꾸준히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꾸기도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채 비행으로 빠지기도 한다. 특히 이들의 중퇴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뤄졌다고 보다는 다분히 학교에서 도피하기 위한 방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퇴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봐야겠다. 이를 위해서 중퇴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중퇴생의 실태파악을 위해 중퇴생의 수를 추산해 보면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중퇴청소년의 양적추산

(단위: 명(%))

	총 학생수		제적·중퇴 및 휴학자			
	연도	합 계	합 계	질 병	가 사	기 타
중 학 교	81	2,573,945	30,628(1.2%)	1,297(4.2%)	20,269(66.2%)	9,062(29.6%)
	83	2,672,307	29,070(1.1%)	1,200(4.1%)	19,610(67.5%)	8,260(28.4%)
	85	2,782,173	29,052(1.0%)	1,257(4.3%)	18,884(65.0%)	8,911(30.7%)
	87	2,567,730	28,322(1.1%)	1,152(4.1%)	17,540(61.9%)	9,630(34.0%)
	90	2,275,751	23,568(1.0%)	2,147(9.1%)	12,555(53.3%)	8,866(37.6%)
	91	2,232,330	22,348(1.0%)	1,749(7.8%)	11,491(51.4%)	9,108(40.8%)
일 반 고	81	1,006,313	19,692(2.0%)	927(4.7%)	11,962(60.7%)	6,803(34.5%)
	83	1,132,239	20,904(1.8%)	832(4.0%)	13,822(66.1%)	6,250(30.0%)
	85	1,266,840	23,913(1.9%)	919(3.8%)	15,776(66.0%)	7,218(30.2%)
	87	1,397,359	27,022(1.9%)	1,130(4.2%)	17,505(64.8%)	8,387(31.0%)
	90	1,473,155	26,834(1.8%)	3,220(12.0%)	14,877(55.4%)	8,737(32.6%)
	91	1,406,891	27,649(2.0%)	3,195(11.6%)	14,636(52.9%)	9,818(35.5%)
실 업 고	81	816,726	23,396(2.0%)	983(4.2%)	15,063(64.4%)	7,350(31.4%)
	83	880,797	31,904(3.6%)	1,500(4.7%)	20,625(64.6%)	9,779(30.7%)
	85	855,962	33,973(3.8%)	1,434(4.2%)	21,669(63.7%)	9,807(26.7%)
	87	840,651	29,303(3.5%)	396(1.4%)	19,307(65.7%)	9,600(32.8%)
	90	810,651	24,641(3.0%)	940(3.8%)	15,313(62.1%)	8,388(34.0%)
	91	804,021	26,216(3.3%)	991(3.8%)	15,391(58.7%)	9,834(37.5%)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 연보, '81, '83, '85, '87, '89, '90, '91.

〈표 II-1-3〉을 보면, 매년 총 학생수에 대한 중퇴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순으로 높은 중퇴율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중퇴자의 수가 줄고 있는 형편이며, 일반고도 90년까지 중퇴생 수가 감소하다 91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고는 중퇴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학교 중퇴자의 감소 추세는 국민들의 학력 향상으로 중학교가 거의 의무교육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일반고의 중퇴비율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실업고의 중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적성에 맞

는 고교진학이 이뤄지지 않고, 실업고 교육과정에 쫓겨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다. 이외에도 중퇴의 사유를 살펴보면, 10년 동안에 가사를 이유로 중퇴하는 경우는 줄어든 반면, 가사 이외의 사유로 중퇴하는 학생의 수는 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가사, 질병, 기타의 삼분류로 중퇴의 원인을 개괄하는 것은 중퇴생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무리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가사’라는 범주 속에는 소년·소녀 가장과 같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형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퇴를 하는 경우와 부모님의 몰이해로 강제적으로 중퇴하는 경우도 차별성없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가사라는 범주 하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고, 학교에 중퇴를 신청할 때 기록상 가사라고 적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사로 중퇴원인을 밝히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다른 한편 ‘기타’의 범주에는 더 많은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층적 성격집단인 중퇴청소년의 윤곽을 잡아 실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작업은 중퇴의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2) 중퇴의 원인과 유형

중퇴청소년이란 정규학교 소속자 중 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 등 여러가지 이유로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의미한다. 즉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퇴는 자퇴, 명퇴, 제적 등을 포함하는데, 자퇴와 명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학교의 명령으로 퇴학당한 것인가에 따른 구분이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퇴할 경우 복학이 가능하지만, 명퇴를 당한 경우에는 복학이 불가능하다.

1985년 경부터 중퇴생의 비행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실증적 보고가 있어 중퇴 처분의 자제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연두에 학교에서의 중퇴를 제한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매스컴에서도 중퇴처분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실

제적으로 중퇴률이 감소되는 듯 했으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요즘에서는 학교측에서 문제학생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퇴처리를 하거나 권고 전학을 증용하여 자퇴형식을 취하는 중퇴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질적 중퇴처분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학교에 대해 중퇴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보다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왜 학교에는 중퇴라는 징계제도가 있는가? 학생들은 어째서 자퇴를 하는가? 학생들이 자퇴하려 할 때 학교에서 학생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중퇴를 만류해야 하는가? 학교는 학생을 퇴학시킬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학생에게도 학교의 명퇴처분에 불복할 권리가 동시에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깊은 사색과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누가, 왜 중퇴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퇴하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중퇴생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해를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가교자 한다.

(1) 기존연구의 분류

교육통계연감은 중퇴청소년을 중퇴원인에 따라 질병,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중퇴청소년의 수치를 합산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중퇴청소년의 중퇴이유 중 교육통계연감의 ‘기타’에 해당하는 수치는 91년 전체의 37.5%에 해당하는 점만 보아도 중퇴의 이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중퇴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하루 종일 하려니 얼마나 지겹겠어. 하기 싫은 공부 잘 할리가 있나, 공부 못한다고 식구들한테 혼나고, 선생님들한테도 귀여움 한번 못받고 천덕꾸러기지 뭐. 그러니 애들인들 오죽하겠어. 친구들끼리 화김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술이나 먹어보고, 술김에 싸움 한번 하고. 그것을 보고 어른들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빨난다고 하잖아. 한번만 너그럽게 봐주면 다시는 하지 않을 일 갖고 정확이니 근신이니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반항심에 또 싸움하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속에 문제 행동과 학교문제, 친구문제가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퇴의 원인을 독립된 몇가지 범주로 나눠 그 요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가지 원인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중퇴의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단 어느 한가지 원인과 다른 원인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장석민(1988)은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유혹, 건강, 검정고시, 기타 등으로 중퇴의 원인을 <표 II-1-4>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II-1-4> 학교중퇴의 원인(I)

(단위 : 명(%))

내용 학력	가정문제	학교문제	친구유혹	건강	검정고시	기타	계
중학교중퇴	24(17.6)	80(58.8)	27(19.9)	0(0.0)	2(1.5)	3(2.2)	136(100)
고등학교중퇴	47(16.7)	168(59.8)	42(14.9)	6(2.1)	11(3.9)	7(2.5)	281(100)

자료 : 장석민 외, 1988 : 104의 표를 재구성.

이 연구에 따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막론하고 중퇴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이나 친구유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문제는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중퇴생들이 학교에

서 긍정적 경험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재학생들이 더 많은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지도 등이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고생 간에 학교문제로 인한 중퇴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학교 중퇴자는 고등학교 중퇴자에 비해 가정문제나 친구의 유혹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시기의 청소년은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신의 학교생활마저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아직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게 서지않은 시기에 친구의 영향을 받아 중퇴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중학교 중퇴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시위주교육의 굴절된 한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고교성적이 나빠 내신성적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은 경우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그렇다면 중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학교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표 II-1-5>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표 II-1-5> 중퇴원인중 학교문제(1)

(단위: 명(%))

내용 학력	성적불량	교칙위반	공부가 싫어	선생님이 싫어	학교에 부적응	계
중 학교 중퇴	18(22.5)	28(35.0)	26(32.5)	7(8.8)	1(1.3)	80(100)
고등학교 중퇴	26(15.5)	50(29.8)	51(30.4)	28(16.7)	13(7.7)	168(100)

자료 : 장석민 외, 1988 : 104

<표 II-1-5>를 보면 중학교 중퇴는 35.0%가 「교칙위반」이고, 그다음 32.5%가 「공부가 싫어서」이며, 22.5%가 「성적불량 때문」이다. 고등학교 중퇴는 30.4%가 「공부가 싫어서」이며, 29.8%가 「교칙위반」, 16.7%가 「선생님이 싫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이유중에서 성적불량과 공부가 싫어서는 「성적문제」라는 단일유목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해 보면 <표 II-1-6>과 같다.

〈표 II-1-6〉

중퇴원인중 학교문제 (2)

(단위 : 명(%))

내용 학력	성적문제	교칙위반	선생님이 싫어	학교에 부적응	계
중학교중퇴	44(55.0)	28(35.0)	7(8.8)	1(1.3)	80(100)
고등학교중퇴	77(45.9)	50(29.8)	28(16.7)	13(7.7)	168(100)

자료 : 〈표 II-1-5〉의 재구성

〈표 II-1-6〉을 보면 중학교 중퇴의 경우 「성적문제」로 인한 것이 55.0%이며, 「교칙위반」이 35.0%이다. 고등학교 중퇴의 경우는 「성적문제」가 45.9%이며, 「교칙위반」은 29.8%이다. 양쪽 모두 「성적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학교변인 중에서 중퇴의 가장 큰 원인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과 관련이 있다. 만약 이것이 정말이라면 성적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나간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그들의 진로를 잘 이끌어 주려는 노력만 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교칙위반에 따른 중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구별없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에 방치될 경우 비행을 일으킬 확률이 높음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중퇴자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격적인 면의 영향인 듯하다.

이러한 경향은 표갑수의 논문(1992)에서도 나타났다. 표갑수는 중퇴의 원인을 가정적 원인, 개인적 원인, 사회 원인, 기타로 나눈다. 가정적 원인의 하위영역에 ‘가정 불화’와 ‘결손가정’ 및 ‘가정빈곤’을, 개인적 원인의 하위영역에 ‘공부싫어서’와 ‘유급되어서’, ‘교칙위반’ 및 ‘불량 교우’를, 그리고 사회와 학교 원인의 하위 영역에는 ‘취직 및 기술 습득’, ‘불량집단 구타’, ‘성폭행 및 선배의 구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 등을 두고 있다.

중퇴의 원인과 그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7〉

학교중퇴의 원인

원인 별	25.7	50.4	20.3	3.6
	가정적 원인	개인적 원인	사회·학교 원인	기 타
	-가정빈곤 13.5% -가정불화 6.2% -결손가정(부부 이혼, 부모사망) 6%	-공부싫어서, 성 적 불량, 유급되 어서 28.3% -교칙위반(비행, 무단결석 등 문 제행동) 14% -불량교우 8.1%	-학교나 교사에 대 한 불만 14.9% -불량집단구타, 성 폭행 및 선배의 구타 2.8% -취직 및 기술습 득 2.6%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2.6% -운동장요 1.0%

자료 : 1992미 발표 논문(표갑수)

표갑수의 중퇴원인분류는 기존의 연구보다 중퇴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원인과 사회·학교 원인이 다소 중복되어 불명료하게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위에서 지적한 미비점은 보완하고 원인 간에 중복됨이 없이 포괄적인 분류를 시도해 보려한다. 이를 마친 후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해 보겠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중퇴청소년을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원인에 따른 유형 구분

중퇴청소년의 중퇴원인을 가정과 사회 및 학교로 나눠 개괄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면 그 기준은 아래의 두가지이다. 하나의 기준은 중퇴원인을 제공하는 환경출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및 사회라는 환경을 기준으로 중퇴의 원인이 어디에서 제공되는가에 따라 구분하고자 했다. 다른 하나의 기준은 중퇴하는 청소년의 태도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다. 자신이 갖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중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안 없이 학교에서 도망가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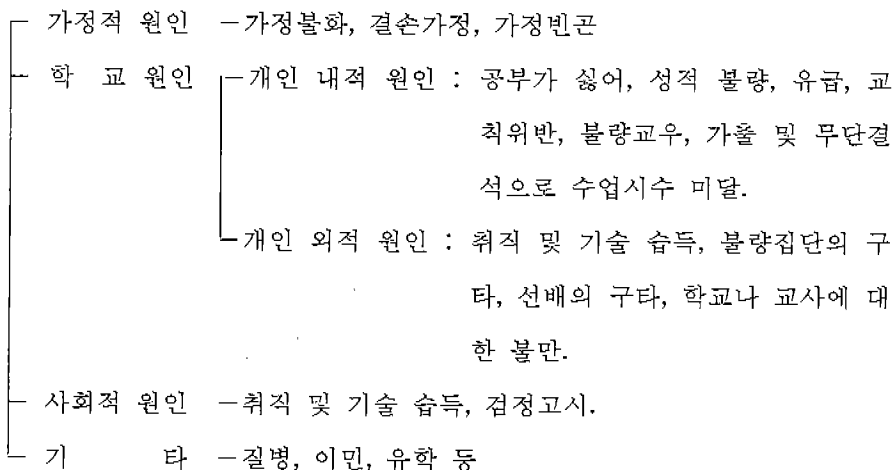
고 중퇴를 결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가지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중퇴청소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때 어떠한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아울러 중퇴청소년의 다양한 층을 나눠 보고 서로 다른 집단들이 어떠한 진로 특색을 나타내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기준에 따라 중퇴의 원인을 분류하고, 그 원인에 따라 중퇴의 유형을 구분해 보겠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정의해 보겠다.

① 중퇴 원인의 출처에 따른 구분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군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가지는 다름 아닌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이다. 또한 이 세가지 변수군도 서로 이질적인 원인들이 결합된 것이다. 즉 가정적 원인도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서 그 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원인도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본다면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개인내적 원인과 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개인외적 원인이 있다. 물론 이 두가지가 완전히 단절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중퇴문제의 출처가 어디인지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 원인은 중퇴를 결심하게 되는 자극이 가정과 학교에서 파생된 문제라기 보다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경우이다.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Ⅱ-1-1] 중퇴원인의 출처에 따른 구분



② 중퇴동기에 따른 구분

다음은 학생이 중퇴를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중퇴하는 경우이다.

재학생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중퇴를 결심할 수도 있는데 이 때를 ‘능동형’중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또는 하루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어 취업을 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취업준비로 직업 훈련원에 다니기 위해 중퇴를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로를 모색하면서 중퇴를 결심한 경우이다. 또 적성에 맞지않는 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중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두번째 ‘도피형’이란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퇴한 것이 아니라 더이상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학교를 빠져나가 흥미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막연히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학교가 지겨워 가출을 하고, 이에 따라 무단결석을 하면서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제적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퇴를 하여 다음에 다시 입학할 기회를 가지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중퇴를 소극적 또는 도피형 중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불가피형’이란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 중퇴를 하여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외적 상황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2] 중퇴동기에 따른 구분

- 능동형 - 취업 및 기술 습득, 검정고시.
- 도피형 - 학교기피, 교칙위반, 성적불량, 교사기피, 불량교우, 학업태만, 급우로부터 소외.
- 불가피형 - 가정빈곤 및 결손가정, 강제퇴학(교칙위반, 수업시수미달).

우리는 위의 기준에 따라 중퇴생을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특색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색의 파악은 특별히 중퇴청소년들의 진로분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능동적인 원인에 따라 중퇴한 청소년은 중퇴 이후 자신의 진로 계획에 능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자신이 계획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거나 진학을 준비하거나, 혹은 취업할 것이다. 한편 소극적 원인으로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계획이나 장래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여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방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의 분석 틀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 행한 중퇴생 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퇴청소년일반의 진로특색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중퇴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진로특색을 살펴보겠다.

3) 중퇴청소년의 진로실태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청소년은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중퇴의 원인이 되는 자극을 제공받고 적극적으로, 도피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중퇴한다. 여기서는 중퇴의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는 양상에 따라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개괄해 보고, 이 유형에 따라 중퇴청소년의 진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실태를 살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를 위해 면접한 43명의 중퇴청소년들이 말하는 중퇴의 원인을 열거해 보고, 위의 기준에 따라 중퇴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 각 유형의 청소년들이 중퇴 후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고, 경험하게 되는지 추적하여 그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피면접자의 98%가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므로 다양한 중퇴청소년의 진로실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체 중퇴청소년 중에서 직업훈련원과 같이 안정된 기관에서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전체 중퇴청소년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퇴청소년들 가운데서도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 소수이므로 이들의 진로 추적이 중퇴청소년일반의 진로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이들이 직업훈련원에 정착하기까지 겪게 되는 사회생활은 대부분의 중퇴청소년이 겪게 되는 공통적인 진로일 것이다. 따라서 미약하나마 면접대상자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유형별 진로특색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아래의 표는 본 연구 대상자의 중퇴 사유와 중퇴후의 진로를 요약하여 중퇴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1-8〉

중퇴청소년의 유형과 진로개척

중퇴 유형	사례	나이	학력	중 퇴 사 유	정착 기간	중퇴 후 진로
능 동 적 유 형	1	17	중2자퇴	가정결손(사업실패, 어머니의 가출)	3년	주유소경리, 기계공 업사(1년반)
	2	19	고2자퇴	요양	1년	절에서 요양, 취미 활동, 종교생활
	3	19	고1자퇴	못된 친구들에게 괴 롭힘 당함 교사 혐오(고1때 학 급부적응)	1년	정비학원 6개월, 인 테리어 가게 점원
	4	21	고1자퇴	돈을 벌려고, 학교 생활에 흥미 없음. 가출 등으로 징계 경험	4년	장사(포장마차, 핫 도그-3년)
	5	18	고1자퇴	기술을 배우려고(어 려운 형편으로 대학 에 가지 못함)	6개월 미 만	공장생활 잠시, 곧 훈련원 입소
도 파 적 유 형	6	19	고1자퇴	아이들의 심한 학대	1년반	신문돌리기, 빈둥거 리기(비행은 안함)
	7	18	중1자퇴	학교거부(국교때부 터 관심없었고 말 썰꾸러기로 유명)	4년	검시학원(담배, 술, 본드), 파출소신세, 신문배달 3년
	8	18	고1자퇴	국교부터 학교 다니 기 싫고 공부안함. 빈번한 가출, 무단결 석으로 자퇴처리		집에서 빈둥거림
	9	15	중1자퇴	무단결석, 학교기 피, 교사기피(국민 학교때 부터 선생 님에게 맞음)	6개월 미 만	등 산 장 비 공 장 (한 달), 식당(15일), 백화점(3일)
	10	20	고2자퇴	학교불량과 조직에 서 발을 빼려고	1년	어머니 장사돕기, 농사일돕기, 약간의 비행
	11	17	고1자퇴	학교가 싫어서, 처 벌 받을까 두려워 서, 무단결석, 가출	2달	레스토랑 아르바이 트(2달), 빈둥거림
	12	20	고1자퇴	성적불량, 교사불신		정비소, 공장취업

중퇴 유형	사례	나이	학력	중 퇴 사 유	정착 기간	중퇴 후 진로
	13	19	고1자퇴	학교불만(야간고여 서 창피함)	1년	카센타(3개월), 공 고디자인과 전학 (낙방), 써빙, 집행 유예언도
	14	19	고2자퇴	선배동살		검시학원(2달), 레스 토랑주방보조(1년)
	15	20	고2자퇴	선배동살		검시학원(2달), 카페, 자동차정비학원, 슈 퍼배달, 전국여행
	16	20	고1자퇴	처벌 받을까 두려 워서		외판원, 레스토랑 웨이터(1년이상)
	17	24	고2자퇴	처벌 받을까 두려 워서		검시(본드, 비행), 전문대 진학(낙방), 햄버거아르바이트
	18	23	고2자퇴	공부 싫음, 여자친구 배신, 교사 혐오(고1 때 학급부적응)	4년	웨이터(3년), 패싸 움, 기물파손, 경찰 서 생활
	19	17	중1자퇴	퇴학 당할까 두려 워서(유기정확 많 이 받음)	2년반	미장일, 가방·봉제 공장
	20	16	중1자퇴	성적 형편없고 공부 하기 싫음(친구, 선 생님에게서 소외됨 -비행 경험 없음)	1년반	무위도식
	21	19	고1자퇴	선생님이 싫어(불량 씨를 조직, 처벌 多)	1년	장사(카드, 고구마, 청바지), 웨이터(불 구속입건), 막노동
	22	18	중3퇴학	담임과 마찰(징계 경험있음)	1년	가출, 여행, 신문배 달, 검팔이
	23	18	고1자퇴	무단결석	1년	공고재입학, 절서담기
	24	19	고1퇴학	무단결석, 가출 되풀이	2년 반	테이프장사, 카페 DJ
	25	21	고1자퇴	싸움으로 선배의 보복이 두려워	4년	식당배달, 막노동
	26	20	중3퇴학	가출, 동거 → 장기 결석	4년	카페써빙, 노점상, 막노동

중퇴 유형	사 례	나 이	학 력	중 퇴 사 유	정 착 기 간	중퇴 후 진로
	27	19	고2자퇴	돈벌어 오토바이 사려고	1년	웨이터
	28	18	고1자퇴	교칙위반으로, 빈 곤, 성적 불량	1년반	신문배달, 레스토랑 웨이터
	29	22	고2자퇴	학교 싫어 가출, 자 퇴처리	3년	동거, 봉제, 미용, 신문배달, 막노동, 웨이터, 전자회사, 보석상, 주유소
	30	19	고1자퇴	돈을 벌려고 비행 →처벌 당함, 학교 부적응	2년반	공원(카메라부품 공 장, 기계조립공장)
	31	17	고1자퇴	어머니의 불륜으로 집안결손	2년반	구두닦이, 껌팔이, 신문팔이, 막노동, 웨이터(2년), 경찰 서, 정비(3개월)
불 가 피 유 형	32	17	중2퇴학	유기정학 3회로 강 제퇴학	2년반	동부아동상담소, 1 년 위탁교육, 공원, 웨이터(2, 3개월), 패싸움
	33	17	고1자퇴 (여)	가출 및 장기 무단 결석 권고전학 실 패	미정학	룸살롱 접대부
	34	20	고1퇴학	보호관찰 처분으로 강제퇴학	3년	막노동, 노점상, 무직
	36	22	고1퇴학	싸움	5년	소년원생활
	37	20	고3퇴학	패싸움으로 상대방 이 크게 다침	1년	소년원 생활
	37	24	고1퇴학	친구따라 무단결석, 학교에서 학생거부, 선생혐오	6개월	전자회사(3개월), 룸살롱(6개월), 유 통회사(12개월), 일 일노동(2년)
	38	21	고2퇴학	비행, 가출, 퇴학	4년	레스토랑, 룸살롱 기도

① 능 동 형

중퇴청소년의 유형에서 구분했듯이 ‘능동형’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청소년이 사회에서 독립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퇴했다면, 이 청소년은 능동형 중퇴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청소년은 아마도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을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능동형’ 중퇴청소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개척하는지 알아보고 능동형 중퇴청소년의 일반적 진로특색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사례 1〉

이 청소년은 17세로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한 청소년이다.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어머니의 가출로 집안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중퇴한 경우이다. 이 청소년이 말하는 자신의 성장과정과 학교생활 및 중퇴 이후의 생활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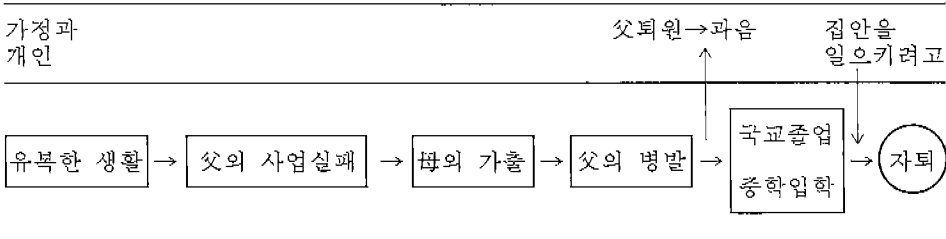
어린 시절 집안은 유복하여 고생을 모르고 자랐으며, 국민학교 때 강원도 전체 싸이를 대회에서 2등한 경력도 있다. 자신의 싸이클용 자전거는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선물로 주신 스위스제이다.

강원도 원주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국민학교 4학년때쯤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부도가 났다. 국민학교 5학년에 어머니가 집안에 남아 있던 돈(약 5~6억)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시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이 7~8개월 정도 간호하면서 시험만 치르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문제는 해결되어 무사히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는 남여공학이었는데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었고 장난이 심한 편이었으나 특히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퇴원하신 후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자신이 집안의 장손이므로 돈을 벌어 다시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선생님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은 채 자퇴하겠다고 말하다가 따귀를 얻어 맞자 화가 나, 외자를 무심코 던졌는

데 선생님이 맞아 이빨이 부러져 치료비를 보상해 드렸다. 다행히 선생님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용서해 주시고 자퇴를 허락해 주셨다.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1-3] 중퇴 전 생활(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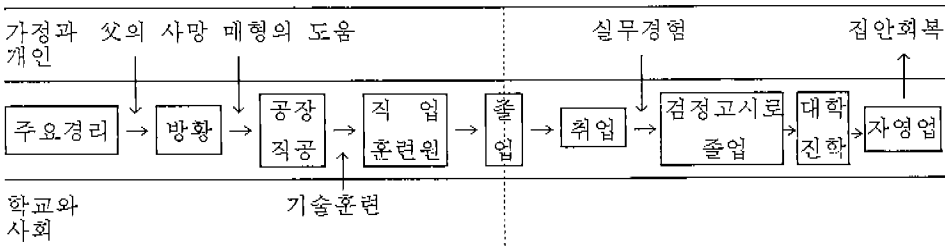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둔 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아버지 친구분의 주유소에서 경리보는 일을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 받으며 했다. 자퇴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더욱 더 술을 많이 드시고 병원에도 가지질 않으려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듯하였다.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것을 혼자서 지켜보았고 2달 정도 술만 먹고 살았는데, 매형에게 꾸중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경기도 근처에서 자취를 하였던 데, 누나가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여 서울로 왔다. 누나와 매형과는 사이가 좋은 편으로 매형과 그의 형이 함께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공업사에서 일을 한 일년 반을 배웠는데, 누나와 매형이 공부하라고 종용하자, 타협을 본 것이 이 직업훈련소에서 졸업을 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전문대에 들어가기로 하고 직업훈련소에 입학했다.

미래계획은 직업 훈련소를 졸업한 후 매형의 공장에 취직하여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에 들어가 공부를 마친 후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기계공업사를 차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례 1〉에서 나타난 중퇴후의 생활과 미래 설계는 아래 〈그림 II-1-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겠다.

[그림 II-1-4] 중퇴 후 생활과 미래설계(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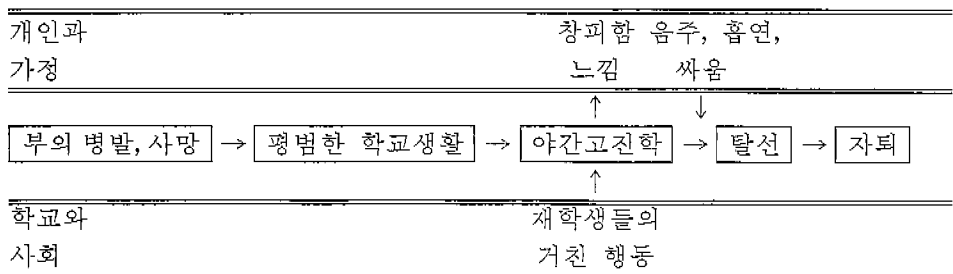
〈사례 2〉

이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한 19세 남자이다. 아버님은 7년 전 산업재해로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섬유회사 직공으로 일하신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할머니가 병석에 누워계시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동생이 둘 있다. 중퇴 후 탈선으로 현재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다. 동시에 현재 직업훈련원에서 전기과에 재학 중이다. 이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중퇴 후의 생활을 직접 들어보자.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2살때 서울로 이사왔고,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이었는데 한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신 적이 있었으나 그 일로 부모님 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다. 국6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화상으로 사망하시자 집안의 경제사정은 어려워졌고, 3년후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성적은 중간정도였으며 비교적 착실한 학교생활을 하다가 야간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다른 친구들은 주간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엄마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이때 학교의 친구들은 질이 나쁜 친구들이 많아 술, 담배를 배웠고 패싸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썼다. 환락제같은 것에 호기심은 있었으나 자신은 해보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5] 중퇴 전 생활(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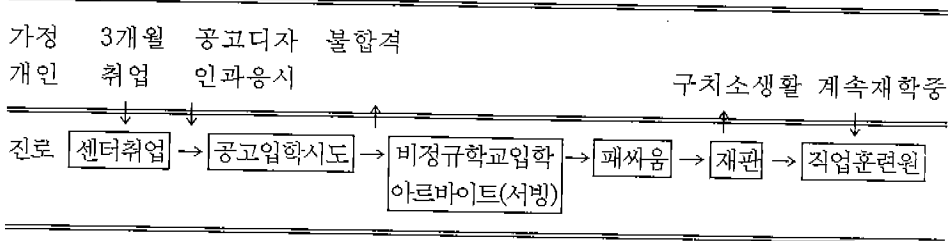


자퇴 후 카센타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이때 여자친구도 만나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중이다. 다시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기위해 안산에 있는 사촌형과 한 2달을 지내면서 공고의 디자인과를 지망했으나 떨어지고 외가 친척이 소개해 준 성지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다. 다들 전적이 화려하며 나이차도 심하고 무척 거친 학교이다. 여기에 다니면서 서빙같은 아르바이트

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새벽1시쯤 나오다가 어떤 녀석이 돈을 요구하며 때리기에 자신도 때려주었고 다른 녀석들도 합류하게되자 자신도 친구들을 불러 패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자신만 붙들리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구치소로 옮겨 다니다가 재판을 2번 정도 받았고, 학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어렵게 집행유예(보호관찰기간 94.1.까지)를 받고 풀려났으며, 학교는 재학 중으로 되어있고 담임선생님이 직업훈련소를 소개해 주었다.

이런 생활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Ⅱ-1-6] 중퇴 후 생활(사례 2)



이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약간의 탈선을 경험한 후 자퇴, 다시 자신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유해한 학교환경과 사회환경에 노출된 것이 문제의 시발이었다.

이 두 사례에서 나타난 특색은 그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진로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우선 사례 1의 경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중퇴해 주유소 경리일과 직공생활을 성실히 해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중퇴 후 직업훈련원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알찬 내일을 설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 2의 경우, 중퇴 직후 공고입학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준비 부족으로 첫번째 좌절을 겪게 되고 그로부터 방황의 길을 걷게된다. 이렇게 볼 때, 능동형 중퇴자들이 걷게 되는 일반적인 진로 특색은 우선 진로 선택을 위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혀 나가나 상황적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위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② 도 피 형

도피형은 학교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뚜렷한 대안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이다. 중퇴청소년의 대다수가 도피형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일단 학교를 떠났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능동형에 비해 진로선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시간을 낭비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음의 두 사례는 계획없이 학교를 중퇴한 경우, 중퇴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진로실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사례 3〉

이 청소년은 직업훈련원 인쇄과에 소속된 15세의 소년이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 주부이다. 21살의 결혼한 누나와 상고 재학 중인 형, 그리고 자신 이렇게 3남매이다. 중 1에 자퇴한 이 청소년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을 들어보자.

2남 1녀중 막내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술을 자주 많이 드시는 편으로 취중에는 어머니와 자주 싸우시고, 나도 야단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술이 깨시면 별로 말도 없으셔서 집안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이다. 누나는 고등학교 재학 중(공부는 상위권) 집을 무단가출해서(이유는 모르겠다)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지금은 그 남자와 혼인 신고만 한 채 같이 살면서 3살박이 조카도 있다. 처음에는 집에서 난리가 났었으나 매형이 아주 착하고 좋아서 지금은 자주 왕래하면서 지낸다. 형은 공부는 잘하지는 못하나 힘이 세고 성실하여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성격이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귀여움을 받는다. 반면에 나는 내성적이고 의지가 약하며 게으른 편이어서 아버지(취중에)께 자주 맞고, 야단 맞으면 형이 감싸준다. 형을 질투하거나 미워한 적은 없고 오히려 형이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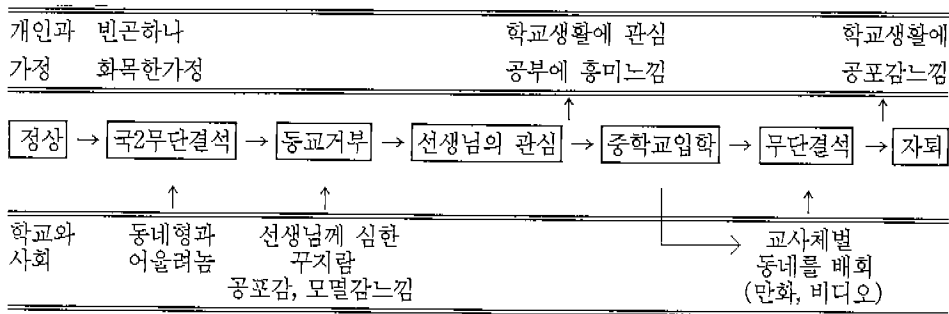
난우국민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재봉공장을 다니시자, 동네형들과 어울려 놀다가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다. 동네형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며 노는 것이 재미있어 집에는 학교에 간다고 나가 학교를 가지않고 만화가게나 오락실을 다니고, 공놀이하며 놀았다. 선생님이 엄마와 함께 불러 교실에서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매질을 하였다. 이때부터 자신은 매맞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시작했으며 너무 창피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은 너무 싫다. 혼이 난 후에도 여전히 학교가기가 싫어서 교문앞에서 되돌아온 적이 많다. 국 3때는 담임선생이 무관심하여 더욱 학교를 자주 결석한 채 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엄마에게 들켜 엄마는 공장일을 관두시고 자신을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러나, 국 4, 5, 6학년때는 선생님들이 모두 좋으셔서

학교를 비교적 열심히 다녔다. 특히 6학년때 담임선생님은 자신에게 무척 잘 대해주셔서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올라가 담임선생님은 좋았지만 다른 선생님들에게 많이 맞자 학교를 무단결석해버렸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에 가면 여전히 교문 앞에서 발길이 되돌아 선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하고 별로 사귀고 싶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석을 많이 하니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여 일부러 피해다녔다. 담임이 자꾸 결석하면 퇴학처분을 당하니 차라리 자퇴(중1)하라고 하여 엄마가 직접 자퇴수속을 밟으셨다. 집에서 내가 자퇴한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나때문에 화를 많이 내시는 데 그때는 밖으로 나와 아버지가 술이 깨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이러한 그의 생활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7] 중퇴 전 생활(사례 3)



이 청소년에게서 특별히 드러나는 점은 학교를 ‘우연히’ 무단결석하고 ‘어찌다’ 선생님에게 맞다보니 학교는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대한 기피증세로 무단결석이 잦아지고 습관화되어 결국 중퇴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 청소년의 회고에서 계속 언급되는 ‘선생님’은 이 청소년에게 학년에 따라 선명한 형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청소년은 학교를 자퇴한 후 절도로 경찰서에 다녀오고 잠깐씩 공장과 식당에서 일하다 직업훈련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퇴한 후 집에서 빈둥거리며 한 일년을 놀고 있을때 동네 친구 한명이 놀 돈이 없으니 자기친구네 집을 털자고 하여 그 집에 들어가 훔쳐냈는데 나는 자꾸 마음이 찝찝해서 나머지 돈을 돌려주자고 하였으나, 그 녀석이 남은 돈을 훔친 집 아들과 다 써버린 후에 경찰서에 붙들려 나도 함께 잡힌 적이 있다. 거기서 실컷 두들겨 맞고 나와 그 녀석과는 말도 안하고 지

낸다.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등산장비공장에 취직하여 1달정도 다니다가 엄마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식당을 다니라’고 해 나는 이미 그곳에 정이 들어 싫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럴려면 집을 나가라고 하여 직장을 바꿨으나 그곳이 장사가 안돼 나는 반달만에 해고되었으며 또 다른 백화점의 식당으로 옮겨 일을 시작한지 3일만에 나이가 어리다고 쫓겨났다. 그 이후 다시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자 엄마가 TV에서 직업훈련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에게 권유하여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청소년은 절도로 경찰서를 출입한 딱지를 가지고 있지만 큰 비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중퇴를 할 경우 청소년들이 취할 수 있는 진로유형이다. 나이 탓에 직장을 가지기가 쉽지 않으며, 설혹 직장을 가지더라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반숙련의 일에 종사함으로써 얼마나 전망있는 장래를 가꿀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도피형 중퇴청소년의 경우 진로를 찾기위한 방황이 심한 탓에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사례 3>과 같이 무력한 생활을 할 위험도 크다.

<사례 4>

이 청소년은 18세로 아버지는 노동에 종사하시고, 어머니와 여동생 둘과 함께 산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힘없이 괴롭힘을 당하다 중 2에 올라와 선배를 만나 탈선을 하게 된 경우이다. 이 청소년의 성장 배경을 그의 말을 통해 들어 보자.

국민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힘이 없는 애였다. 때리면 맞고, 돈 달라면 돈을 뺏겼다. 지는 것, 숙이고 들어가는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렇게 매일 겁내면서 학교 다니는게 너무 불만이였다. 중 2말쯤 친구가 동네 형 한명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형은 그 동네(면북동 일대 동부시장 근처까지)에서 잘 나가는 형들 중 하나였다. 싸움도 잘하고 패거리들도 많아서 함께 다니면 폼도 나고 든든하고 맛을 걱정 없는 것이 너무 좋았다. 동네 깡패들의 세계에서는 ‘선배빨’이라는게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잘 나고 잘 싸워도 선배빨이 없으면 그 동네에 자리를 잡기도 힘들 뿐 아니라 토박이 주먹들에게 맞고 쫓겨나기 십상이다. 친구 소개로 알게된 형을 통해 다른 형들도 알게되고 그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술이랑 담배도 배우고(중2말) 본드 등도 해봤다. 술과 담배는 그 뒤로도 많이 했지만 본드는 오래하지 않았다. 어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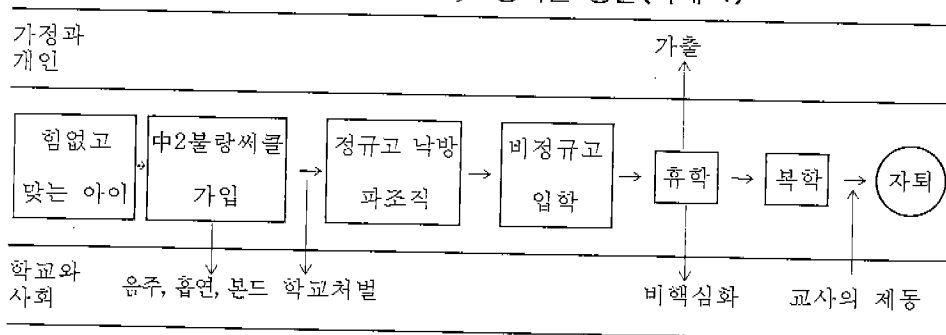
싸우거나 맞고 오면 형들이 쫓아가 뒤처리해주는 것이 든든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형들이 항상 잘 해주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굳기잡는 식으로 조그만 것 꼬투리를 잡아 엄청 때린다. 주로 독방에서 때리는 데 한번은 각목으로 하도 심하게 맞아 5명이 입원하고 나도 기어서 집에 왔다.

선배빨 등에 업고 중 2 끝날 무렵 ‘파(불량 circle)’ 하나를 만들었다. 그때 학교에 ‘망부석파’가 있었는데 그 파랑 선배형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망부석파에 맞서서 ‘화진파’를 만들었다. 중 2때까지 간신히 그나마 유지되던 성적이 중 3되면서 완전히 곤두박질쳐서 거의 매번 꼴찌를 했지만 관심도 없었다. 그때부터 면목2동에 있는 ‘진다방’은 아지트 삼아(진다방 뒤에 주차장이 있어 거기서 놀고 본드도 마시고 그랬다.) 아침부터 가서 ‘죽돌이’ 노릇했다. 학교도 거의 안 나가고 가출도 해보고 망부석파와 패싸움도 하는 바람에 근신, 무기·유기 정학 다 받아왔다. 그래도 퇴학은 안 당하고 겨우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하고 나서 인문고 떨어지고, 동대문 상고 야간도 떨어지고, 경기도에 있는 양서고등학교(여기저기 다 떨어진 애들이 오는 비정규학교)에 시험보러 갔는데 그냥 백지를 냈는데도 정원미달이라 전원 모두 합격·입학도 그렇고 학교자체도 담도 없고 교문고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모양이라 학교라는 기분이 전혀나지 않아, 그때부터 학교는 등록만 해두고 거의 매일 진다방으로 출근, 커피값 800원 내고 하루 종일 형이나, 같은 파 애들과 있으면서 매일 오는 ‘죽순이’들 사귀고 음악다방이라 판도 돌리면서 지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패싸움도 많이 하고 지나가는 애들 세워두고 돈도 많이 뺏았다. 고 1때도 죽순이들과 파라오는 친구들 돈 뺏이다 술값, 담배값 대곤했다. 고 1중간 쯤 친구들과 가출하면서 학교를 그만뒀버렸다. 그 이듬해에 다시 1학년으로 복학했는데 복학생이라고 말썽 일으킬까봐 그랬는지 선생님들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성질나서 아예 그만뒀버렸다.

이런 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1-8] 중퇴전 생활(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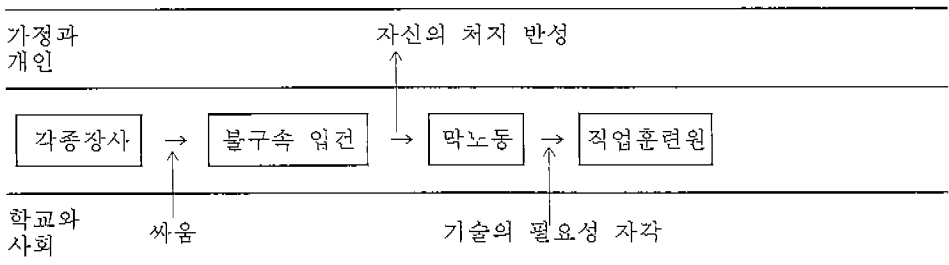
학교 관두고는 카드장사, 군고구마 장사도하고 남대문에서 청바지 띄어다가 팔아보고 하다가 카페, 레스토랑, 룸살롱 등에서 웨이터, 스키장에서 프런트보는 일 등 했다. 중학교부터 술을 배워 술은 쉼편 소주 10병정도이고, 룸 살롱에서 웨이터하면서 술을 많이 버렸다. 몸도 많이 상했지만 손님들 비위 맞추고 굶신거리는 일이 싫었다.

학교 관두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2번 있었다(전과는 없다). 한번은 스키장 프런트에서 일할 때였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식당에서 잔밥 털고 쓰레기 치우던 놈이 몇달 다른 데서 일한 후 다시 와보니 프런트로 승격되서 선배노릇을 하며 아니꼽게 굴어 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술먹고 취해서 칼 들고 지배인 죽인다고 그러는 것 말리다 싸움이 붙어 호텔 로비에서 싸웠다. 서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끌려가 열손가락 손도장 찍고 사진 찍혔다.

또 한번은 작년(18살때) 친구집에 놀러가서 둘이 술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자꾸 거슬리는 말하고 비위를 상하게 해서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취한 상태라 이성이 없어 점차 싸움이 격해져서 병을 깨들고 싸웠다. 그때가 12시가 넘었었는데 싸움이 격렬해지고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해서 친구집 가구며 문이며 다 부셨다 친구도 다치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 백차가 왔는데, 그때야 정신이 들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영장 대기실까지 갔다. 이번에는 정말 절렸구나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그때까지의 무절제한 생활이 너무 후회가 됐다. 같은 파 후배들 몇명이 성폭행으로 걸려 들어와 포승에 수갑차고 가는걸 보면서 여기서 나가게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기물파손, 폭력상해 등 여러가지가 걸려 교도소에 갈 사안이지만 엄마가 빼주셨다. 거기서 나와 그때부터 웨이터 때려치고 아버지 따라 막노동판에 다녔다. 일 다니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도 알게되었다. 한동안 막노동하다가 친구가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게 어떠냐고 하고 아버지도 자격증 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다.

이런 그의 중퇴후의 생활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9] 중퇴후 생활과 미래설계(사례 4)



이 도피형 사례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자의든 타의든 학교생활에 실패하고 특별한 계획없이 중퇴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퇴 후에 진로모색을 위해 나름대로 분투했으나 이 분투를 체계화할 방향성이나 의지가 능동형 중퇴청소년보다 부족하다. 사례 3이나 사례 4에서 본 것처럼 중퇴 후 취업이 불안정한 점도 큰 문제로 드러났다.

③ 불가피형

‘불가피형’은 학교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안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명령퇴학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불가피형’은 ‘능동형’이나 ‘도피형’ 중퇴청소년보다 개인 외적 상황에 크게 구속된다. 아래 사례는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명령퇴학을 당한 청소년의 이야기이다. 이 사례를 통해 ‘불가피형’ 중퇴청소년의 진로전개에서 나타나는 특색을 압축해 보자.

〈사례 5〉

이 청소년은 중 2 때 퇴학당한 17세 남자이다. 이 청소년은 아직도 글자를 읽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본드나 대마초를 흡입한 탓인지 지능이 떨어져 보인다. 어머니는 산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신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시고 엄격하시며, 아버지와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부산에 살다가 국민학교 입학무렵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에 살 때 아버지는 항상 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나는 매일 밖으로만 나다녔다. 부산은 항구도시라 마약 같은 것도 들어오기 쉽고, 질 나쁜 사람들도 많았다. 동네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다섯살 때 담배를 처음 피워봤다. 담배를 배우고 나니 대마초도 주었다. 어지럽고 기분도 좋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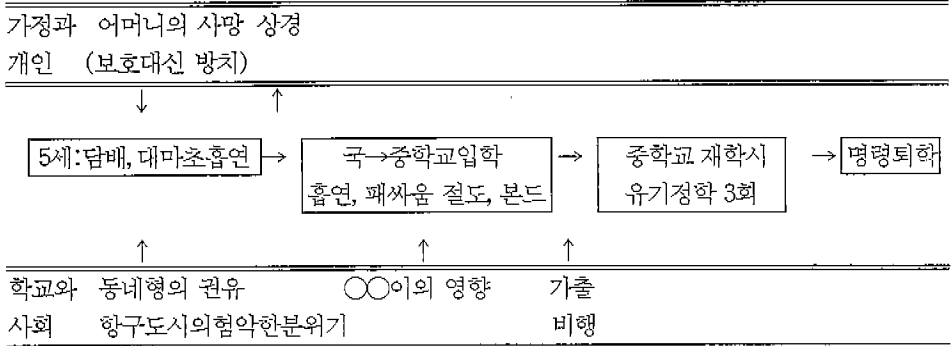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아버지 모르게 담배를 피웠다. 서울에 올라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말썽을 일으켰다. 싸움을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 애들을 혼내주는 것은 나의 몫이었다.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친구는 6학년 때 ○○이라는 애로 반 애들을 협박해서 돈 뺏고, 특히하면 애들 때리고 하던 아이였는데, 6학년 올라와서 둘이 크게 싸운 후 화

해하는 과정에서 진해졌다. 둘이 어울려 다니며 아이들 돈 뺏고 패싸움하곤 했는데 파이프 같은 무기도 썼다. 지금 ○○이라는 친구는 사람을 찢어서 소년원에 가있다. 중학교 올라와서도 글자도 못 읽고 공부는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는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녔다. 본드도 마셔보고 애들이란 남의 집도 털어왔고, 지나가는 사람들 협박해서 돈도 뺏어보았다. 싸움은 자주했다. 이런 저런 일들로 퇴학당하기 전에 유기정학 3번 맞아왔고, 가출도 여러 번 했었다.

퇴학당하게 된 사건은 반 아이중 하나가 본드를 마시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성질이 나서 의자로 유리창을 켜 후 그 파편으로 그 애를 찢어서 많이 다쳤다. 유기정학을 여러번 맞은 뒤라 이 사건으로 인해 중 2 때 퇴학당했다.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건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10] 중퇴 전 생활(사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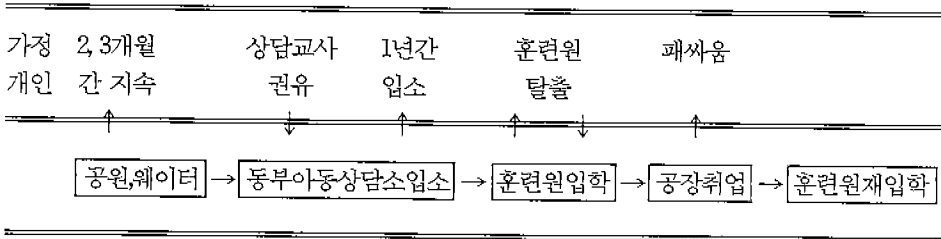
중퇴 후에 이 청소년은 여러 곳을 전전하다 전문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직업 훈련원에 입학했다.

동부아동상담소에 맡겨져 1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학교를 그만두고 피혁공장, 의류공장, 레스토랑 웨이터 등 여러 직업을 했는데 2~3달이 보통이고 그 이상 지속된 직업은 없었다.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은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돈이 좋아서 이일 저일 했다.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안 좋았던 기억은 금년초 훈련소 왔다가 재미도 없고 별 것 없는것 같아서 친구와 세명이 훈련소에서 도망쳐 대림동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친구사이에 오해가 생겨 나
 말고 다른 두 친구가 싸웠는데 각목을 켜기 때문에 많이 다쳤다. 이 일로 공
 장에서 나와 훈련소에 다시 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다시 들어왔다.

이런 생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1-11] 중퇴 후 생활(사례 5)



이 청소년의 경우, 5세 때부터 담배와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다는데, 사실
 이 정말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5세 이하의 일을 정확히 기억해 내
 기는 어렵다는 것이 인지이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청소년이 아주 어려서부터 유해한 환경에 방치
 되고 이로부터 심각한 비행에 빠져들어갔다는 점이다.

학교의 명령으로 중퇴한 이 청소년의 진로전개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공장
 과 서비스업종에서 직장을 가졌으나 2, 3개월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도피형
 중퇴청소년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불안정한 취업은 본인의 의지부족 때문이
 지만 그외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가 될 것이다.

(2) 중퇴청소년의 일반적 진로 특색

이상에서 살펴본 중퇴청소년의 진로는 몇가지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중퇴청소년의 진로특색을 개괄적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
 사업장에서 짧은 기간만 취업함에 따라 심한 이직현상을 보이고 있다. 면접
 에 응한 중퇴청소년의 진술에 따르면 중퇴 이후부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
 업훈련원에 정착할 때까지 1~2년동안 중퇴청소년 1인이 대략 4~5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중퇴청소년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은 서비스직, 생산직, 상업 등 다양하지만 고용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며, 상업은 영세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의 경우 언제나 대체가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반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시장이라는 점이며, 장기간 근무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므로 이직률이 높다.

이들이 선택하는 서비스직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나 카페에서 서빙, 주유소, 카센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곳은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이들은 생산직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고용의 안정성 면에서나 사원의 복지면에서 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수의 중퇴청소년들이 상업에 종사하는데 소자본을 들이는 작은 규모의 장사를 하고있다는 점도 그 특색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중퇴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학할 것인지 취업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진학을 한다면 어디를 목표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종을 위해 언제 어떠한 준비를 마치고 할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다분히 즉흥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일례로 사례 3번의 김모군은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루기 위해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으나 중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비행에 휘말렸다. 또 사례 14번의 이모군은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 후 졸업장 취득도, 진학 준비도 뒤로 미룬 채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외판원으로 전전하기도 했고, 사례 15 번의 박모군도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가 하면 공고 재입학을 시도했다.

중퇴청소년의 진로특색을 기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네번째 특징은,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 때문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정은 청소년들의 진로지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청소년에게서, 즉 경험이 풍부한 의논 대상이 없는 청소년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대로 이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직은 레스토랑, 카페, 룬쌀롱 같은 곳인데, 이곳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특색 이외에도 청소년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사례 1의 김모군, 사례4의 최 모군 등은 레스토랑 웨이터로 일하면서 싸움에 휘말려 전과자가 된 경우이다.

다섯째, 중퇴청소년 중 여학생의 진로선택은 남학생에 비해서 훨씬 그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위의 사례 연구에서 대상이 된 2명의 여학생은 중퇴 이후 유흥업소에서 일자리를 마련했다. 물론 여학생들이 생산직에 종사하거나 자신의 내일을 가꾸기 위해 사설학원 등에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으나, 남학생이 유흥업소에 서빙을 하는 것과 같은 빈도와 비중으로 여학생은 유흥업소에 취업하게 된다. 물론 사례 둘을 가지고 중퇴한 여자 청소년의 문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으나 중퇴한 여자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특색을 고려해 볼 때 여자 중퇴청소년의 실태파악과 그 지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중퇴한 청소년 중에서 직업훈련원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퇴청소년 일반 집단과 다소 구별되는 진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몇가지 진로 유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국·공립 직업훈련원이나 사설 직업학원, 기업운영 직업훈련소, 진학준비학원을 찾는 경우이다. 둘째는 실제로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비행으로 중퇴한 청소년에게는 취업은 비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의 상태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중퇴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퇴 청소년의 대부분은 취업을 위한 기술조건과 학력조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자리를 그만두고 더욱 유해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심각한 비행에 휩쓸리곤 한다. 가정에서 소외되고 학교에서 사회로 추방되면서 소속

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위한 진로개척을 포기하고 유해한 환경 속에서 비행에 저지르게 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지도여건이 부재한 상황에서서는 늘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2. 정학생의 실태

징계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교정하여 그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일정한 교칙을 적용한 결과로서, 징계 그 자체는 학생이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 처방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한 학생의 문제행동을 그대로 징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학생들은 자성의 기회를 잃고 더욱 심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징계는 이제껏 정당화되어 왔다. 징계를 정당화하는 또 한가지 논리는 일벌백계의 논리이다. 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하면, 다른 학생들은 자연히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벌백계의 수단으로써 징계는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그 우려는 우선 징계 대상인 학생들의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내일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러므로 징계라는 처벌적인 선도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는 커녕 민감한 감수성을 건드려 사회에 대한 반발심만을 부추길 수도 있으며, 부정적 경험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낙인이론의 대두와 더불어 더욱 유력시되고 있다. ‘왜 재범자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낙인이론은 법적 처벌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과 범죄집단을 동일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기대박탈감으로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박탈감의 경험은 주변사람들의 낙인(저 사람은 범법자다라는 식의 낙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즉 형벌은 피의자의 자아개념에 부정적 영

향력을 행사하여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낙인을 강화하여 재범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위에서 지적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지만, 징계의 과정 및 효과와 관련된 것이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들의 말씀에 따르면 학생들을 선도하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처벌이 아니라 사랑의 교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징계라는 처벌형식의 선도과정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반성문 쓰기와 체벌, 학교봉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지도 교사들의 지적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징계를 경험한 학생들이 실제로 선도되었는가’라는 경험적 질문에도 일선의 지도교사들은 부정적 대답을 하고 있다.

“징계는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이 물음은 징계에 대해 갖고 있던 통념을 재고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아울러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일단 징계생의 실태분석에서는 이들이 징계받을 만한 문제행동을 했는가라는 기본적 문제는 차치하고, 징계받을 만한 문제행동을 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된 조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주변환경 즉 가정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학교생활 실태를 더 면밀히 조사하였는데, 이는 징계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더우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된 생활 공간이 학교이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징계생의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내 6개 중학교의 2, 3학년 정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설문은 징계생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징계생의 일반적인 특성, 징계생의 가정생활, 징계생의 학교생활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한 것이다. 다만 징계생만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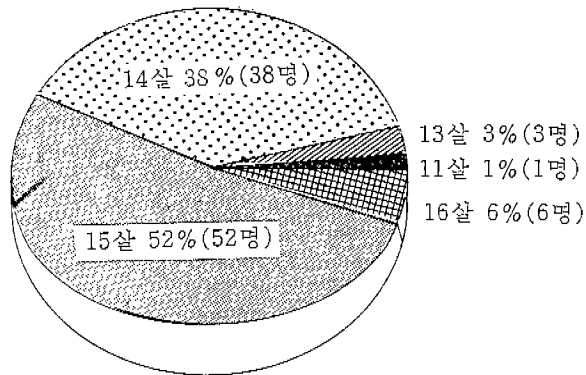
사대상으로 한다면 솔직한 대답을 얻기 힘들고 집단간의 특성도 비교해 보기 위하여 징계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설문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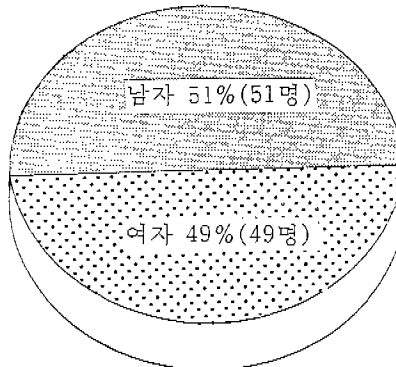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네가지 기준에 의해, 즉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가정환경별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중에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Ⅱ-2-1〉과 같이 나타난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1살에서 16살까지로 나타났다.

〔그림 Ⅱ-2-1〕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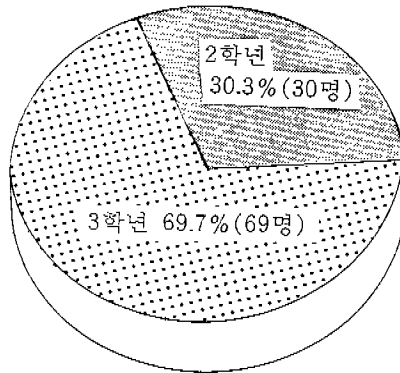
남자는 5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51%에 해당되고 여자는 49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Ⅱ-2-2〕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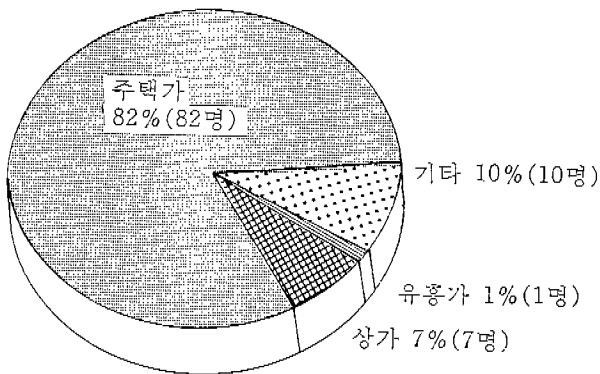
조사대상 학생의 학년은 2학년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30.3%, 3학년은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3] 조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



이외에 거주지별로 보면, 전체의 82%의 학생이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특별히 유해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II-2-4] 거주지별 분포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학생이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학생과 일반학생이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표 II-2-1>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집단의 거주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징계생과 비징계생의 거주지 비교

(단위 : 명(%))

징계여부 거주지	징 계 생	비 징 계 생
주 택 가	55 (83.3)	24 (77.4)
상 가	5 (7.6)	2 (6.5)
유 흥 가		1 (3.2)
기 타	6 (9.1)	4 (12.9)
계	66 (100.0)	31 (100.0)
$x^2 = 3.308$		$df = 6$

다음으로 징계생과 일반학생간의 가정형편을 비교해 보면, 두집단 모두 가정형편이 보통인 경우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징계생과 비징계생 가정형편 비교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녁 녁 하 다	1 (1.5)	4 (12.5)	
조 금 녁 녁 하 다	14 (21.2)	9 (28.1)	
보 통 이 다	44 (66.7)	18 (56.3)	3 (100.0)
조 금 쪼 들 린 다	6 (9.1)	1 (3.1)	
매 우 쪼 들 린 다	1 (1.5)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9.387$		$df = 8$	

이상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 정계생과 일반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별로, 성별로, 거주지별로, 가정형편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서는 정계생 집단과 비정계생 집단의 가정생활에 서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자.

2) 가정생활

가정은 오랜시간 학교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는 휴식처이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가정생활 전반(대화빈도, 의견존중도, 부모님의 간섭정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도, 가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가족구성원들 간의 대화 빈도를 알아보면 <표 II-2-3>과 같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정계생이 비정계생보다 가족대화 빈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볼 때,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3> “우리는 식구끼리 대화를 자주한다.”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4 (6.9)	6 (20.0)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17 (29.3)	8 (26.7)	1 (33.3)
보 통 이 다	19 (32.8)	12 (40.0)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6 (27.6)	4 (13.3)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 (3.4)		
계	58 (100.0)	30 (100.0)	3 (100.0)
$\chi^2 = 7.985$ $df = 8$			

다음으로, 부모님이 어느정도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표 II-2-4>에서 보면 알 수 있다.

<표 II-2-4> “부모님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3 (4.5)	3 (9.4)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16 (24.2)	11 (34.4)	1 (33.3)
보 통 이 다	28 (42.4)	13 (40.6)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4 (21.2)	4 (12.5)	
전 혀 그 령 지 않 다	5 (7.6)	1 (3.1)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7.107$		$df = 8$	

이 경우도 앞서 알아 보았던 가족대화 빈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정계생은 부모님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정계생의 경우는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관여하시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정계생들은 부모님의 관여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비정계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계생들이 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때 부모님들의 관여도가 높은 것인지, 혹은 평소에도 그러한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같은 경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여겨진다.

〈표 II-2-5〉 “부모님은 내 생활에 세세히 관여하신다.” (단위 : 명(%))

가정형편 \ 징계여부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8 (12.3)	4 (12.5)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28 (43.1)	8 (25.0)	2 (66.7)
보 통 이 다	21 (32.3)	13 (40.6)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6 (9.2)	5 (15.6)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 (3.1)	2 (6.3)	
계	65 (100.0)	32 (100.0)	3 (100.0)
$\chi^2 = 6.786$ $df = 8$			

부모님에 대한 존경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2-6〉과 같다. 징계생의 43.9%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징계생의 경

〈표 II-2-6〉 “나는 커서 부모님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단위 : 명(%))

가정형편 \ 징계여부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4 (6.1)	4 (12.9)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12 (18.2)	6 (19.4)	1 (33.3)
보 통 이 다	12 (18.2)	11 (35.5)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9 (13.6)	6 (19.4)	1 (33.3)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9 (43.9)	4 (12.9)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15.128$ $df = 8$			

우는 35.5%가 보통으로 응답하고 있어,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모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징계생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두집단 모두 자신들의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2-7〉 “나는 우리집에 태어나 불행하다.”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3 (4.5)	1 (3.1)	
대 체 로 그 령 다	8 (12.1)	2 (6.3)	
보 통 이 다	18 (27.3)	5 (15.6)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4 (21.2)	7 (21.9)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3 (34.8)	17 (53.1)	3 (100.0)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8.010 \quad df = 8$			

가정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한 평가는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가족들과의 대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님이 자신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의견존중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도록한 질문에서, 징계생들이 비징계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간섭을 더 많이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조사대상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정계생들이 비정계생보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정계생일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두집단 모두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

앞서 정계생과 비정계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및 가정생활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가장 오랜시간 활동하는 생활 공간인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표 II-2-8>에 나타난다.

<표 II-2-8> “학교생활이 즐겁다.” (단위 : 명(%))

가정형편 \ 정계여부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10 (15.4)	5 (15.6)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14 (21.5)	8 (25.0)	1 (33.3)
보 통 이 다	24 (36.9)	12 (37.5)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9 (13.8)	5 (15.6)	
전 혀 그 령 지 않 다	8 (12.3)	2 (6.3)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2.428$ $df = 8$			

징계생과 비징계생 집단 모두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생활의 어떤 면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학교는 단지 지식을 전수해주는 기능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생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표 II-2-9>는 학생들이 학교를 개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기관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표 II-2-9> “학교는 심신을 수련하는 터전이다.”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용 답
매 우 그 령 다	4 (6.3)	2 (6.3)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6 (9.4)	8 (25.0)	1 (33.3)
보 통 이 다	25 (39.1)	12 (37.5)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4 (21.9)	6 (18.8)	
전 혀 그 령 지 않 다	15 (23.4)	4 (12.5)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9.816$ $df = 8$			

<표 II-2-9>에서 볼 수 있듯이, 두집단 모두 심신수련장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가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표 II-2-10>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학

교 말고도 소중한 것을 배울 곳이 많다는 의견에 정학생(69.7%)과 비정학생(64.5%) 모두 동의하고 있다.

〈표 Ⅱ-2-10〉 “세상에는 학교 말고도 소중한 것을 배울 곳이 있다.”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부 응 답
매 우 그 령 다	25 (37.9)	12 (38.7)	
대 체 로 그 령 다	21 (31.8)	8 (25.8)	
보 통 이 다	11 (16.7)	8 (25.8)	1 (50.0)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5 (7.6)	3 (9.7)	1 (50.0)
전 혀 그 령 지 않 다	4 (6.1)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9.255$ $df = 8$			

그렇다면 학교가 학생들의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평가, 선생님에 대한 평가, 친구관계 등을 통해서 알아 보았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표 Ⅱ-2-11〉을 보면, 두집단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계생의 경우에 대체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쪽의 의견이 강한 반면, 정계생은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어쨌든 두집단 모두가 자신들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개인 내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선생님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표 Ⅱ-2-11〉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된다.”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2 (3.1)	3 (9.4)	2 (66.7)
대 체 로 그 령 다	3 (4.6)	6 (18.8)	
보 통 이 다	22 (33.8)	8 (25.0)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8 (27.7)	11 (34.4)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0 (30.8)	4 (12.5)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27.481^{**}$ $df = 8$			

** : $p < 0.01$

학교의 기능 중에 학생들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사회의 규범을 전수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탈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주기도 하며 학생들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학교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알아보자.

학교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필요이상의 벌을 주고 있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징계생과 비징계생 집단은 의견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의견이다. 〈표 Ⅱ-2-12〉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징계생이 우세하고,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은 비징계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볼 때,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상대적으로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징계생의 경우에, 자신들이 징계당사자이므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만 비징계생들 역시 그들의 친구가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다고 여

기는 것은 학생은 학생편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표 II-2-12〉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비해 과도한 벌을 준다.”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14 (21.2)	6 (18.8)	
대 체 로 그 령 다	16 (24.2)	12 (37.5)	
보 통 이 다	25 (37.9)	9 (28.1)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7 (10.6)	4 (12.5)	1 (33.3)
전 혀 그 령 지 않 다	4 (6.1)	1 (3.1)	1 (33.3)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8.976$ $df = 8$			

학교생활에서 개개인의 가치관에 미치는 선생님의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II-2-13〉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표 II-2-13〉을 살펴보면, 징계생들과 비징계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생님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해결자로 여기는가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선생님을 학생들은 문제해결자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자.

〈표 II-2-13〉

“선생님을 존경한다.”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9 (13.8)	5 (16.1)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20 (30.8)	8 (25.8)	1 (33.3)
보 통 이 다	16 (24.6)	13 (41.9)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2 (18.5)	4 (12.9)	1 (33.3)
전 혀 그 령 지 않 다	8 (12.3)	1 (3.2)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7.031$ $df = 8$			

〈표 II-2-14〉를 살펴보면, 선생님을 문제해결자 보는지에 대해 징계생들이 비징계생보다 문제해결자로서의 선생님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표 II-2-14〉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2 (3.0)	3 (9.4)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11 (16.7)	8 (25.0)	
보 통 이 다	24 (36.4)	9 (28.1)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3 (19.7)	5 (15.6)	
전 혀 그 령 지 않 다	16 (24.2)	7 (21.9)	1 (33.3)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8.100$ $df = 8$			

점을 알 수 있다.

고려해야할 사항은 문제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어려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생님들 또한 과중한 수업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각 학교별로 상담실이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선생님들과 스스로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친구관계에 대해 알아 보았다. <표 II-2-15>에 나타나듯이,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계생, 비정계생 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그들의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표 II-2-15>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14 (21.2)	4 (12.5)	2 (66.7)
대 체 로 그 령 다	23 (34.8)	14 (43.8)	
보 통 이 다	21 (31.8)	12 (37.5)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3 (4.5)	1 (3.1)	
전 혀 그 령 지 않 다	5 (7.6)	1 (3.1)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7.195$ $df = 8$			

〈표 II-2-16〉은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 기성세대가 하는 식의 평가를 내리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 본 결과이다. 〈표 II-2-16〉을 보면, 기성세대식의 평가에 대해 동의하는 쪽보다 부정하는 쪽의 의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의견차이는 존재하는데, 징계생이 비징계생보다 좀 더 강한 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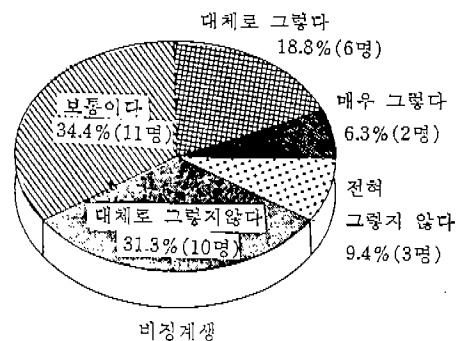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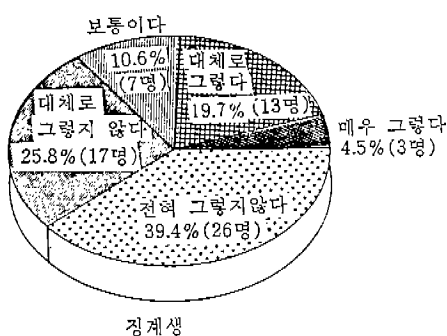
〈표 II-2-16〉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단위 : 명(%))

가정형편 \ 징계여부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3 (4.5)	2 (6.3)	
대 체 로 그 령 다	13 (19.7)	6 (18.8)	1 (33.3)
보 통 이 다	7 (10.6)	11 (34.4)	2 (66.7)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7 (25.8)	10 (31.3)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6 (39.4)	3 (9.4)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18.874^*$ $df = 8$			

* : $p < 0.05$

[그림 II-2-5]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점 또한 당사자인 교로 그러한 평가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학교의 문제아를 사회의 문제아와 동일시하는 기성 세대의 풍토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들지 않고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엿보이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신들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자.

〈표 II-2-17〉

미래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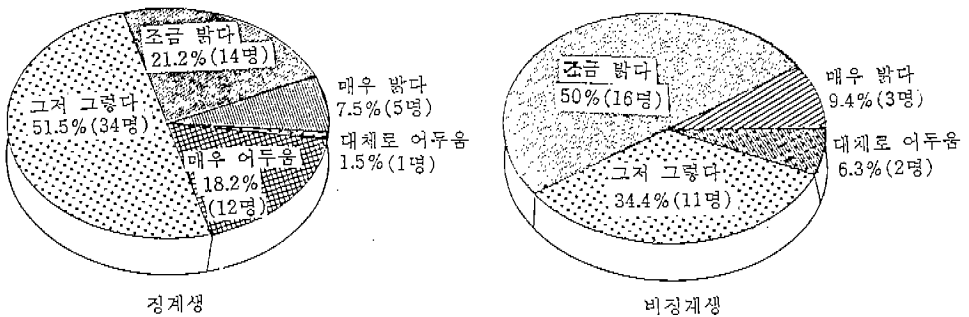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5 (7.5)	3 (9.4)	1 (33.3)
조 금 밝 다	14 (21.2)	16 (50.0)	2 (66.7)
그 저 그 령 다	34 (51.5)	11 (34.4)	
대 체 로 어 두 움	12 (18.2)	2 (6.3)	
매 우 어 두 움	1 (1.5)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46.611^{**}$ $df = 8$			

** : $p < 0.01$

〈표 II-2-17〉을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두 집단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계생의 50.0%가 미래가 '조금 밝다'고 지적인 반면에 정계생의 51.5%가 '그렇다'고 지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 Ⅱ-2-6] 미래에 대한 전망



이 점은 학교에서는 문제아이지만 자신들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이 자신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이 학생인 만큼 자신들에게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성적에 대해 두집단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는 <표 Ⅱ-2-18>과 같다. <표 Ⅱ-2-18>에서 보면, 정계생 집단과 비정계생 집단간에 성적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는 <그림 Ⅱ-2-7>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성적에 대해 보통이하의 평가를 한 경우를 보면, 정계생일수록 비정계생보다 자신들의 성적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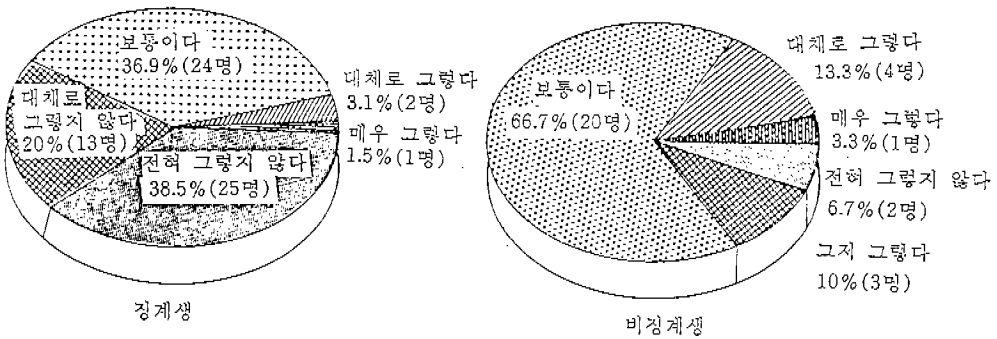
“공부를 잘한다.”

(단위 : 명(%))

가정형편 \ 징계여부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1 (1.5)	1 (3.3)	
대 체 로 그 령 다	2 (3.1)	4 (13.3)	1 (33.3)
보 통 이 다	24 (36.9)	20 (66.7)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3 (20.0)	3 (10.0)	2 (66.7)
전 혀 그 령 지 않 다	25 (38.5)	2 (6.7)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25.248^{**}$		$df = 8$	

** : $p < 0.01$

〔그림 II-2-7〕 “공부를 잘한다.”



〈표 II-2-19〉는 성적상태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표 II-2-19〉 “진학하여 계속 공부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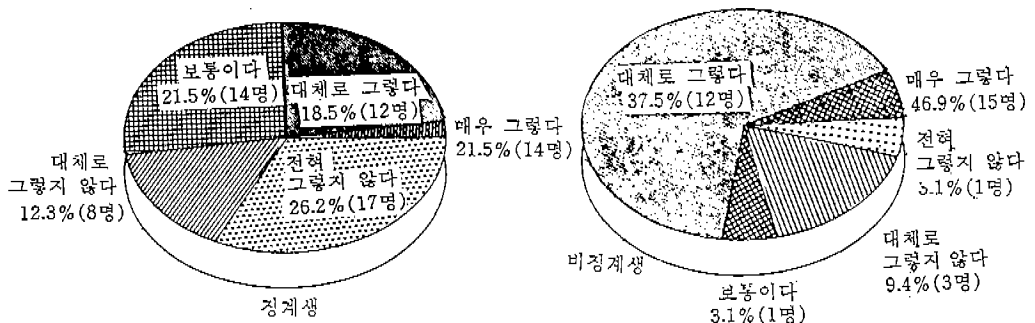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14 (21.5)	15 (46.9)	3 (100.0)
대 체 로 그 령 다	12 (18.5)	12 (37.5)	
보 통 이 다	14 (21.5)	1 (3.1)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8 (12.3)	3 (9.4)	
전 혀 그 령 지 않 다	17 (26.2)	1 (3.1)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25.445^{**}$ $df = 8$			

** : $p < 0.01$

진학에 대한 생각을 보면, 비정계생의 경우와 정계생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계생의 경우는 전체의 84.4%가 진학하고자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계생들의 경우는 생각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진학을 하고자하는 열의를 가진 학생들(40.0%)과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38.5%)로 나뉘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II-2-8〕 “진학하여 계속 공부하고 싶다.”



진학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은 진학을 준비하겠다고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징계생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므로 진학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징계생들에 대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표Ⅱ-2-20>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비징계생의 경우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31.3%)과 부정적인 측면(31.3%)으로 의견이 나뉘어진다. 징계생들의 경우는 45.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비징계생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Ⅱ-2-20> “학교는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다.”

(단위 : 명(%))

징계여부 가정형편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4 (6.3)	2 (6.3)	1 (33.3)
대 체 로 그 령 다	6 (9.4)	8 (25.0)	1 (33.3)
보 통 이 다	25 (39.1)	12 (37.5)	1 (33.3)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14 (21.9)	6 (18.8)	
전 혀 그 령 지 않 다	15 (23.4)	4 (12.5)	
계	66 (100.0)	32 (100.0)	3 (100.0)
$x^2 = 9.816$ $df = 8$			

앞서 우리는 <표Ⅱ-2-19>의 결과를 통해 징계생들이 진학하려는 쪽과 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 <표Ⅱ-2-20>

의 결과는 학교가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결과들에서 학교는 직업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는 상급학교로 학생들을 진학시키는데 더욱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 <표 II-2-21>의 결과를 보면 더욱 확연히 현재의 학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된다.

<표 II-2-21> “학교는 입시지옥이다.”

(단위 : 명(%))

가정형편 \ 징계여부	징 계 생	비징계생	무 응 답
매 우 그 령 다	13 (19.7)	7 (21.9)	
대 체 로 그 령 다	21 (31.8)	9 (28.1)	1 (33.3)
보 통 이 다	22 (33.3)	9 (28.1)	2 (66.7)
대 체 로 그 령 지 않 다	5 (7.6)	5 (15.6)	
전 혀 그 령 지 않 다	5 (7.6)	2 (6.3)	
계	66 (100.0)	32 (100.0)	3 (100.0)
$\chi^2 = 4.024$		$df = 8$	

<표 II-2-21>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지를 알 수 있다. 학교를 진학만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평가하는데는 징계생과 비징계생간에 의견차이가 없다. 재미있는 점은 징계생의 51.5%와 비징계생의 50%가 학교의 진학위주 역할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진학위주의 역할을 강조할 때, 진학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은 자연히 소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시 진학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에서 그외 다른 길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이러한 분위기는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표 II-2-22>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표 II-2-22>

중퇴고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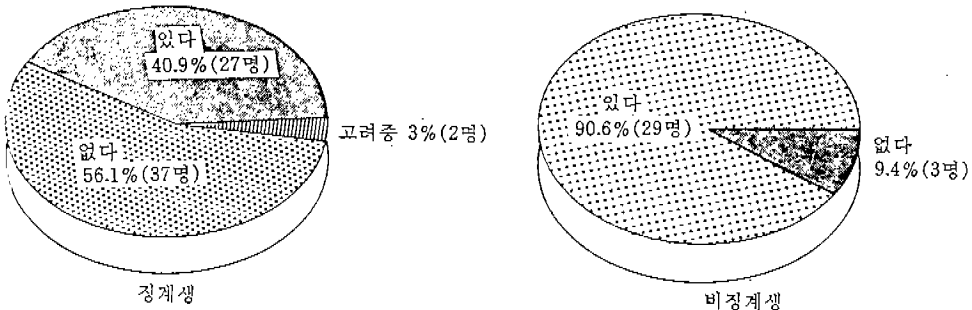
(단위 : 명(%))

정계여부 가정형편	정 계 생	비정계생	무 응 답
없 다	27 (40.9)	29 (90.6)	3 (100.0)
있 다	37 (56.1)	3 (9.4)	
고 려 중	2 (3.0)		
계	68 (100.0)	32 (100.0)	3 (100.0)
$x^2 = 24.179^{**}$ $df = 8$			

** : $p < 0.01$

중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비정계생들은 90.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이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여 학교제도 내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2-9] 중퇴고려 여부



반면에 정계생들은 의견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있다. 문제는 학교제도 내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40.9%의 정계생이다. 이들은 학교의 입시위주 기

능에 대해 회의적이며 학교에서는 이들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다. 만약 이들이 학교라는 제도를 벗어난다면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필요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첫째, 학교는 진학을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둘째, 학교를 중퇴할 경우에 그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이나 상담은 학교만의 책임으로 미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와 교외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인 지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정학·중퇴 청소년 지도현황

정학·중퇴 청소년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청소년보다 다양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상담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가치관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를 잘하여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 진로지도나 학습지도,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장래를 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하는 지도는 정학·중퇴 청소년의 실태에서 살펴 보았듯이 '징계가 다'라고 할 만큼 징계 위주의 응벌주의적 지도에 치중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응벌주의적 지도가 교육적인가, 비교육적이기에 대한 질문을 외면한 채 임시위주의 교육여건 때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고, 문제학생의 행동을 지도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응벌주의적 지도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반문할 때, 응벌주의적 지도가 갖는 비교육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일단 학교의 현실 여건상 징계위주로 지도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면, 응벌주의적 지도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 여건이 사회 속에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지도란 무엇인가? 청소년을 위한 지도란 학교와 가정 및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신의 균형잡힌 발전을 꾀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 지도는 전사회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경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한 사회의 문화 모두를 호흡하면서 성장해가므로 청소년이 소속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모두는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지도를 다분히 학교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인간교육의 부재"이다.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인의 삶에서 지식과 기술의 전수만을 하기에 오

늘의 학교교육체계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학교의 역부족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도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지도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지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용어로 생활 지도를 꼽는다. 생활지도란 학습지도와 맺구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적 지도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지도란 Guidance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성격상 비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조직과 형식을 갖출 수도 있는 것이다. 일례로 우연한 기회에 아무런 격식도 갖추지 않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학습습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경우, 거기에는 생활지도의 의미가 포함된다. 이와 달리 학생이 자신의 학습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생활지도 교사를 찾아가서 학습습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얻게 되는 경우, 여기에는 조직과 체계가 선 생활지도가 행해진 것이다. 이러한 생활지도는 20세기에 들어서 대부분 조직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면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직업지도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제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지도,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정서적 지도, 올바른 종교적 지도 등 생활지도의 범위는 인간의 전생활을 포괄하는 지도 및 봉사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활지도에서 관심을 두는 영역의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의 범위로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 생활지도를 통하여 성취하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학생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각 개인이 수시로 부딪히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학생 각 개인이 앞으로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영구적인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청소년 각 개인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조화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각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를 위해 신념을 갖고서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생활지도의 장기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생활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은 일정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기체로써 전체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 간다. 민주사회는 모든 개인의 최대한의 성장과 사회에 각 개인의 독특한 공헌을 중요시 한다. 개인의 최대한의 성장은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전반에 대하여 조화된 성장을 전제로 하며, 인간이 지닌 내재적 요구와 목적을 자율적이며 건전한 방법을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생활지도는 각 개인의 자율적 성장을 돕는 봉사의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 그 조력이나 봉사의 중요한 대상은 학생 개인이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생활 지도의 의미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의 정학·중퇴 청소년들의 지도현황을 알아보겠다. 아울러 외국의 지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도현황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학교안 지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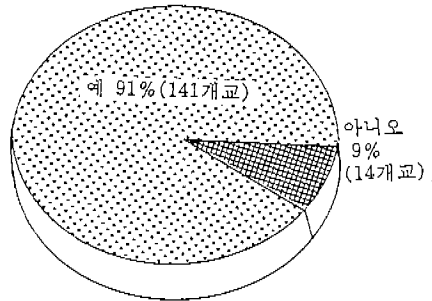
정학 청소년의 교내 지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경우 각 학교는 학칙에 따라 거의 유사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사후 지도를 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실제 교내의 지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도주임 및 학생주임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생징계의 기준이 되는 징계규정은 수집이 가능한 학교의 것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상담지도

(1) 상담실 분리 여부 및 상담자격증 소유 교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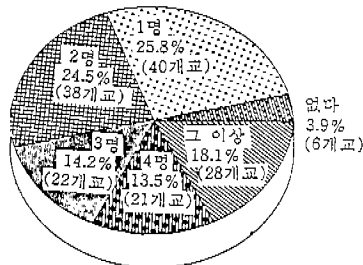
조사대상 중·고등학교 161개교 중에 교도주임용 설문에 응해준 155개교의 설문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에 상담실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림 Ⅲ-1-1>에서와 같이, 전체학교의 91%(141개교)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상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상담을 위한 물리적인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Ⅲ-1-1] 학교내 상담실 분리여부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담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교사가 없다면 상담실 운영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 실제 유자격 상담교사가 존재하는가도 중요하다. <그림 Ⅲ-1-2>에서 각급 학교의 자격증을 갖춘 상담교사수를 알아보면, 전체의 25.8%에 해당되는 학교에 1명, 24.5%의 학교에 2명, 14.2%의 학교에 3명, 13.5%의 학교에 4명, 18.1%의 학교에 그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상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1-2] 학교내 상담자격 교사수



그러나 이러한 상담 자격증을 갖춘 교사들은 대부분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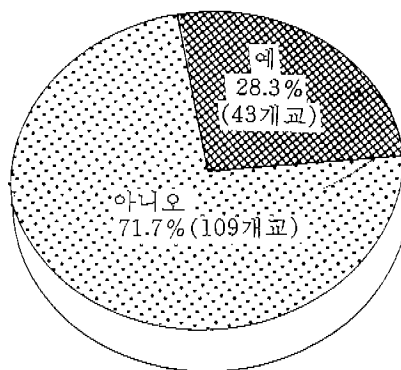
로 일정한 수업시간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원할 경우 수업시간 후의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나이든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학생지도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면 학교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담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몇 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주부상담원의 상담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주부상담원 활용 현황을 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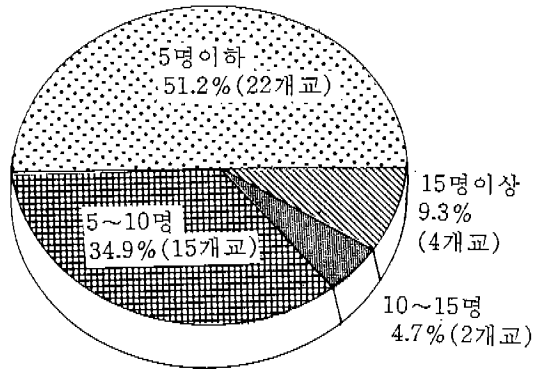
(2)주부 상담원의 활용 현황

〈그림 Ⅲ-1-3〉의 조사결과를 보면, 152개교 중 43개교(28.3%)가 주부상담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많은 학교에서 주부상담원 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43개교에서 상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 상담원은 51.2%가 5명이하이며, 34.9%가 5~10명으로 대개 10명 이내(8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주부상담원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Ⅲ-1-3〕 학교내 주부상담원 자원봉사제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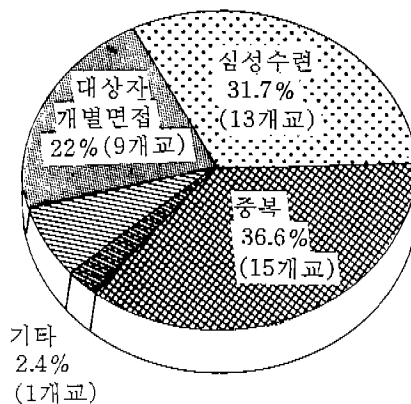


[그림 Ⅲ-1-4] 주부상담원수



주부상담원들의 주요 상담내용은 31.7%가 심성수련을 22%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면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결연후원제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상담의 경우에 주로 집단상담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상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지만 상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은 필히 고려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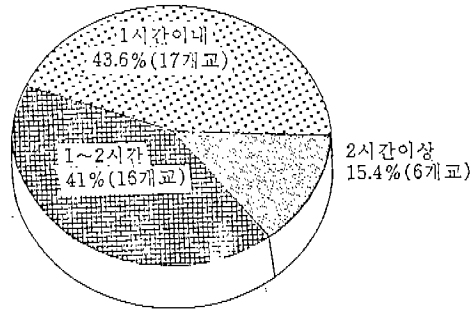
[그림 Ⅲ-1-5] 주부상담 프로그램 내용



〈그림 Ⅲ-1-6〉에 따르면 주부상담원들은 1회 활동에 43.6%가 1시간 이내, 41%가 1~시간, 15.4%가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여 2시간 가량 상담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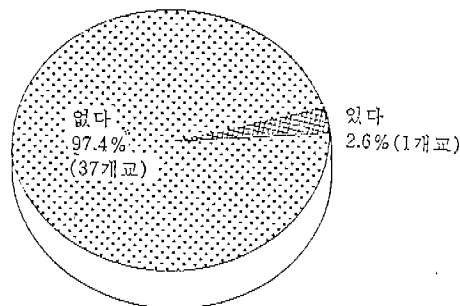
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1주일에 2시간씩 한반을 대상으로 주부상담원들이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학생들은 1년에 1회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서도 구체적인 상담이기 보다는 심성 수련과 같은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Ⅲ-1-6〕 주부상담원 1회 활동시간



주부상담원의 활동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몇 학교에서는 주부상담원 1인과 문제학생 1인이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긍정효과를 거두려고 하나 시간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듯하다. 또한 주부 상담원이 정학을 지도하기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아래 〈그림 Ⅲ-1-7〉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Ⅲ-1-7〕 주부상담원의 정학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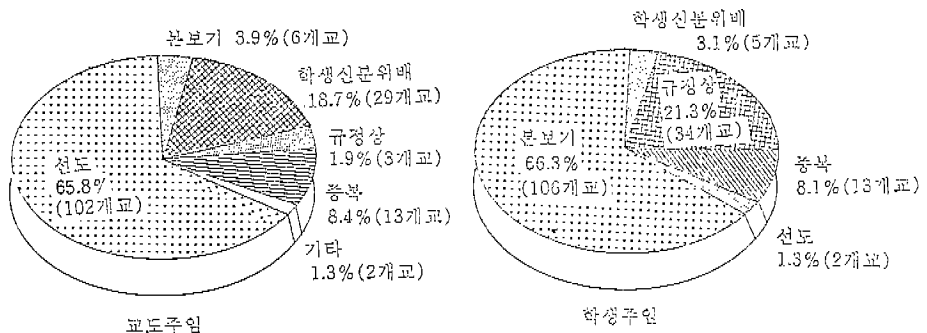


(3) 정학을 위한 프로그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부 상담원들이 정학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러면 문제학생을 담당하는 교도주임 선생님과 학생주임 선생님은 그들을 위해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먼저 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두 집단을 나누어 물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학기간 중 지도 그리고 정학이 끝난 후에 하는 추수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외에도 마지막으로 교외 지도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찬반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다.

먼저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이유를 알아 본 결과는 〈그림 Ⅲ-1-8〉과 같다. 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교도주임의 55.8%가 선도가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18.7%가 학생신분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반면에 학생주임의 경우는 징계의 이유를 66.3%가 본보기를 보여주게 위해서라고 하며 21.3%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차이는 문제학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일차적으로 징계하고 선도하는 선생님들간에 이러한 의견차이는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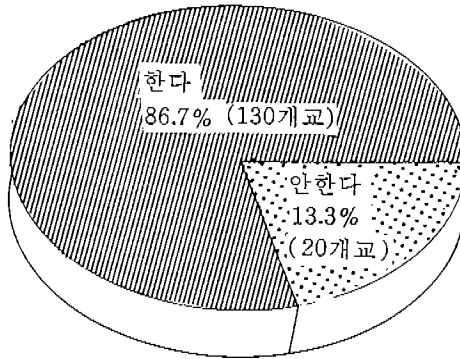
〔그림 Ⅲ-1-8〕 직무별 징계이유



〈그림 Ⅲ-1-9〉를 보면 정학기간 중 학생지도를 하는 학교는 전체의 86.7%(130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 학교는 1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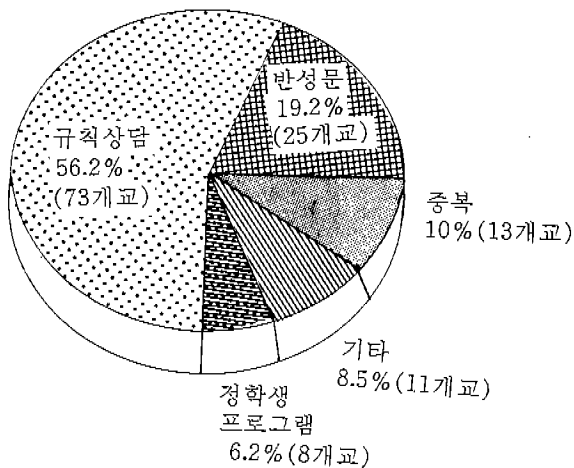
개교)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학기간 중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Ⅲ-1-9] 정학을 위한 상담활동 여부



〈그림 Ⅲ-1-10〉을 보면 징계기간 중 학교에서 하는 생활 지도는 규칙적 상담(56.2%), 반성문 쓰기(19.2%), 정학생용 프로그램운영(6.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지도는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 아주 형식적이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접해 본 정학생들 대부분의 일과는 아침에 일찍와서 교무실 등의 청소를 하면서 시작된다. 오전 수업시간은 학생부에서 간이 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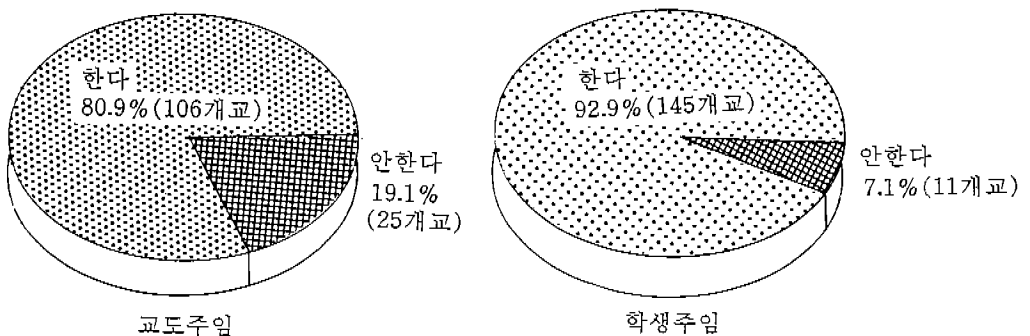
[그림 Ⅲ-1-10] 정학기간 중 상담내용



과 의자를 이용하여 공부를 하게 하지만 대부분 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점심 후의 오후 수업시간이나 상담교사가 수업이 될 경우를 이용하여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정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반성문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고, 담임, 교도부, 학생부, 교감선생님의 도장을 찍고, 집에 가서 확인 도장을 찍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정학을 위한 학교의 지도는 현실적인 여건상 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그림 Ⅲ-1-11〉에 따르면 정학 후에 추수지도를 한다고 응답한 교도주임은 전체의 80.9%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추수지도는 담임과 연계하여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주임의 경우는 92.9%가 사후에 추수지도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공식적인 추수지도 체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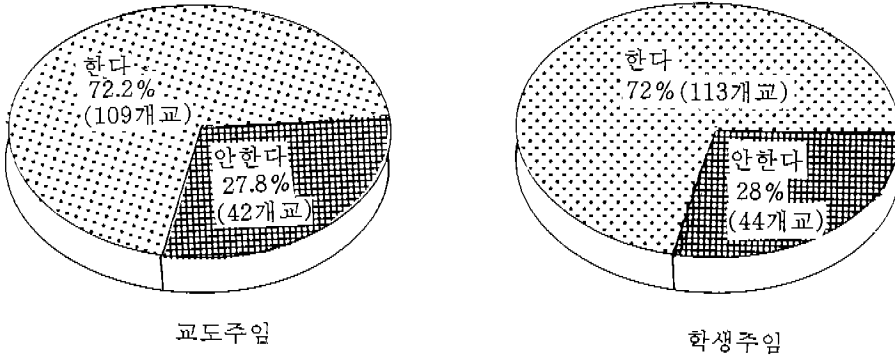
〔그림 Ⅲ-1-11〕 정학 기간 후 사후관리 여부



또한 정학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래 〈그림 Ⅲ-1-12〉에서와 같이 교도주임의 72.2%, 학생주임의 72.0%가 찬성한다고 대답하여 두 집단 모두 외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프로그램에의 참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까

밖은 위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여건상(대부분의 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학을 특별히 돌 볼 담당교사가 실제로 없다) 교내지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12] 외부프로그램 찬성여부



학교별로 외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학교별 외부프로그램 찬성 여부

(단위 : 명(%))

학생주임 찬성 여부	학 교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종합고
찬	성	64 (72.7)	29 (67.4)	15 (83.3)	5 (62.5)
반	대	24 (27.3)	14 (32.6)	3 (16.7)	3 (37.5)
계		88 (100.0)	43 (100.0)	18 (100.0)	8 (100.0)
$\chi^2 = 1.97$		$df = 8$			

2) 징계지도

(1) 징계규정

각급 학교들의 징계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징계)를 근거로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77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학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퇴학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각급 학교의 학칙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문제행동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2〉 문제행동 규정

	내 용	훈계	근신	유기	무기	퇴학
예절 A	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②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③ 언행이 불손한 학생	↔				
	④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 학생	↔				
	⑤ 선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준법 B	①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②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③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④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⑤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⑥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C	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② 고사중 부정을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③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④ 백지동맹을 주도했거나 선동한 학생			↔	↔	
	⑤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근태 D	①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	↔			
	②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③ 15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제가 불분명한 학생				↔	↔
	④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내 용	훈계	근신	유기	무기	퇴학
약물 E	①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②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폭력 F	①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②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③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퇴폐 행위 G	① 도박을 한 학생 ②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③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④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⑤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금품 H	①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②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	←	→	
집단 I	① 불법집회 또는 썰물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②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③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④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이상의 문제행동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법시행령 제 7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B-⑤, C-①, D-④)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교육법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학생과 학교에 흥미를 잃은 장기결석자간의 근본 동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징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결석자의 경우에 그들을 학교에서 내몰아 버릴 것이 아니라 학

교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교육해야한다. 둘째, 규정의 분류에 있어 유사한 문제행동을 세분화시켜 나열하고 있다. 징계규정을 세분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징계대상이 되는 문제행동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문제행동 중에 흡연,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한 규정의 경우는 처벌 보다는 전문적 선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본드, 환각제 등을 복용한 학생의 경우는 징계의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격리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징계종류

징계유형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나누어진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종류는 <표 Ⅲ-1-3>에서 보여지듯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이다. 이외에 훈계(혹은 설유, 견책), 학교봉사 및 퇴학보류 같은 징계는 학교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표 Ⅲ-1-3>

징 계 종 류

(단위 : 개교)

징 계 종 류	빈 도	비 율	누적비율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30	48.4	48.4
훈계,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30	48.4	96.8
훈계, 학교봉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1	1.6	98.4
훈계,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보류, 퇴학	1	1.6	100.0
총 계	62개교	100.0	

징계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면, 근신의 경우는 문제행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징계로 교실수업에는 참여하되 반성문을 쓰거나 학교봉사 등의 벌을 받는다. 다음 수준의 징계는 정학인데, 정학은 문제행동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학생이 근신하면서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이다. 정학의 경우에,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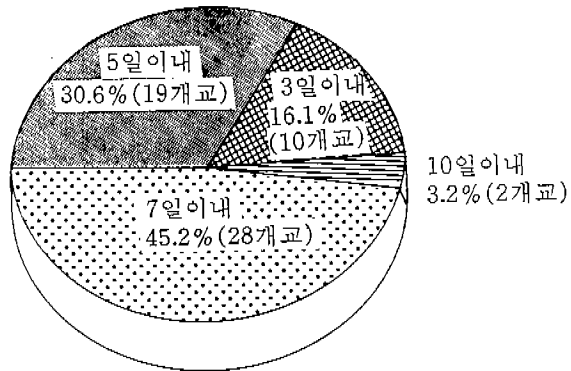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 있도록 하거나 등교는 하지만 수업에는 참석치 못하게 하는 별이다. 정학의 종류는 기간의 장단에 따라 유기정학, 무기정학으로 나누고 있다. 유기정학의 경우는 무기정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계기간이 짧다. 각급 학교는 정학을 반복해서 받는 학생에 대해 퇴학의 처분을 내리거나 자퇴(명령퇴학)를 권유하고 있다. 퇴학은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해당 항목을 지정하고 있으나 각 학교별로 융통성있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각급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 징계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징계종류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징계를 당하는 학생간에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간에 징계유형의 통일성이 시급하다. 둘째, 징계가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있어 선도 차원보다는 처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선도의 차원이라면 어떤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징계유형을 규정하기보다 훈계를 하고 다음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근신처분 등을 하여 학생이 문제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징계규정상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3) 징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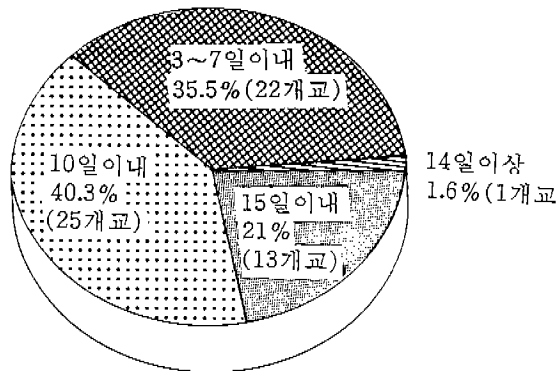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각급 학교의 징계(선도)규정에 제시된 징계기간을 살펴보았다. <그림 Ⅲ-1-13>에서 보면, 징계규정에 근신기간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7일이내로 나타났다. 이외에 근신기간의 편차를 살펴보면, 가장 짧은 근신기간은 3일 이내이고 가장 긴 근신기간은 10일 이내로 7일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3] 근신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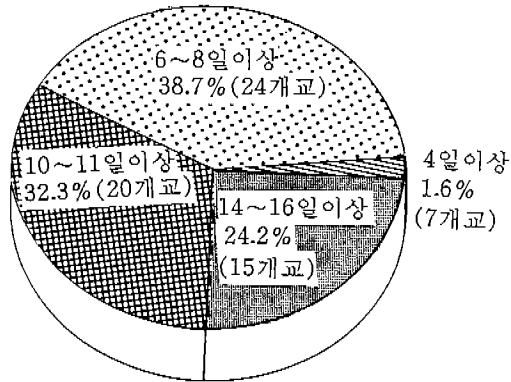
유기정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 중 41%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정확기간 편차를 보면, 3일 이내에서 크게는 15일 이내로 제시하고 있어 12일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1-14] 유기정확기간



무기정확기간이 <그림 Ⅲ-1-15>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최소 4일 이상에서 16일 이상으로 기간편차가 12일 이상 차이가 난다.

〔그림 Ⅲ-1-15〕 무기정학기간



이상의 각급 학교별 징계기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마다 동일한 징계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징계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징계기간 차이는 징계 대상자가 다시 평범한 학교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징계가 해당자의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짧을수록 좋을 것이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도 우선 학교별로 징계유형별 징계기간을 통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징계기간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앞서 그림들을 보면, 근신기간보다 정학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징계기간의 차이로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상은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오랜 반성기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더 생각해보면 이러한 규정이 대상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보다 다른 학생들과의 격리시키는 기간이기도 하며 선생님들의 관찰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즉 문제행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상담하여 선도한다면 이같이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징계기간의 차이를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외국의 사례

정학·중퇴·청소·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딪히는 보편적 문제이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을 살펴 보아야 겠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미국에서는 중퇴청소년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이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학교들의 예를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여러 학교에서 사용한 예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다음에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예시 하겠다.

(1) 성공적인 사례의 소개

〈사례 1〉 뉴욕 주 아일랜드 시, 미들칼리지 고등학교

고 1·2·3학년생 중, 중 3 때 20% 이상 결석한 학생과 학력 수준이 동급생보다 1년 정도 뒤쳐져있거나 생활고의 문제를 가진 가정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입학인사위원회는 고교 교장, 학교 상담원, 졸업생 대표들로 구성되며, 대상인원은 200명 뽑는데 600명 이상이 지원한다.

학교는 뉴욕 로파디아 시립대학의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고등학생도 대학 건물을 사용하고 대학 과목을 수강하며, 학점 수강도 장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중 삼분의 일을 인턴으로 일한다. 학생들의 욕구 충족과 책임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업시간표를 융통성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진도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총 교사수는 500명으로 한반 20명 이하의 학생들을 아주 가까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학생 1인당 비용은 뉴욕시에서 규모가 비슷한 정규학교와 유사하다. 그 비용은 1년에 5,400달러이다. 미들 칼리지고교 졸업생 수는 전체학생 85%로 이 중 3/4이 대학에 진학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고등학교가 대학의 캠퍼스 안에 위치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과 어른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곳에 다닐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사례 2〉 오레곤 주 포트랜드 시 , 포트랜드 투자계획

대상 학생은 12세에서 21세까지 위험에 처한 청소년,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 성공하기 어렵게된 청소년들로 이루어 진다. 입학결정은 정부, 교육계, 상업계, 산업계, 종교계, 지역사회 대표들이 모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프로그램 특색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과 위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이 계획의 목적은 청소년 실업감소, 중퇴율 감소, 학력 증가, 그리고 포트랜드시 청소년들의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전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트랜드 투자계획에는 13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있다.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 다차원적인 방식은 청소년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 넣는 문제가 다양하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단위 프로그램과 그들이 의도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다리역할 - 14세와 15세 청소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잘 처리하도록 돕는다.
- 직업의식과 관련된 교육 -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 졸업을 무난히 하도록 돕는다.
- 진로개척 - 성적이 나쁘고 집이 가난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 대학진학이나 취업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 금융 아카데미 - 금융계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가지도록 도와 준다.
- 동업자 - 소수민족 계통의 가난한 고 2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것을 돕기위해 기초 학력과 직업적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준다.
- 등록 -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고 2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취직 기회 제공, 및 개인 후원자를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인정해 주고 공부할 동기를 부여해주는 일을 한다.

- 여름방학 고용 - 14세와 15세의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에 읽기와 계산 실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10대들의 임신율 줄이고 중퇴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북포트랜드 학생봉사센터 - 사회봉사 기관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출석율과 성적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여름청소년 고용 종합계획-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졸업장을 받게 하거나 검정고시 합격을 돕고 장기적 고용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 10대 부모프로그램 - 이미 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돕고 졸업을 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 개척자 - 12살에서 17세까지 청소년 중 범죄, 비행, 유급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마음붙일 일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 밖에서 안으로 - 거리에서 배회하며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초보적 기술, 태도 순화,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 청소년 고용기관 - 16세에서 21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담에 관한 내용
 - 이 중에서 7단위 프로그램은 직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상담원에게 보내게 된다.
 - 포트랜드 투자계획에서 선택된 상담 전문가들은 학생들과 일대일로 만나 그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제일 적합한 단위 프로그램들과 연결하여 준다.
- 포트랜드 투자 계획은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합동하여 위협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계획의 모범이 되었다.

〈사례 3〉 학교 정학제도를 대신할 적극적인 대책(오레곤주 포트랜드시)

대상학생은 비행이나 교칙위반을 행한 고등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은 특색 학교 행정가와 교사들이 비행과 관련되어 정학 처분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정학은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는데 문제가 많은 학생들에게 한동안 공부를 못하게 하므로 결국 중퇴할 위험을 높인다. 이 프로그램은 비행과 관련된 문제를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화 : 비행이나 교칙위반한 학생들과 상담원이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있을 문제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타임아웃 : 수업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한 두 수업시간의 여유를 두어 감정상태를 잘 가라앉히게 한다.
- 정학기간 동안 학교에서 돌보기 : 정학기간 동안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습과정에 단절이 생기는 대신 정학 기간에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돌봐주게 한다.

또 이 프로그램은 학생도덕 교육을 통해 균형잡히고 전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내용의 4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 : 동료, 상담원, 학교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수업내용은 학생들 자신의 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자신을 파악하게 하며, 저학력 학생의 개인지도와 개인적인 상담과 충고를 한다.

② 학교 행정가와 교사 : 학교 행정가와 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타임아웃이나 학교에서의 정학 기간에 학생의 수업을 관찰한다. 다양한 문화에 관한 훈련과 자료를 갖추고, 다른 수업시간을 방문하도록 하여 다른 학생의 모습을 보므로써 스스로 수업모습을 익히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부모 : 학생 비행에 대해 부모들과 의논하고 학생들의 공부와 학교생

할 상태에 관해 규칙적으로 학교와 접촉하며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지역사회 : 특정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 강연과 지역 사회가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정학 및 퇴학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한다.

• 상담에 관한 내용

- 포트랜드시에서 정학 대안 제도를 채택한 모든 학교에서는 개인에게 집단 상담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프로그램 중개자가 이러한 상담을 알선한다. 모든 학교에서 비행 예방하기 위해 학생 상담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상담은 비행과 교칙위반에 관련된 태도를 변경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학교에서는 마약과 음주에 초점을 두고 상담하기도 한다. 정규 상담교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 실행에 이들 상담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 시행 뒤 학교에서 폭력이 줄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학을 주지 않고도 학생간의 다툼을 해결하게 되고, 학교 분위기도 좋게 만들었다고 보고되었다.

〈사례 4〉 “다시 학교로” 계획(오레곤주 포트랜드시)

이 프로그램의 대상학생은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과 장기 무단 결석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를 신청하는 세가지 방법은 20일 동안 조퇴가 8번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는데, 학교나 부모,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특색은 아래와 같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세가지 방법을 통한 신청을 검토해서 알맞는 대책을 준비한다. 학생의 개인적 욕구와 중퇴나 무단 결석의 원인을 더 조사하기 위해 전화로 학생과 통화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집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무실에서 학생과 면담하고, 어떤 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만약 학생이 학교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곧 참여할 수 없을 때는 임시교실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학생은 전에 하다가 중단한 공부를 계속해서 졸업에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한 규칙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학교는 학생이 가진 학력의 정도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임시교실에서 약 60일 정도 지낸 다음 이곳을 졸업하는 계획을 세우고, 학교 출석과 공부할 목표를 설정한다. 학생이 정규수업을 시작한 다음 「다시 학교로 계획」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학생의 출석을 관찰하고 공부할 때 개인 지도도 한다.

이 계획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이나 집단 상담에 응하게 된다. 상담교사는 이 계획을 실시한 후 학생이 다닐 학교 교사와 협동해서 전학을 쉽게 해주고 전학 후의 출석과 공부도 계속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효과는 다음과 같다.

1년 후 무단 결석이 10.6%나 줄었고 학기 초에 일찍 문제 학생을 찾아 이 계획에 참여시켜 효과를 더 높였다. 임시 교실은 학생들이 전학할 때 잃게 되는 학교 쪽에도 비용을 절약케 해준다.

〈사례 5〉 유진 교육구(미국 오레곤 주)

대상 학생은 전체 신입생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색은 조기 발견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다.

-이 두 교육구에서는 이 '구역'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학생 자신이나 학생의 부모가 꼭 기입해서 학교에 내도록 한다. 6가지 질문 중에 세 개 이상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게 될 경우 그 학생은 문제를 가진 학생으로 구분되고 그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 프로그램은 그 교육구 내의 전체 학교에서 채택되었다.

-스카보로 교육구에서는 이 조기 발견 계획을 세우고 한 학생이 공부하는데 강한 곳과 약한 곳을 찾아내어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최대한 증가시킨다. 신입생 부모들은 조기 발견 계획을 설명하는 테이프를 듣고 또 비디오로 보아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잘 이해하게 된다.

(2) 사례의 공통점

성공적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은 청소년 교육에 관계되는 학교 안팎의 모든 기관들과 사람들이 참여해서 협동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유지들, 사업체 지도자, 부모들, 교육자들, 그리고 언론계 대표들이 다 함께 참여한다. 사업체의 경영자들은 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된다는 것도 알아냈다. 특히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 등 청소년 고용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한 프로그램이 아래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계획에 융통성이 있다.
- 다른 기관과 잘 협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학생들의 특별한 관심과 문제(인종, 가난, 문화)에 대해 민감하고 성의있게 대응한다.
- 직업훈련을 포함한다.
- 세상살이의 기술(처세술)을 훈련시킨다.
-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일찌기 발견한다.
- 학생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한다.

2. 학교밖 지도 현황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학교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는 주로 징계에 치우쳐져 있다.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교내 선도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징계’ 그 자체가 선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징계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북돋는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문제행동을 근절하기 위해 쏠아야 하는 노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폭넓고 인내심 있게 경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학생의 주요한 선도방안은 정학 기간 중 반성문 작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징계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도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등 징계학생의 교내 지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다분히 형식적인 선도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학생주임 교사나 교도주임 교사의 말을 인용해 보면 교내지도의 형식적 측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내 힘도 모자르고, 학생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여건 때문에 징계학생의 지도가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손이 미치지 않는 아이들을 위탁교육할 만한 외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선생님은 교내의 부적절한 선도 여건 때문에 교외선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학생을 선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는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킬 만하다.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학교가 교육의 장이므로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학교에 학생들을 지도할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사회와 분담하면서 책임지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성립 가능하다. 이는 이상론과 현실론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학교 교

육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장기적 안목과 단기적 안목 속에서 상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학교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외의 선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선도를 보완할 장치가 우리 사회에 과연 존재하는 지, 우리나라의 선도 자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기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내 선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지원 제재로서 학교 밖의 중퇴생 대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형식적인 교내선도 이외에 이를 보완할 교외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징계학생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대안에 따라 선도자원을 확보와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교외선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징계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1) 정학생을 위한 지도

학교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지도할 교육적 사명을 가진 곳이다. 이런 까닭에 징계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라는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노력이 학교를 중심으로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징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치되는 여건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학교는 징계 이상의 지도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이 학교 밖에서 경주되고 있는가? 만약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본 연구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학교 밖의 각종 민간 상담 기관들과 경찰서

나 시청이나 도청 및 구청에 소속해 있는 상담실 등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 거리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기관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나 이들 중 정학생을 위한 지도를 행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서울 시내에서 현재 약 다섯 곳의 상담기관이 정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다섯 곳은 동부아동 상담소의 ‘늘 푸른교실’,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 그리고 목동청소년 회관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 청소년상담연구소의 집단 상담,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일정한 상담의 기법이 축적되어 있고, 재정여건이 다른 상담기관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섯개 상담 기관의 정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으로 동부아동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 푸른교실’을 살펴 보도록 하자.

동부아동 상담소는 시립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상담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곳이다. 직접 아이들과 상담을 하시던 분이 정학생들이 학교에서 구체적인 상담프로그램이 없어 방치되는 것을 아시고, 주위의 학교 교도주임의 협조를 얻어 처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어느 모임에서 발표한 후, 이에 공감하는 40여개의 학교에서 정학생이 생기면 이곳에 연락하여 1주일 내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 이름을 ‘늘 푸른 교실’이라고 한다.

*** 늘 푸른 교실의 프로그램 ***

이 교실의 수강 대상자는 중·고등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교도주임 교사가 의뢰한 학생들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적은 가정이나 학교, 교우 간의 긍정적인 관계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6~13일로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Ⅲ-2-1〉

늘푸른교실 교육일정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9:20														
10:00			FORUM 1 (흡연)		역 사 (한국전쟁사)		등 산 (도 봉 산)		FORUM 2 (성교육)		대 청 소			
			집 단 1		집 단 2				집 단 3		집 단 4			
11:00			심리검사1 (적성)		심리검사2 (환경)				심리검사3 (인성)		(부모 상담)			
12:00	점 심								시 간					
13:00	공 동								체 육					
14:00	자 유								시 간					
15:00	간 식								시 간					
15:20														
16:00	등록	부모 상담	방화관리		풍 물 (사물놀이)		대화의시간		목 공 1					
	입교식		인형만들기						목 공 2					
17:30	정 리 및 정 돈													

자료 : 동부아동상담소

과거에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으나, 학교들의 무성의로 상담을 의뢰하는 학생들이 없어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대한가족계획협의회의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92년 3월 처음으로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역시 학교 측의 무성의로 무산되

었다고 한다.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 상담가들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상담기관의 집단상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참여자 자신에게 무척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학생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상담기관의 수용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가 되겠으나, 학교 측의 무성의와 지도 방기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가 오죽 못났으면 제 학생들을 밖으로 돌려”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지나?” 이 두가지 말은 현재 학교와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학교 측이 상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또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만큼 상담기관이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뭘 믿고 애들을 맡기나?” “상담기관이라면 만사능통이야?”라는 식의 대응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 측에서는 교내의 정학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고 상담기관도 상담을 강력히 권유할 공신력도 갖고 있지 못해 정학생은 학교 밖 지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경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 각 개인이 수시로 부딪히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자신있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는 능동적인 태도는 청소년기에 그 기초를 닦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학교에서 이러한 자질을 교육하기에 부적절한 여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이러한 지도를 펼칠 수 없다면, 이러한 자질을 교육할 곳이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정학생을 위한 교외지도 방안은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야겠다.

2) 중퇴청소년을 위한 지도

우리나라를 학력사회라 할 만큼 학력은 사회적인 지위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력별로 사원을 모집하고, 학력에 따라 급여 및 승급의 체계가 엄격히 구별된다. 자신의 배우자를 만날 때도 학력은 배우자 선택의 주요 조건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집단은 아마도 중퇴청소년 집단일 것이다.

특히 중퇴청소년 집단은 매우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특색을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중퇴청소년은 불가피한 가정사정으로 중퇴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느날 갑자기 중퇴하지 않는다. 즉 중퇴의 징후가 다양하게 반복되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중퇴를 허락하는 식으로 중퇴를 결정한다. 학교는 중퇴청소년들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중퇴하는지, 그 계획을 실천할 만한 여건은 갖춰져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재정이 없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방출된 중퇴청소년에게 사회에서는 그들의 계획을 묻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는가? 사회로 방출된 중퇴청소년은 사회에서도 자신을 실현할 만한 기회를 얻기위한, 특히 중퇴 청소년을 위한 지도를 전담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그들이 부딪힌 문제를 명료화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 희망의 집 청소년 상담소 한 곳에서 전화상담 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취업알선까지 하고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중퇴청소년 지도는 아닐지라도 상담기관 종사자의 개인적 노력 여하에 따라 중퇴청소년에 대한 지도, 즉 진로상담이나 취업알선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욱 요구되는 지도는 비공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것이다. 중퇴청소년의 지도를 분명히 표방하고 체계적으로 중퇴청소년을 지도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중퇴청소년의 지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없다. 단지 비행을 저지른 중퇴청소년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제도 하에서 수강명령 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제 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학력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직업훈련원에 소수의 중퇴청소년이 자신의 포부에 따라 내일을 준비해 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퇴청소년 지도를 표방하는 지도기관이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 중퇴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는 국가지원 프로그램이나 보호 프로그램을 제한적이거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소개되는 동부아동상담소의 희망교실은 보호관찰제 하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적십자의 ‘사랑의 교실’ 등 몇군데 있으나 그 내용이 유사하여 한가지만 소개한다.

*** 동부아동상담소의 희망교실 ***

서울 가정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청소년들을 도와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로 돌아갔을 때 바람직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육기간은 5일간이고, 교육 내용으로는 전문강의, 심성개발, 진로지도, 레크리에이션, 시청각교육, 역할극 연습,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놀이, 부모 상담 및 교육, 등반, 대화의 시간으로 이뤄진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때 청소년 및 부모들과 상담을 통해 일시 보호치료를 한다.

동부아동상담소에서는 월 1~2회에 걸쳐 1일 10시간 씩 5일(월~금)간 희망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 및 집단 상담 방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희망교실의 운영 방침은 아래와 같다.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참가자 스스로 자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사고, 정서, 행동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최대한의 수용과 지지 속에서 자유로이 자기개발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집단교육

후 추수지도로 개별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방한다. 그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표 Ⅲ-2-2〉

희망교실 교육일정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9:00	등 교 및 교 육 준 비					
10:00	입 교 식	심리검사	등 산	시청각교육(3)	나눔(4)	
11:00	나눔 (1)	나눔 (2)		강 의 (2)	강 의 (3)	
12:00	중 식			시 간		
1:00	체 육	체 육		체 육	역할극 연습	
2:00	시청각교육(1)	테크리에이션		나눔 (3)	역할극 발표	
3:00	간식 및 휴식	간식 및 휴식			부 상 모 담	점 발 간 식 소 감 작
4:00	설문지 작성	강의 (1)		간식 및 휴식	수료식 준비	
5:00	만들기	시청각교육(2)	대회의 시간	지점토 색칠	수 료 식	
6:00	(지점토)			역할 연습	프로그램 평가	

자료 : 동부아동상담소

IV. 정학·중퇴청소년 대책

앞에서 정학·중퇴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 보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는 일이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학생청소년들이 정학이나 중퇴라는 중요한 사건을 겪게 되는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제 학생 청소년들이 정학이나 중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중퇴 예방과 중퇴 후 대책을 학교안 대책과 학교밖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학교 중퇴문제는 학교밖 요소 즉 가정문제, 노동시장, 친구관계, 사회보장기관, 사법제도 등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오랜기간 모여 있는 유일한 장소인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안 대책, 즉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학교안 대책

정학·중퇴청소년에 대한 학교안 대책이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어 적응하게 만드는 일이다. 집이 가난하든가,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든가, 성적이 나쁘든가, 건강이 좋지 않든가, 학교가 집에서 멀든가 등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도와서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여 정학생이나 중퇴생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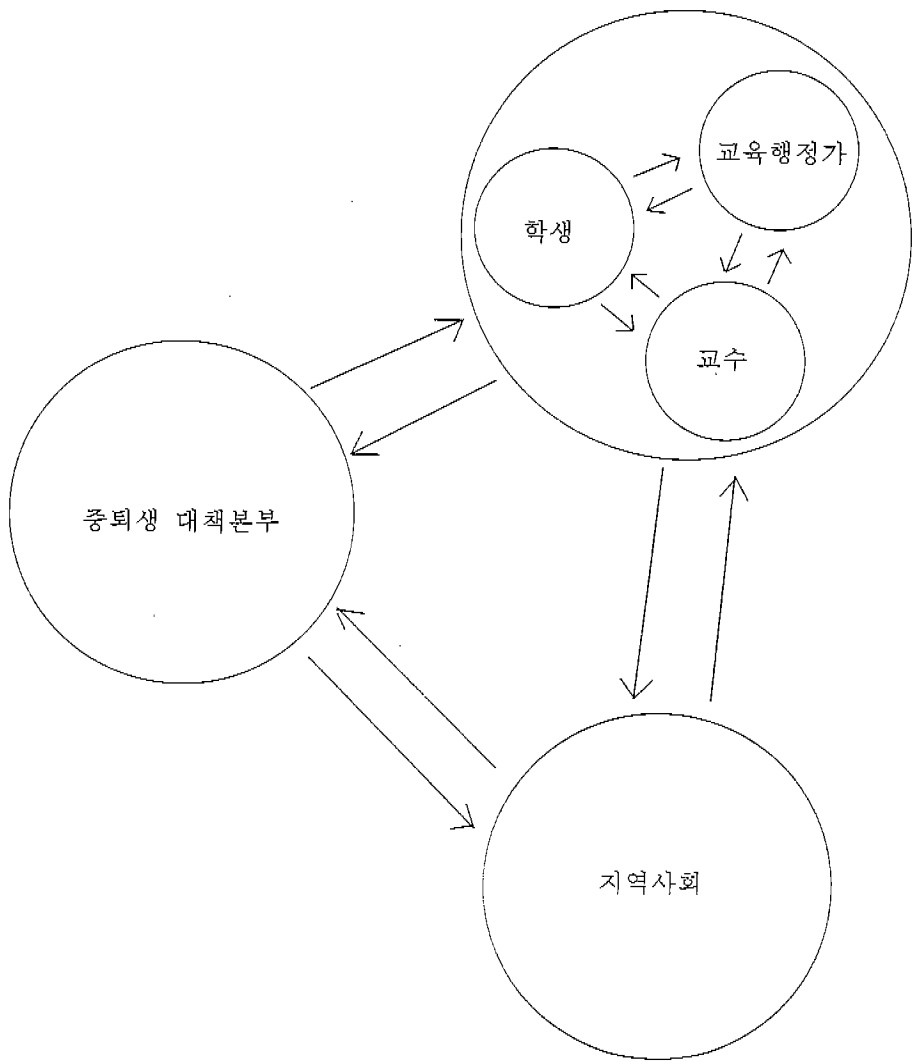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밖의 가정이나 사회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해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불평하는 일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없애고 이상적인 환경, 즉 통합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학교밖 여러기관들 즉 가정, 청소년단체, 지역사회, 기업체 등이 학교와 밀접히 연결되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 즉 교육부, 교육구청, 교장,

교사, 학생들이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문제있는 교육환경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환경과 통합된 교육환경을 의사소통 방법 측면에서 비교하면 아래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IV-1-1] 통합된 교육환경 : 진한 두 방향 화살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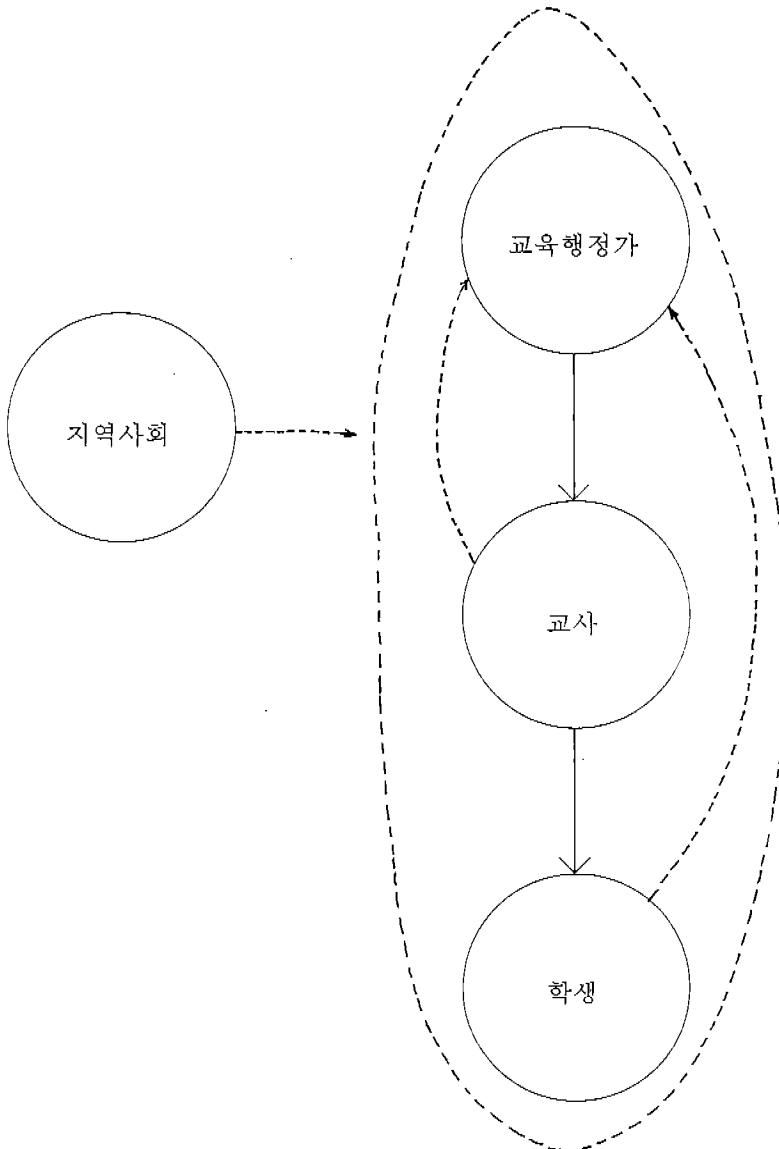
참여를 장려하고 진지한

상호의사 소통을 표시



[그림 IV-1-2] 현실 교육 환경 : 밑으로 향한 진한 화살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표시하고, 점선은 자주 있지 않고
장려되지 않는 의사소통을 표시



물론, 이런 환경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목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퇴생 예방을 위해 통합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중퇴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대책 본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부모, 지역사회 지도자, 기업체 지도자, 사회복지기관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교육활동가와 교사들이 참여하여 중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한데 모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데 드는 자원을 개발, 동원한다.

둘째, 학교중퇴와 연관된 문제의 성격과 범위도 정해야 한다. 학교 중퇴는 사회, 경제, 심리적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역 중퇴생의 특성을 파악한다. 학교 중퇴에 이르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학교 중퇴의 효과와 결과를 파악한다. 특히 학교환경과 직접 연관되는 주요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활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학교 중퇴율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비행율을 줄이고 출석율과 학력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넷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작전 프로그램을 짠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 관련된 연구 문헌을 읽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중퇴문제 해결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쓰는 학교와 접촉하고, 정부에 기술적인 도움을 청하고, 인생 경험에 근거한 각자의 상식을 활용한다. 각 학교 상황을 생각하면서 중퇴를 조장하는 주요 요소를 찾아내어 이 요소 모두에 대응하는 작전의 목록을 만든다.

통합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제도 개선과 문제학생 지도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1) 학교제도 개선

(1) 상담활동의 활성화

학교상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상담 자원봉사제를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① 행정적지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도주임을 더 많이 임용하고 상담실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와 43조는 상담실의 설치 의무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시행령에서 상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건을 중학교는 현행 18학급 이상에서 12학급 이상으로, 고등학교는 현행 18학급 이상에서 9학급 이상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상담실에는 꼭 교도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배치하고 교도교사 전담제를 실시해야 한다. 교도교사 자격을 따는데 현행 경력 순을 지양하고 전공과목을 참작하며 능력과 자질을 기준 삼아야겠고, 교도교사 보수를 개선하는 한편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연수를 받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업무부서에서는 상담전공 자격을 가진 장학사를 확보하고, 각 연구원이나 교육청의 상담업무담당 장학사, 교장, 교감이 회의를 할 때 상담업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상담실 운영비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② 상담 자원봉사제 활용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기타 지원자 중에서 사명감, 자질, 거주지역, 연령 등을 참작하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필요한 연수를 시킨 후에 각급 학교에 배정하여 활동케 한다. 신규 교육시 자원봉사자는 상담교사의 보조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기법을 익히는 등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자원봉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유대 강화를 위한 모임(상담사례 발표, 월례협의회)을 적극 지원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격관리 방안(포기자나 휴식자에 대한 관리 철저)연구를 추진한다. 그때 그때 야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성문제, 약물남용, 정신위생, 가출 등)에 대한 상담기술지와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각급 학교에서는 상담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

(유공자 표창, 경력인정, 신분증 발급 등)를 취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무여건을 만들어 준다. 적정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고 활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징계과정의 합리화

무기정확이나 퇴학이라는 학생처벌은 중퇴청소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교육에서 처벌이 가지는 순기능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위주의 교육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방황의 시기에 있다는 점에서 어떤 과오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므로 처벌위주의 교육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학생이 억울하고 부당한 벌을 받을 경우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정의감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현행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징계를 합리화시키는 일은 중퇴청소년 발생을 미리 막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① 사건접수의 자의성

학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경우는 대략 세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잘못이 없는 데도 벌을 받는 경우이며 둘째는, 남과 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만 벌을 받는 경우이며 셋째는,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과중한 벌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두번째의 경우이다. 실지로 이런 경우가 가장 빈번히 발생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학생들이 교사의 차별대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장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시험을 볼 때 어떤 감독선생님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자기선에서 처리하고 말지만 어떤 감독선생님은 학생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시킨다.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도 달라지겠지만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교사의 철학이나 교육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처리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형평성을 상실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의감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잘못을 해 놓고서도 반성하기는 커녕 재수가 없어서, 평소 선생님에게 잘못 보여서, 공부를 못해서 등, 별의 원인을 자기의 잘못에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처벌 규정과 처벌과정이 요구된다.

②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일반 형사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종종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범행을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경우에 그럴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용의자들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학생이라 하더라도 벌을 받을 것이 뻔한데 순순히 자백하지는 않으며 바로 이것이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범행의 용의자라 할지라도 유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이며 이런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의 발생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 심문을 통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학생 징계기준표의 비현실성

서울시내 K중학교의 규정집에는 무단가출한자, 학교시설 또는 기재를 고의로 파손한자는 무기정학이고, 무단결석 3회로 제적 예고 후 계속 무단결석한자는 퇴학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같은 기준은 무단가출, 무단결석, 학교시설의 파손 등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너무 가혹해서 비현실적이다.

또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징계기준표가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제행동의 경중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입각해 징계를 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④ 학생진술권의 부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임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받은 학생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선도계의 사건개요 설명과 담임선생님의 참고 발언에 의해서 사건을 판단한다. 물론 이런 방법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로만 듣던 때하고 사건 당사자를 직접 접했을 때의 상황 판단은 많은 차이가 있다. 징계위원회에 학생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억울한 판단을 줄일 수 있고, 비록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학생피의자에게는 최선을 다했다는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진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⑤ 소원제도의 불비

선도위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벌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학생 징계제도에는 이러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원위원회를 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⑥ 징계 사후지도의 미흡

학교에서의 징계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선도예 목적이 있으므로 사후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의 실정은 사후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유기정확 이상을 받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등교가 허락되지 않으나, 현실상 등교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징계 받은 학생이 마땅히 있을 곳이 없다. 학교에 따라 교무실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 경우 교사들의 사담이 그대로 그 학생에게 노출되며, 때로는 공개되어서는 안될 성적표 등의 자료가 유출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또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개 학생주임선생님이나 교도주임선생님, 선도계나 교내지도계 선생님이 사후지도를 맡고 있으나 정규수업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더우기 사후지도의 내용이 반성문 쓰거나 청소 등이 대부분이어서 사후지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소홀함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교사의 상담역할 강화

그동안 학교에서는 지적인 교육에 치중하느라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많은 때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아의식이 강해지는 때인데, 대부분의 중학생은 자신감이 없거나 소외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무시할 때 소외감을 느끼는데, 학생청소년은 우선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학교에 와서는 선생이나 동료학생들에게서 무시당하게 되면 소외감은 강화되어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중퇴예방 대책에서는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른들과 연대감을 느낄 때라고 하는데, 학생은 선생과 연대감을 가질 때에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또 한편 선생님도 학생에 대해서 연대감을 가져야 하는데, 한반에 학생이 너무 많거나 수업시간표가 너무 빡빡하게 짜여지는 등 작업 환경이 나빠서 학교에 대한 귀속감이 약할 때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중퇴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즉 학교교사가 학생의 자부심을 북돋우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은 배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그 학생의 생활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생의 자부심을 북돋우는 교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학생의 자부심을 키워주기에 적합한 선생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의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늘 남을 도우려는 태도를 가져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교실에서도 교과과정을 융통성있게 다루면서 학생들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확고한 원칙하에 공정한 태도를 취

한다. 또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교실에서는 분명하고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학생들이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경험을 쌓게한다.

선생님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요한데 상담전문가들이 선생님들에게 상담기술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

- ① 교실 운영과 학생의 훈육방식
- ② 문제학생 즉 중퇴 가능성이 많은 학생을 위한 특수 수업방식
- ③ 학생이 자신을 파악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게 하는 집단상담기술
- ④ 문제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이 기술을 적용할 때, 문제학생 개개인의 성격이나 환경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음의 순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담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상담선생님과 문제학생 사이에 활동계획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가지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계획을 실천하고, 이어 목표를 향해 얼마나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한다.

학생을 상대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작업환경도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할 것이다. 우선,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교실운영을 보장받고, 학과 공부와 직업공부를 두선생님이 한 팀이 되어서 가르친다. 다음에, 정기적인 수업시간 대신에 개인지도 방식으로 공부와 상담을 함께 한다. 또 한반 학생을 오랫동안 같은 반에 속하게 하고, 동시에 한 선생님이 같은 반을 오래 맡게 한다. 그리고 동료 학생 간의 상담제도를 도입하여 학생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에게 실생활 경험을 쌓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결된 교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학과 교사가 상담교사 역할을 같이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규칙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새

로운 욕구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고, 선생님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강한 동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퇴하는 학생을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학생 지도

(1) 무단 결석생 관찰지도

학생이 자주 결석하는 것은 학교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초기의 징표이고, 잦은 결석과 중퇴율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주 결석하는 학생을 잘 지도해서 다시 학교에 마음 붙이게 하는 일은 정확이나 중퇴 예방을 위해 중요한 대책이다.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출석 모니터링, 결석자 찾아나서기, 출석을 좋은자에게 상주기 등이 있다.

① 출석 모니터링

지정된 선생이나 부모 자원봉사자가 매일 보고하는 반별, 학년별 결석자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반별, 학년별, 학교전체의 결석을 도표를 만든다. 결석자 중에서 결석계를 낸 사람과 무단결석자를 구분하고, 일정한 날짜 이상을 무단 결석한 학생명단을 작성한다. 이 명단에 들어있는 학생의 부모와 접촉하여 결석한 이유를 알아내고, 학교나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결석이 잦은 학생을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장기 무단결석으로 정확이나 퇴학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된다.

② 결석생 찾아 나서기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학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친구, 부모,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생이 다시 학교에 잘 다니도록 격려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출석율이 좋은 학생이 출석율이 나쁜 학생과 짝이 되어 문제를 가진 친구를 돕게 할 수

있다. 상담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무단 결석한 학생의 집을 방문해서 학생의 부모와 그 학생이 가진 문제를 풀어주도록 노력할 수도 있다. 무단 결석자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결석이유를 알아내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등 활동일지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의 봉사기관(병원, 경찰서, 상담소 등)에 알선할 수도 있겠다. 또 잦은 결석자의 부모를 상대로 워크숍을 열어, 잦은 결석의 교육적 결과를 일깨우고 학생을 학교로 이끌어 오는 기술을 가르친다. 학생이 학교에 취미를 잃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징표와 거기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방법 등도 가르칠 수 있다.

③ 출석을 좋은 학생에게 상주기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데는 별보다 포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일반 학생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지도자를 두되, 지도자를 매주 바꾼다. 이 지도자는 결석자집에 전화해서 결석 이유를 묻고 친구를 학교로 이끌어 오도록 노력한다. 이 집단끼리 출석을 경쟁을 시켜서 성적이 좋은 집단에게 매 학기말에 상을 주기로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학생 개인에게 출석율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개근한 자에게 10점을, 하루 결석자에게 9점, 9일 결석한 학생은 1점을 준다. 그리고 매 학기말에 개근한 자는 추천권을 받고 추천에서 뽑힌 사람은 라디오를 상으로 줄 수도 있겠다. 이 방법은 결석한 자에게 정학이나 다른 벌을 주어 태도를 바꾸게 하는게 아니라, 포상을 내걸고 결석자를 학교로 이끄는 방법이다.

(2) 정학생 특별교육

이 글에서 정학생은 단지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뿐아니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다음의 학생을 다 포함한다.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 심한 교칙위반으로 퇴학처분을 받을 때까지 대기 중인 학생, 학교밖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에 복귀해서 대기 중인 학생.

① 특별교육의 필요

정학생 특별교육은 이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지침에 근거한 교과과정외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교육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선도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수는 일정하지 않아서 교육과정이 계획적이고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학교행정에서 높은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도를 요하는 학생을 한데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일반 교육과정이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삼는데 비해 선도교육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의 함양과 의지력 향상이 주목표가 된다. 교육방식도 강의식 보다는 상담과 자기성찰이 교육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②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

정학생 등 문제학생을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가. 교과 학습 기회의 박탈과 개근 성적 누락 등의 불이익이 있다.

학생들은 처벌 기간에 수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결석(사고결)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에 따라 개근상이 박탈되고 내신 성적에 불이익이 있다.

나. 학생의 선도보다 학교측의 응징이 활동의 핵심이 된다.

학생 교칙위반의 심층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내 질서의 위반 자체에 대한 응징이 주목적이 된다. 학생 처벌이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다. 소위 ‘혼 내주기’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격리와 체벌, 모욕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반성문은 내면의 성찰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학교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처벌은 조건반사 이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처벌기간이 끝나면 목표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지도활동은 중단된다.

라. 교육활동은 학생부 단독으로 이루어진다.

상담실(교도부)의 지원이 없거나 지원의 정도가 미미하고, 학교의 상급기관 혹은 지역사회 지원이 거의 없다.

③ 특별 교육과정 운영원칙

정학생 특별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가. 학습 결손 및 개근성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학생들은 수업활동에서 격리되지 않으며 처벌 기간을 사고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나. 하나의 부과된 학습 형태로 진행된다.

선도 교육은 방과 후, 혹은 휴일, 방학 중에 이루어진다. 처벌 내용은 처벌의 종류와 기간을 명시하던 것을, 처벌의 종류와 선도 교육 이수 시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꾼다(예-근신 :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선도교육의 이수는 처벌이 이루어진 시기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기 동안 편리한 시기에 이루어진다.

다. 일목요연한 목표-과정-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수행된다.

위반의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다르고, 각 교육과정에는 전문화된 교사가 투입된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문서화 된다.

라. 학교의 차 상급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선도담당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용 지도서와 교육보조 자료를 제공한다. 정학생 특별교육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인사(예-종교 인사, 교정 인사)의 초빙 및 지역 사회 시설(예-교도소, 경찰서, 법원)의 이용 등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마.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강화, 판단력 배양을 위한 실제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왜 법이 준수되어야 하는지, 잘못된 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토론할 기회를 주고,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

④ 특별 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 체제

정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특별교육 과정은 각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가. 각 학교의 독자적 교육과정

한학기에 총 20시간을 넘지 않고, 방과 후에 실시한다. 교도부(상담실)가 주관하되, 사안이 있으면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 학기 내에 필요한 강좌를 다 이수하게 된다. 대상 학생들을 모아서 실시하고 월 2회 정도 정기 혹은 특별 선도 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 내용에는 반드시 금연교육, 성교육, 개인별 상담, 교육의 자기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교육청의 교육과정

교칙 위반의 정도가 높아서 선도교육 이수 단위가 20시간을 초과한 학생에게 그 초과한 시간만큼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방학중에 실시하며, 한 학기에 총 20시간을 교육한다. 교사는 주로 지역 사회 인사(종교계, 교정계, 법조계, 의사, 기타 전문화된 교사)중에서 충원한다.

2. 학교밖 대책

현재 학교중퇴생을 위한 학교밖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학교에서 나온 이후 그들의 삶을 지원하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다만, 중퇴생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에 가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 정도이다. 중퇴생에 대한 학교밖 대책 또는 사후 대책의 시작은 중퇴생을 발생시킨 학교가 책임지고 나서서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학교 밖 대책은 사실은 학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이러한 기본 생각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중퇴생 지원 대책을 알아 보려한다.

먼저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직업대책, 문제가정돌기, 유흥업소 청소년 취업방지도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연계되어 이루어 질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사회적 지원체제 확립

현재 학교 중퇴생의 진로에 대해서는 가정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람 기르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이런 지원이 안되는 현실이므로 현재의 사회적 여건을 이용해서 사회적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회관이나 청소년 상담기관이 산재해 있지만,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특색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도 별로 몇군데를 선정하여 중퇴생 전용 상담기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면, 각 청소년 관련 기관에 중퇴생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담기관이 형성되면, 이를 위한 상담요원을 재교육하여 그 지역의 중퇴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준비로 중퇴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그들을 진단 분류하고, 부모와 협의한 후 소견서와 함께 해당기관에 지도의뢰하도록 의무화한다. 진단분류는 본인의 희망,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취업, 직업훈련원, 행동교정, 정신치료, 요양 등 학생의 필요에 따라 상세히 구분한다.

중퇴생의 사후지도를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고 필요시엔 유관기관(동사무소, 경찰서, 직업훈련기관, 청소년단체, 정신병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는 각 기관에 지도를 위임한 중퇴생들의 지도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각 기관과 의무적으로 협력하게 한다. 학교로부터 중퇴생의 지도와 보호관리를 요구받은 해당기관은 이들을 인계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관련기관은 매년 이러한 중퇴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와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청소년체육부는 교육부 및 해당부처와 의논하여 중퇴생의 사후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해당기관 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일정 지역(도단위)에서 이러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년이상 시범적용을 해 본 후 그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일반화한다. 학교를 떠난 모든 청소년은 이와같이 일정기간 집단에 소속되어 지도와 보호를 받음으로써, 소속없이 방황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앞날을 이룰 사후대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2)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 지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원래 학교로 되돌아 가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사회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후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직업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활용 가능한 것은 직업학교와 직업훈련원인데, 직업훈련원의 경우는 사실상 중퇴생을 위한 지원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직업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지원 방법은 직업훈련원에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직업학교의 현황

직업학교는 1990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로 전국에 7개교가 설립되었다.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기술인력의 보급과 인문계 고졸 재수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직업반 학생들에게 1년간 위탁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다. 직업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교 당 500명 씩 선발하여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에는 각 소속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보통과목을 배우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업학교에서 일주일에 30시간(전공이론 20%, 전공실습 80%)수업한다.

교육부 산하 위탁 직업훈련원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교육부 예산으로 독립운영하는 직업학교(부산 직업학교, 대전 산업학교), 교육부 예산을 받지만 정규학교에 병설된 직업학교(광주 직업학교, 대구 산업학교), 교

육부 소속학생을 노동부 소속 훈련원에 위탁하는 직업훈련원(충청 직업 훈련원, 광주 직업훈련원 등)이다.

(2) 직업학교의 문제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학교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중요한 것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학교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2. 직업학교 교육내용에 맞는 교과서가 없다.
3. 교육부를 상대로 각 지역학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낼만한 기구체가 없다.
4. 각급 학교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다.

(나머지는 지역의 직업훈련원에서 수용하고, 직업훈련원에도 다니지 못하는 경우는 사설학에서 수강하고 있어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

5. 노동부의 기준에 따를 수도 없고,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 운영할 수도 없다(기능사 2급 자격 무시함 점정을 위한 수업시수가 맞지 않음: 1년 에다 이수할 수 없음)
6. 단기위탁교육기관이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능 전수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산업역군으로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직업윤리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7. 학생들은 직업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소속학교의 직업반 학생이므로 생활지도가 어렵다.

(3) 직업학교의 실태

직업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인문계 학교에서 그리 크게 환영받는 아이들은 아니다.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왔다기보다 학교 측의 강권으로 밀려 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들 중에는 주먹페나 쓰는 말썽꾸러기도 있다.

선생님들은 “저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나”하는 탄식을 절로 하셨다고 한다. 학교에서 성적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3~4월은 그야말로 학생과 별이는 전쟁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사회에서 해내

어야할 역할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직업교육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심히 기술 교육에 응하는데, 특히 손재주가 뛰어난 학생들은 제물 만난 고기처럼 활기차게 움직이고, 기술 습득에 넘치는 열의를 보인다고 한다. 특히 기술교육의 특성상 선생님과 일대일로 대면하고, 피부를 맞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낙오되지 않고 본래의 목표대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직업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본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무척 순수하다고 이야기 한다. 선생님들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인문계학교 수업에서 낙오되었던 학생들이 직접 교사와 살을 맞대면서 일일히 실습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도가 아니겠는가?

직업학교는 인문계고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들로 구성하는 고 3 직업반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는 곳이다. 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 습득한 기술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맞본 낙오자의 오명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배우는 것은 기술 그 이상의 것으로 자신이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일생의 교훈으로 삼을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우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없어 좌절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진로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앞날을 모색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청소년에게 새로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청소년기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보부족, 주위의 강권, 자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뤄진 진로선택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금만 더 성숙한 사회라면, 시행착오를 용납할 수 없다고 버티기 보다,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별 손해 없

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성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공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에서 지적한 직업학교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직업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정부와 사회가 지원한다면 중퇴생 예방과 청소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퇴생을 위한 개방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재의 직업학교는 인문계 고3을 대상으로 하여, 중퇴의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중퇴를 경험한 학생들에겐 폐쇄적인 공간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사회적 지원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에 직업준비를 요하는 중퇴생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직업학교가 적절하다고 하겠다.

취업 준비를 원하는 중퇴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기간동안 교육을 시킨후에, 그 학생의 기존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 것이 중퇴로 인한 파생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직업학교는 사회지원 상담원과 기존학교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그 학생이 직업학교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취업 알선을 해야 하며, 이때도 취업된 곳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학생이 취업 후 직장이 자신의 희망과 맞지 않을 경우 상담원에선 재상담을 실시하고, 직업학교에선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가정, 기존학교, 사회지원센터, 직업학교, 직장이 연결되어 중퇴생을 보호·지원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문제가정 돕기

중퇴의 원인을 개인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가정이다.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여 자신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경제적인 집안 사정이 나빠져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 보려고 한다.

“문제청소년”은 “문제가정”에서 생긴다는 말처럼, 부모자신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해야한다. 요즘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일을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상담하는 일이 상당히 적어졌고(15%), 중퇴생의 다수가 형제 자매사이나 부모사이의 갈등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라고(63%) 불평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가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서적도 많이 나와 있어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학교를 중퇴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므로 빈민 가정 특히 결손가정이나 소년 소녀 가정이 있는 점에 대한 가정복지사업을 강화해야겠다. 경제적 빈부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므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학자금 면제로는 완전히 구제받기가 어려우므로 그 대상과 비용이 좀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4) 유흥업소 청소년 취업 방지

본 연구팀이 실시한 중퇴생 면접조사에서 중퇴생들은 학력과 기술수준이 낮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졌다. 요즘 근로자들이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를 싫어하는 현상과 사회일반이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많이 생기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기존의 노동력으로는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김준호의 「중퇴생 범죄화 과정에 대한 연구」(1992)에서도 다른 직장보다는 유흥업소에 취직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퇴생을 위한 학교밖 대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1)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 같다.

① 학력위주의 사회와 그에 따른 공부에 대한 중압감

금년도 전기대학 지원율을 보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줄어 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학력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으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본질적으로 「저능한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더 나아가 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를 비롯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4년제 대학에 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력이 낮아서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당장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유흥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직장으로 보이고, 이 속에서 폭력이나 비행 경험을 경험하면, 앞으로 비행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 또한 이러한 유흥업소의 취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앞날의 건강한 사회적 삶을 사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출하여 여자들은 술집 접대부, 남자들은 웨이터 등이 되어 그 사회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인생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② 건전한 놀이문화의 육성과 퇴폐향락의 풍조의 근절

70~80년대의 경제성장 및 정치적 혼란은 물질만능 풍조와 퇴폐향락적인 문화를 배태하였다. 쉽고 부정하게 번 돈은 쉽고 부정하게 쓰여지기 마련이다. 땅투기, 증권투기, 더 나아가 정경유착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퇴폐향락문화는 극에 달하였다. 학교주변에도 버섯이 유흥업소가 들어서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업소들이 산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정 및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우리사회에는 오히려 자극하고 있는 요소들이 판을 치고 있다. 어른들이 만든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작태가 근절되지 않고는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대해 느끼는 유혹을 단절할 수는 없겠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퇴폐향락이 자녀들의 비행을 야기시킨다”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한국의 아버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또한 청소년체육부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및 수련활동이 하루 빨리 활성화되어야 한다. 나쁜 행동을 처벌하여 선도하기보다는 좋은 행동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2) 위와 같은 구조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비록 미봉적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청소년을 취업시키는 유흥업소에 대해 좀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에 자기의 자녀와 같은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어른들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유흥업소에 취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청소년들에게 홍보한다. 가출을 한 뒤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학생들이 기록을 보면, 유흥업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순한 호기심을 혹은 생계를 위해 취업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알고는 후회를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TV등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유흥업소의 실체를 알리는 동시에 소책자 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유흥업소의 실상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유흥업소에 취업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친구의 꼬임이나 취업광고를 보고 속은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은 가정에서도 버린 자식으로 취급되

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도 불량학생으로 취급되어 사회적인 교아로 전락한다. 이들에 대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선도할 기관이 없으면 이들은 결국에는 유흥업소로 다시 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선도 단체들을 인적·물적자원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도라기 보다는 단속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가출아동 쉼터」등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체육청소년부에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공식적인 기관이 하루 바빠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글문헌

- 강원근(1979), “학생의 상벌 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81~1991), 교육통계연보.
- 김남덕(1988),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교회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S소년원 사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우중(1991), 학부모와 청소년—건강한 다음 세대의 이해와 지도—, 구미출판부.
- 김정명 외(1989), 요지원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호균(1983), “소년범죄의 예방책에 관한 연구—민간인 자발 참여방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동석 외(1991), 가출청소년연구—청소년과 부모의 대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Roberts A.R., Runaways and Non-Runaways).
- 대검찰청(1981~1990), 범죄분석.
- 박성주(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분자(1985), “비행청소년의 사회교육 요구분석—소년원생의 교육내용요구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1985), 제 3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
- _____ (1990), 청소년범죄연구.
- 서울보호관찰원(1992), 보호관찰현황.
-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1991), 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제2호.
-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1987), 사랑의 교실을 통해서 본 청소년비행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2), 1991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활동보고서.
- _____ (1991), 학생폭력,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1990), 학생 생활 적응 지도 방안-장기 결석 학생을 중심으로-.
- 송광성 외(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심영희(1987), 비판범죄론-일탈과 통제의 분석, 범문사.
- 안재정(1988), 비행의 전조와 예방, 청소년선도총서 4, 복지문화사.
- _____, 비행청소년의 선도, 청소년선도총서 5, 복지문화사.
- 윤성은(1986), “사회계층이 청소년비행 및 처벌에 미치는 영향-통제의 선택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덕, 정원식(1984),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임제순(1988), “청소년선도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희 외(역)(1986), 일탈의 사회학, 경문사(Liska, A.E., Perspective on Deviance).
- 장석민 외(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청소년육성위원회(1989), 청소년백서.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백서.
- _____(1991), 체육청소년통계연보.
- 최윤진 외(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I)-청소년 문제 행동에 관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의식조사-, 한국청소년연구원.
- 표감수(1992), “학교중퇴자의 중퇴원인과 대책”, 미발표 논문.
- 한국청소년연구소(1985), 청소년 관계 자료집, 제2집.
- 한국청소년학회(1991), 1991년도 청소년학대회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형사정책연구, 제2권 3호.
- 한준상(1989),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연세대학교출판부.
- 홍준기(1976), “고등학교학생의 일탈행위 분석-학생처벌을 중심으로-”.

외국어문헌

- 日本青少年研究所(平成 2年), 特輯 高校中退の 日米比較, ニュースレアコワー.
- Bhaerman, R. D. (1988), *The School's Choice*,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vi.
- Cohen, S.(1985), *Vision of Social Control*, Polity Press : Cambridge.
- Cox, S. M. and J. J. Conard, *Juvenile Justice : A Guide to Practice Theory*(3rd ed.) : Indiana.
- Fadds, C. R. (1988), *The Helping Process Overview Guidebook*,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vi.
- Fennimore, T. F.(1988), *A Guide For Dropout Prevention*,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vi.
- Lankard. B. A. (1988), *The Student's Choice*,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vi.
- Sandoval, G. T. (1988), *The Conpendium of what works for Vocational Educators in Dropout Preventions*, The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The Ohio State Uvi.
- Shoemaker, D. J. (1984), *Theories of Delinquency : An Examination of Explanations of Delinquent Behavior*, Oxford Univ. press.

부 록

1. 면접질문지
2. 면접사례
 - ① 중퇴청소년(사례 1~38)
 - ② 정학생(사례 39~42)
 - ③ 위탁교육생(사례 43~45)
3. 정학생실태조사 설문지
4. 학생지도현황 설문지

중퇴청소년 면접을 위한 질문지

가. <현재상황>

- 1)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이곳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 어떻게 이곳 사정을 알게 되었는지? (친구, 기관, 광고 등)
 - 이곳에 오겠다고 마음먹은 동기는?
 -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전공, 목표 등)
- 2) 이곳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어떤 점에서) 이곳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음식, 의복, 잠자리, 선생님, 학생, 시설 등)
- 3)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학생, 미진학학생, 중퇴생)
 - 만나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4) 현재 제일 큰 고민이나 문제점은?
 - 취업, 진학, 이성교제, 가정의 빈곤, 친구, 성격, 건강 등
 -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일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이라도 학교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 다시 진학한다면 어떤 학교에 가시겠습니까? (일반계, 실업계, 직업훈련원, 기타)
- 6) 주위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부모와 형제에 바라는 것
 - 학교와 선생님께 바라는 것
 -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것
- 7)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나. <앞으로의 생활>

- 1) 장래의 계획, 희망이나 포부 : 10년 후 자신의 모습은?
- 2) 자신의 포부를 펼쳐가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 자신의 포부를 펼쳐가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자신의 포부를 펼쳐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 자신의 포부를 펼쳐가는데 주변에서 도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중퇴 후 지나온 생활>

- 1) 학교를 그만둔 후의 생활은?
 - 취직, 가사돕기, 노는 아이들과 함께 가출 등
 - 그때 구체적으로 한 일은?
 - 그때 제일 좋았다고 기억되는 것은?
 - 그때 제일 괴로웠던 것은?
 - 그때 기분은?
- 2) 학교를 다닐 때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 3) 학교를 그만둔 후 부딪힌 가장 큰 문제는?
- 4) 학교를 그만둔 후 주위에 요구하고 싶었던 점은? (가족, 학교, 사회)
- 5)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이나 그만둔 직후 부모님의 반응은?
 -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 6) 학교를 그만둔 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친구, 가족, 친족, 선생님)
- 7) 학교 중퇴후, 나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왜 그럴까? 자기하고는 어딘가 제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약한 의지, 오래된 나쁜습관, 나쁜성격, 나쁜 친구들, 나쁜 가정환경)

라. <중퇴 당시 생활>

1) 학교생활은?

- 성적은?
- 몹시 미운 선생님이 있었는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지?
- 학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2) 학교를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난, 성적이 나빠서, 교칙위반, 건강이 나빠서, 공부가 싫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취직을 하려고, 이성교제 때문에, 집안일 돕기 위해

3) 중퇴하기 전에 교칙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처벌의 종류 :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 몇 번이나?

4) 중퇴하기 전 누군가와 상담을 해보고 싶었나요? 누구인가요? 상담해 보았나요?

5) 중퇴하기 전에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었나요?

6) 정학이나 중퇴와 관련해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 좋은 생각을 했을 경우 언제 그 생각이 허물어지는지?

7)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중퇴가 결정되었는지?

8) 중퇴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공정한 절차? 너무 가혹한 처벌?)

9) 친구와 교제

- 친한 친구는 어떤 사람들?(교내, 교외 모두)
- 어떻게 친해졌는가?
- 친구들과 주로 무엇을 했는지?
- 주위의 사람들이 이들을 보는 눈은? (문제가 있다, 없다)
- 이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 친한 친구들 말고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지, 그 이유는?

— 이성교제는?

10) 청소년 선도기관(경찰서, 소년감별소, 소년원 등)에서 조사나 보호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 그 이유는?

— 그 후의 생각은?(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반발심만 생겼다. 별 느낌이 없었다.)

11) 어떻게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노는)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12)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마. <개인과 가정>

1) 연령(만), 성별, 이름

2) 최종학교 및 학년

3) 출생지

4) 가족관계

— 부모의 생존여부(친부와 친모, 친부만, 친모만, 양부만, 양모만, 고아)

— 부모의 직업

— 부모의 교육정도

— 부모님 성격

— 부모 사이가 좋은지?

— 부모와 본인 사이는?

— 형제 자매 수와 관계는?

— 주거환경(주거지역과 방의 수)

— 경제수준(상, 중상, 중, 중하, 하 등)

6) 취미

7) 특기

바. <면접자의 소견>

- 1) 피면접자의 전체적 인상은?
- 2) 피면접자의 현재 심리·환경 상태는?
- 3) 피면접자에게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 4) 피면접자의 장래에 대한 예상은?
- 5) 피면접자가 가진 문제의 시작 또는 핵심은?
- 6) 면접에 대한 총평

〈면 접 사 례〉

사 례 1.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1977년 1월 27일(음력)생, 17세, 남.
- ② 출생지: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나고, 강원도 원주에서 자람
- ③ 학력: 중학교 2 중퇴 (자퇴)
- ④ 가족관계

부: 간암으로 1990년에 돌아 가심

모: 국민학교 5학년 때 가출

형제: 누나(1986년에 결혼, 서울 거주, 34세)

- ⑤ 취미: 음악 감상, 여행

형 2명이 있었는데 같은 병으로 죽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신의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셨다. 어린 시절 집안은 유복하여 고생을 모르고 자랐으며, 국민학교 때 강원도 전체 싸이클 대회에서 2등한 경력도 있다. 자신의 싸이클용 자전거는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선물로 스위스제 사주셨다.

강원도 원주에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국민학교 4학년때 쯤 화재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부도가 났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집안에 남아 있던 돈(약 5~6억)을 모두 가지고 가출하시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이 7~8개월 정도 간호하면서 시험만 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문제는 해결되어 무사히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 좋았고 장난이 심한 편이었으나 특히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퇴원하신 후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이 악화되었고, 자신이 집안의 장손이므로 돈을 벌어서 다시 자신의 집안을 일으켜야한다고 생각하여 학교를 그만두기로 작정하였다. 선생님께 전후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은 채 자퇴하겠다고 말하다가 따귀를 얻어맞자 화가나 의자를 무심코 던졌는데 선생님이 맞아 이빨이 부러져 치료비를 보상해 주었다. 다행히 선생님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용

서해주시고 자퇴를 허락해 주셨다. 학교를 그만둔 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아버지의 친구분의 주유소에서 한달에 약 30만원 정도 받으며 경리보는 일을 시작했는데, 자퇴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 더욱 더 술을 많이 드시고 병원에도 가지질 않으려 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것을 혼자서 지켜보았고 2달정도 술만 먹고 살았는데, 매형에게 꾸중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린 후 경기도 근처에서 자취를 하였던 데, 누나가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여 서울로 오게 되었다. 누나와 매형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매형과 그의 형이 함께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공업사에서 일을 한 일년 반을 배웠는데, 누나와 매형이 공부하라고 종용하자, 타협을 본 것이 이 직업훈련소에서 졸업한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친 후, 전문대에 들어가기로 하고 입학.

나. 현재 생활

- 같은 전공과의 형들과도 사이가 무척 좋은 편이고 여전히 장난을 많이 한다.
-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것은 자신이 매형에게서 한달 정도 배운 것에 불과하다.
- 그러나, 이론적인 것을 차근차근 더 알게 되어 좋다.
- 미래계획:직업 훈련소를 졸업한 후 매형의 공장에 취직하여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에 들어가 공부를 마친 후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기계공업사를 차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겠다.
- 그동안 저축해 놓은 약4백만원은 누나가 관리해주고 자신은 용돈을 받아 별 부족함이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누나네 있을 때는 주로 매형과 집안에 설치된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누나에게는 한번도 싫다, 아니오라는 말은 해본적이 없다.
- 주말이 되면 한달에 2번정도 원주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가는 데, 영

화를 보거나 제일 친한 남자친구(인문계고등학교 재학중, 성적우수)와 함께 어울린다. 자주 편지를 하는데, 예전과 달리 여자친구 쪽 집안에서 그다지 반기는 것 같지 않은 데 모르는 척 함(자신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가? 하는 추측 뿐).

- 나이를 속이고 오토바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들통이 나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때 경찰서에 가 본 경험이 있다.
- 상담은 해 본적이 없다.

다. 다른 비행 청소년과의 차이

- 자신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 본드를 하자고 했으나 자신의 절대적인 신념은 한번 나쁜 길로 들어 서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싫다고 했다(그러나, 가끔 담배나 술을 할 뿐). 다른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스스로 경험해서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하고 일단 자신의 뜻, 목표를 세우면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면접자의 소견

- 분위기가 밝고 성격이 명랑, 재답이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자신감, 자존심을 가지고 있음.
- 심리상태와 환경 모두 비교적 안정적.
-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미래계획과 의지가 있어서 옆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있어 잘 다독겨주면 충분히 앞날의 계획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됨.
-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가솔로 인해 아버지의 사망시까지의 방황이 있었으나 심지가 굳아서 어려움을 잘 극복한 듯.
- 아주 수월하게 면접이 이루어짐.

사 례 2.

가. 가정과 개인

① 1974년 1월 8일생, 19세, 남

② 거주지:양재동 (자택)

③ 학 력:고 2 중퇴(자퇴)

④ 가족관계

부:사망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모:식당경영

형제:큰형(23세, 군대, 대학생), 남동생(15세, 중학교 재학중)

⑤ 종교:기독교

⑥ 취미:공작(만들기)

전남 영광에서 살다가 토지는 친척들에게 맡기고 4년 전에 서울로 가족들이 올라와 양재동에 자리잡고 부모님이 식당을 함께 운영하시다가 재작년 설날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웃놀이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수술 2일 전에 돌아가셨다(이때의 심정은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말을 알겠다고함).

형이 대학생이어서 먼저 서울에 있었고 자신은 학교를 구하지 못해 한 1년을 교회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다가 식당일 도와드리거나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에 들어갔다. 너무 낯선 환경에 친구를 사귀는 데도 3달이 걸릴 정도였고 중간인 성적도 자꾸 떨어지며 새 생활의 적응이 힘들때 갑자기 코피가 나면 멈추질 않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2~3년 요양을 해야한다는 진단(병명을 자신은 모르고 어머니만 알고 계신다고) 이 나와 학교를 그만두고 강원도에 있는 절에 한 3달을 요양하러 가있었다. 그 곳에서 성경책과 기독교에 관한 책을 읽으며 스님들과 대화하면서 폭 쉬고 주말에 가끔씩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집으로 와서 있다가 얼음조각을 하는 곳에서 한 1년 일을 배웠는데, 자신

의 취미와 잘 맞아서 별 어려움없이 일하다가 주인의 권유로 직업훈련소에 들어오게 되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에 있는 대소사 모든 일은 회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집안은 아주 화목하였다.

나. 현재 생활

— 원하던 과에 들어와서 기쁘고 기숙사 생활도 아주 재미있어 여기서의 생활이 즐겁다. 목공과는 19살 또래가 많고 선배들도 착해서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칼이나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므로 공부시간에 딴 곳에 신경을 쓰면 사고가 날 염려가 많아 절대 주의를 해야하며, 따라서 단합도 잘 된다.

여기를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 졸업장을 딴 후 대입시학원과 미술학원을 다니며 공부해서 홍대에 있는 목공예과나 산업미술과를 택해 대학에 진학하고 자신의 작품을 하면서 미전에도 응시해보고 가게도 열어 직접 자신의 작품을 팔고 싶다.

— 사람들이 자퇴생이라는 소리에 자신을 색안경끼고 보는 것이 싫다. 나쁜 짓을 해서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고, 또 자신처럼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관두는 사람들도 있는 데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다.

— 상담은 교회 목사님과 주로 하는 데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무게가 줄어드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후련해진다.

다. 면접자의 소견

— 이학생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관둔 사례이며, 성실하고 독실한 교인으로 술, 담배는 물론 나쁜 짓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았으며 형제중에서 제일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드리는 소위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하며 또 그것에 대한 의욕도 있어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 문제는 건강이 나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나서는 타입은 아니지만 사람들과 잘 사귀며 교회일에 열심이므로 특별히 걱정할 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사 례 3.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4년 2월 26일생, 19세, 남

② 거주지:창천동(자택)

③ 학력:고1 중퇴(자퇴)

④ 가족관계

부:특별한 직업이 없이 임대료로 생활

모:주부(교회활동)

형제:큰형(25세, 기혼, 신학대학원생) 작은형(21세,정보처리학원에서 공부)

⑤ 취미:혼자서 노는 것

국민학교 때부터 혼자서 놀거나 친구들이 노는 것을 구경하는 등 소극적이었으나 열심히 학교를 다녔으며, 중 2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며 놀다가 중 3때 롤라스케이트에 재미를 부쳐 혼자서 수업을 빠지고 롤라장에 간 일도 있다. 이때 친구들과 집에서 담배를 처음 피우다가 삼촌한테 걸려서 혼이 난 적이 있어 그 다음부터 담배는 잘 피우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한번은 중학교동창들(그냥 아는 정도의 친구들)과 함께 여자와 어울린 적이 있는데, 애들이 술에 취해 산으로 올라가 본드를 마시는 것을 보고 그냥 내려와서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고 1때 반에 있는 짝이 나쁜 아이들이 자기들과 어울리도록 강요했으며,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거나 돈을 뺏어오라고 시키는 것을 하지 않다가 많이 맞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맞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담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담임이 잘 들어 주지도 않아서 엄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면서 못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선생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하여 며칠만 집에서 쉬라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학교에는 연락도 하지않은 채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데 1주일이 지나서야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큰 형이 받아 통화를 했는데 담임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신경질적으로 말해 형이 전화를

끊으면서 그런 학교는 관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자신도 담임에게 너무 화가 나서(학생이 말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데 1주일이 지나서야 집으로 연락을 해서 사정을 듣고도 걱정은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신경질을 내다니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학교를 관두고 직업훈련소(후배가 다닌 적이 있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에 다녀 기술을 배우겠다고 말을 하자 형의 지지를 얻어 부모님의 허락을 얻었다.

자퇴 후 친구의 삼촌이 근무하는 인테리어 가게에서 용돈을 벌려고 일을 해보다가 작년에 정비학원을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다녔고, 이때 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다(그러나, 학교를 관둔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강으로 소주 한병과 오징어를 사가지고 가 떨어져 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용기가 없어 오징어만 먹다가 집으로 돌아 왔다. 부모님은 자신이 남들에게 기죽을까봐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탓하지 않는다.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직업훈련소를 찾아 여기에 오게 된 것.

나. 현재의 생활

— 처음에는 정비과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2차인 목공과에 붙어 노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일단 들어왔다. 여기서의 생활은 좋긴 좋으나 기숙사 생활이 마치 감옥생활하는 듯하고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일이 더 많으며 형들의 텃세가 있어 통학으로 바꾼지 2일 지났는데, 왠지 해방된 듯한 느낌이 들어 요즘 기분이 들떠 있고 집에서 막내가 오니까 사람사는 것 같다며 좋아하신다.

— 올해 5월쯤 훈련소 후배가 오토바이를 훔쳐왔는데 그때 마침 심부름 할일이 있어 운전할 줄 아는 친구와 함께 그 오토바이를 타고(훔친 것인줄 알지만 호기심에 타본 것이라고) 밖으로 나갔다가 바퀴에 펑크가 나자 친구가 그것을 어딘가에 숨기고 그 다음날 찾으러 갔다가 경찰한테 붙들려, 자신과 절도한 후배와 친구가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2일 동안 조사를 받고 엄마와 합

께 집으로 간 적이 있다(자신은 아무 죄도 없지만 엄마한테 좀 창피스러웠다).

—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을 해서 일단 스스로 학원비를 벌어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대학을 진학할지 아니면 취직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단 한번 결정하면 어느 쪽이든지 밀고 나갈 것이다.

— 요즘은 자신은 예술가 체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남의 이목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며 혼자서 상상을 자주한다.

— 상담은 중 3때 진학 상담을 교회에서 전도사와 해 본 적있다.

다. 면접자의 소견

— 막내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명량함이 있고 애기도 술술 잘하는 편이며 다른 아이들에 비해 때때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려는 자세가 되어있다. 만일 고등학교 때 담임이 조금만 일찍 전화를 걸어 걱정하는 기색이라도 했으면 다시 학교를 다녔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아, 학교를 판돈 것이 거의 충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것처럼 보이니 한번 무슨일엔가 심취하면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 례 4.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2년생(21살), 남자
- ② 학력 : 고 1 중퇴
- ③ 가족관계
 - 부 : 공무원
 - 모 : 주부
 - 제 : 여동생
- ④ 취미 : 운동, 음악

나. 학교생활

- 공부는 보통
- 집은 미아리인데 학교는 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치됨. 통학이 몹시 불편했고, 싸움해서 파출소에 간적있고, 미운선생이 생기고, 정학도 맞고, 가출 등도 함. 학교생활이 재미없어지고, 또 돈만 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돈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둠.

다. 그후생활

- 학교 그만 둔 다음 포장마차, 핫도그 장사 등을 해서 번 돈을 싹쓸 씨 보왔고, 또한 2백만원 저축도 했음. 한 3년 장사하다가 실증이 나서 집에서 쉬. 우연히 엄마가 TV에서 직업훈련소 학생모집 광고를 보고 입학신청함.
- 부모가 다 일어나갔을 때, 집에서 음식 차려먹은 경험이 있고, 또 깨끗하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 조리과를 택했음.

라. 현재생활

- 금년 3월에 입학. 침대생활이 좀 불편.

- 다시 학교에 갈 생각 없음.
- 학교 그만둔 후 큰 잘못 저질러 교도소 간 사람들은 쫓대가 없어서,
또는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음.
- 십년후 1류 조리사 하고싶음.

사 례 5.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1975년생(만17세) 남자
- ② 학력 :고 1 중퇴(자퇴)
- ③ 출생지:강원도
- ④ 가족관계
 - 부:경비원
 - 모:약세사리 장사
 - 제:국민학교 6학년(만 12세)

성동구 구의동 구의시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작년(1991년) 10월에 상경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고 친부모이다. 아버지 성격은 조용하신 편이고 오히려 어머니께서 괘괄한 성격이시다. 두 분 사이는 좋으신 편이다. 자신도 부모님의 의견에 잘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부모님과 마찰을 일으킨 적은 별로 없다.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5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다 성격이나 그 밖의 여러가지가 서로 안 맞아 별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성격이 좀 까다롭다. 경제수준은 중하 정도이다.

나. 중퇴 당시 생활

성적은 중상 정도였는데 워낙 산골인데다가 집안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고등학교를 계속 다녀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학교도 산골학교라 선생님이나 교과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할 형편도 안되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자신이 생각할 때도 어차피 대학안갈 바에야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등록금 내느라 부모님께 부담을 준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고 죄송스럽기도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빨리 학교 그만 두고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만류하시다가 집안 형편도 있고 해서 동의를 해주셨다. 중퇴하기 전에 교칙을 어겨 처벌 받거나 청소년 선도기관에서 조사나 보호를 받은 적은 없다. 가솔이나 이성교제의 경험도 없다.

다. 중퇴 후 지나온 생활

학교 그만 둔 후 한달 정도 가방공장에서 일해 보았고 월급 받은 것은 부모님께 드렸다. 그 외에 이곳 저곳 주로 공장에서 잠깐씩 일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바로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직업생활을 오래하지는 않았다. 학교를 강제로 그만 두거나 퇴학 당한 것이 아니고 원해서 직업을 가진 것이고 기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임시로 하던 것이라서 특별히 불만스럽거나 피로운 것은 없었다.

라. 현재상황

기술 배울 작정을 하고 학교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곳 생활은 만족스럽다. 교과내용이나 선생님, 잠자리나 음식 등 불편한 점이 없다. 같은과 애들이나 같은 방 애들과 그런대로 잘 지내고는 있지만 정이 들지는 않는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긴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마음씨는 착한 것 같은 데 행동이 너무 거칠다. 좀 이상하다.

이곳 훈련원을 졸업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1년동안 기술을 더 배울 작정이다. 지금 가구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가구에 대한 또 다른 기술들을 배우고 또 목공예도 배우고 싶다. 가구과는 목공예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에서 모두 자격증을 따두면 좋다. 내년엔 다른 훈련원을 다닐 때는 기숙하지 않고 집에서 다니면서 점정고시 학원을 다닐 작정이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현재 크게 고민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10년 쯤 뒤에는 가구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다. 여기 훈련원에서 자격증따고 내년엔 다시 목공 자격증도 따면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마. 면접자 소견

성실하고 순박한 인상. 현재 주어진 훈련원 교과과정과 생활에 충실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가족관계도 양호하고 특별히 문제되는 일이 없으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훈련원 내에서도 미화부장으로 활동 중. 피면접자에 대한 훈련원 선생님들의 평가가 좋음.

사 례 6.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4년 12월 6일생, 19세, 남자

② 거주지:영등포 신길동 (전세)

③ 학력:고 1 중퇴 (자퇴)

④ 가족관계

부:생존, 개인 사업(포장지 납품)

모:생존, 보험 사원

형제:누나(21세, 대입 삼수생)

⑤취미 :버스여행, 음악감상(classic)

어릴때 이사를 자주 다녔고,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버스로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서울시내 지리는 훤히 다.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맞았는데,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더욱 심하게 얻어맞고 돈도 많이 뺏겼다.

중 1때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위암수술을 받으셨는데 다시 퇴원한지 한달만에 재입원하시는 등 어려움이 무척 많았고, 지금도 술을 자주 드시고 가끔씩 엄마와 다투시면 엄마는 친정집으로 가시고 나중에 모셔오기도 한다. 중2 때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자신이 매일 친구들에게 맞고 돈을 뺏기자 집을 나가라고 한 적이 있어 자신이 그날 집에 12시가 넘어서 들어가자 식구들이 걱정하면서 기다린적도 있다.

화가나면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는 하나 집을 나가본 적은 없다. 중 3때는 특히 담임선생님도 무척 폭력적이었고 질이 나쁜 아이들이 어울리자고해서 할 수 없이 잠깐 어울려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동네 꼬마애들의 돈을 뺏으라고 시키기도 했으나 자신은 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더 얻어맞고 따돌림을 더욱 심하게 받았다. 또 돈을 자꾸 뺏겨서 용돈만으로는 친구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 수가 없어 방학 때 신문을 돌리거나 카페나 길거리에서 껌이나 초코렛을 팔아 친구들에게 갚아줄 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검을 팔다가 엄마를 만나 들통이 나서 그만두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아이들이 더 심하게 때리자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자퇴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자퇴하게 되었다.

— 자퇴 후 일년 반 정도 집에서 빈둥거리며 신문을 돌리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하였는 데, 부모님께서 눈치를 주지는 않았다.

나. 현재생활

— 그러다가 신문광고를 보고 직업훈련원에 응모하게 된 것이고 원래는 정비과를 가고 싶었으나 경쟁율이 높아 인쇄과에 오게되었다.

— 여기서도 처음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자주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거나 가끔씩 때리기도해서 지금은 통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은 전혀 없다. 지금 여기서 나가고 싶지만 공과 주임선생님과 친척이 서로 잘 알기때문에 친척분에게 미안해서 그만둘 수 없다.

— 직업훈련소를 앞으로 1년 더 다닌 후 졸업하여 고등학교에 편입하여 졸업장만은 따고싶다(편입시 나이가 많아 자신을 때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학교생활하기가 쉬울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자신은 없다.

— 졸업장을 가진후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방대학에 가고싶다.

— 주위에 친구들이 전혀 없고 말할 대상이 없음. 자신의 처치를 부모님에게 말해도 속상해하시므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 선생님들 중에서 매를 많이 때리는 선생님을 싫어하며, 본인은 싸움도 못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다. 하물며 집에서 누나에게 장난을 하다가도 누나에게 맞을까봐 무서워한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선생님과는 비교적 잘 지냄.

— 상담이나 면접은 중1 여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음.

다.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차이

- 자신은 한때 어울려 보았으나,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한심하고 자신과는 맞지않아 발을 뺐으나, 동네에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돈을 뺏는 강패들을 보면 속으로 “썩썩도 없으면서 저런 인간들이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할 뿐.
- 지금 19세의 나이에도 동네에서 못된 짓하는 국민학생들에게 뭐라고 한마디하면 오히려 맞는다. 물론 어린애들을 때렸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 다른 비행청소년들은 아마도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나 무관심으로 인하여 발생 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용돈이 부족해서 남의 돈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

라. 면접자의 소견

- 대체로 어두운 분위기이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하고 불만이 많은 편이면서 무척 소극적인 경향이다.
- 현상태 역시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별 의욕이 없어 매사에 시큰둥하게 보인다.
- 자신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것 같다.
- 의욕이 적고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자신이 세운 미래계획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임.
-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얻어 맞으면서 생긴 폐쇄성과 무기력이 문제의 시작인 듯하다. 남들이 하는 일을 참견하거나 의견을 내는것은 엄두도 못내고 뒤에서 욕하거나 홍보는 타입이다.
- 이야기는 잘하는 편이나 말은 상스럽고 욕을 자주 쓰는 모양인데 무척 자제하는 듯한 인상을 받음.

사 례 7.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5년 8월 4일생, 18세, 남자

② 거주지:영등포동(전세)

③ 학력:중1 중퇴 (자퇴)

④ 가족관계

부:생존, 이혼

모:생존, 장사(분식)

형제:누나(22세, 공장)

⑤ 취미:없음. 만화나 보는 정도

어릴때 아버지가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여 비교적 부유하게 살다가 국민학교 3학년때 가출하셨는 데 빚보증을 잘못하여 재산을 잃고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딴 살림을 하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집안에서 아버지를 애기를 못하게하며 아버지라는 인간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음. 누나와는 비밀이 없는 데 누나의 일기장을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됨). 그 후 엄마는 장사를 하셔서 집안을 꾸려가고, 국민학교때 부터 학교를 다니기가 싫었고 공부(아는 문제가 나와도 일부러 답안지만 보고 답을 썼음)는 아예 관심도 없었으며 학교에서 말썽꾸러기로 유명했음. 중학교에 입학하자 곧 자퇴수속을 밟음. 처음에 엄마나 선생님(여자)이 만류하였으나 그래도 자퇴를 고집함.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들과 어울리면서 담배,술, 본드를 사용해 봄. 그러던 중 엄마에게 담배피우는 것이 발각되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예 학원을 옮겨 처음에는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아 친구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원으로 옮겨옴. 이때부터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여전히 친구들은 본드나 가스를 마셨으나 자신은 거절하고 담배만 피웠고, 5명의 친구들과 여자들을 사귀었는

데운것 다른 친구들은 모두 성경험을 하였으나 자신은 여자쪽에서 먼저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길래 여자친구와 헤어졌음. 자신은 무책임한 성관계를 갖기를 바라지 않음.

90년 7월 17일 환각상태인 친구들이 불러내어 길거리에서 돈을 뺏다가 경찰에게 들켜 흥기를 가지고 있던 자신은 도망치다가 흥기를 버리고 붙잡혀 처음으로 수감을 차보았음. 붙들린 5명 중 한명의 부모가 청소년 선도위원회장이어서 그의 아버지가 모두를 돈을 주고 빼내줌. 그 이후 학원을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면서 친구들과는 어울리지않은 채 혼자서 길거리에서 꼬마들의 돈을 뺏은 적도 있어 가끔씩 파출소 신세를 진적도 있다. 빈둥거리면서 집에 있을 때, 아침마다 신문배달을 한 3년 정도하여 저축을 하기도 했음.

나. 현재 생활

- 그러던 중 엄마의 권유로 여기에 응모하였는 데 처음에는 전자과에 응모하고 싶었으나 수학을 잘해야한다는 소리에 인쇄과를 지망하게 되었고, 이과의 대부분이 원해서 인쇄과를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합도 잘 안되고 아이들이 거친 편.

-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몸이 허약체질이라서 한약을 먹던 중이었는데 한약을 데워먹지 못하는 것이 곤욕이어서 통학하게됨

- 여기서의 생활도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졸업하고 배운 것을 사용하면서 검정고시학원을 다녀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고등학교를 다니던가 아니면 검정고시학원을 다시 다니던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가능하면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다. 집에서는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함.

- 자신이 여기 다닌다는 사실을 5명의 친구들 중 제일 친한 친구만이 알고 있을뿐 다른 아이들은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어울리지 않고자 함. 그러나 가끔씩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불러내기도 하는 데 돈만 건네주고 돌아옴.

- 가장 친한 친구는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어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전화는 자주하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 위해 주말에는 집에 있지를 않고 만화가게나 혼자서 돌아다님.
- 자신의 얘기를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였으나 한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으나,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속이 시원하다.

다.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차이

-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불만때문에 그것을 밖에서 해소하는 듯하다. 물론 자신도 그런쪽에서 쌓였던 불만들이 밖에서 나쁜 짓을 하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면 이런 비행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고싶지 않다. 자신의 이런 행동에 대해 처음에는 엄마가 무관심한 것이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관심을 갖고 야단치려하면 더 화가 난다.
- 자신의 친구들 중 한명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해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 유산을 시켰는데 여전히 관계를 갖는 것을 보면 우습게 여겨진다.
- 자신은 비행청소년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동정하거나 하지는 않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말라고 한 날은 친구들이 더 심하게 나쁜 짓을 함. 따라서 말을 해 주는 것도 두렵다. 오히려 선부를 충고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할까봐.

라. 면접자의 소견

- 침착하며 수줍어하는 편이나 자신을 아끼려고 애쓰는 듯.
- 현 상태에는 목표의식같은 것이 뚜렷하지는 않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듯.
-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 자신의 행동과 현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확실하게 심어 주어 나쁜 곳에서 발을 뺄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함.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나쁜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큰 관건.

- 아버지의 가출로 인한 집안의 화목이 깨어진 것이 문제의 시작인 듯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것이 문제를 확대시킴.
- 이야기는 잘하는 편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멈칫하지만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학생.

사 례 8.

가. 가정과 환경

① 나이:1975년 10월 23일생, 18세, 남

② 거주지:도봉구 번동(아파트 전세)

③ 학력:상고 1 중퇴(자퇴처리)

④ 가족관계

부:생존, 당뇨병과 대퇴부 골절로 병중세 있음

모:생존, 장사(악세서리)

형제:2남 3녀 중 막내 (누나 2명은 결혼, 형은 직장, 막내누나는 일본에 유학), 형제들과는 사이가 좋은 편

⑤ 취미:음악 감상(classic), 운동

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친구들과 술을 드신 후 14층 건물에서 떨어져 그이후로는 집에서 계시고 엄마가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 형은 전문대학을 나와 건축에 관계하는 일을 하고 막내누나는 여상을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여 졸업후 일본으로 유학(어떤 공부를 하러갔는지 모른다고 함). 부모끼리 싸움은 국민학교 때는 빈번하고 심하게 싸웠으나 요즘은 뜸하며, 부모가 싸우면 형과 자신은 말리지 않고 누나들이 말렸다. 부모가 싸우는 것이 싫어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재미있기도 하다. (결혼 후에 부모는 자신이 꼭 모시고 싶다고. 이유는 모르겠다고 함)

국민학교때 부터 학교에 다니기가 싫었고 공부도 못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후배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같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새벽에 동네에서 아버지한테 불들려서 돌아온 것이 최초의 무단 가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술, 담배를 피우고 외박은 자주하였으며, 무단 결석하여 2달을 학교에 나가지 않고(이유는 사춘기여서라고함) 집에도 들어가지않고 친구가 일하는 정비소에 있다가 부모님께 연락하고 엄마가 학교로 가보았더니 담임이 좋으신 분이어서 자퇴처리가 되어 있었음.

가출시 친구집을 전전하면서 TV보거나 오락실을 가거나 여자친구(2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짐. 이유는 여자가 자기 말고 자기 친구와도 사귀어서)를 사귀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절대로 본드나 나쁜 짓(돈뺏기 등)은 한 적이 없다. 지금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 후회됨.

— 남, 너 친구들과 여관에서 자다가 경찰에게 붙들린 적이 있을 뿐(부모가 모두 찾아옴, 부모에게 별로 혼나지는 않았음). 그외의 일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본 적은 없다

나. 현재 생활

- 동네 선배의 권유로 같이 인쇄과로 들어왔으나 선배는 지금 그만둔 상태.
- 직업 훈련소를 마친후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싶다
- 그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적성인지 몰라서 인쇄와 관계되는 직장을 갖을지 어떨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대학은 가고 싶지않다고 함.
-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단체 생활이 불편해서 통학하고 싶다.
- 공과에서 선배들과도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고 주임교사는 훈련소에 계신 선생님중 제일 좋으시다고 함.
- 상담은 해 본 적이 없음(이유는 귀찮아서)

다. 다른 비행청소년과의 차이

- 비행 청소년이 생기는 이유는 사회나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다.
- 사회나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는 모르겠다.
- 자신도 중학교시절에 길거리에서 돈을 뺏기거나 돈이 없어 맞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지나가던 미친개에게 한번 물린 셈친다.
-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 역시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확실하다.
- 자신은 부모에게 야단맞거나 혼날 때면 반항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면

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너무 화가 날 때는 부모가 미운적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라. 면접자의 소견

- 수줍어하고 어휘력이 약하며, 표현력도 뒤지는 편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다 전달하기가 어려운 듯.
-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체감이 덜 형성되어있는 듯
-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충고를 해 줄 만한 조언자와 독서를 할 필요가 있음.
- 장래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을 뿐더러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하고 있다.
-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가출하고 싶어하는지를 모르겠다고함. 특별히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질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아닌 듯한데(검사를 해보았으면).
-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약간의 경계를 하는 듯하지만 대답은 잘 하였으나 의사전달능력이 부족.

사 례 9.

가. 가정환경

① 나이:1978년 2월 14일생, 15세, 남.

② 가족관계

부:생존, 환경미화원

모:생존, 가정주부

형제:누나(21세, 기혼), 형(18세,상고재학중)

③ 취미:모형만들기, 만화책수집

2남1녀중 막내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술을 자주, 많이 드시는 편으로 취중에는 어머니와 자주 싸우시고 야단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술이 깨시면 별로 말도 없으셔서 집안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이다. 누나는 고등학교 재학중(공부는 상위권) 집을 무단가출해서(이유는 모르겠다고함)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고 지금은 그 남자와 혼인 신고만 한 채 같이 살면서 3살박이 조카도 있다(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때는 누나의 나이를 23,4세라고 속이고 말을 한다고). 처음에는 집에서 난리가 났었으나 매형이 아주 착하고 좋아서 지금은 인정받아 자주왕래하면서 지낸다. 형은 공부는 잘하지는 못하나 힘이 세고 성실하여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성격이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귀여움을 받는다. 반면에 자신은 내성적이고 의지가 약하며 게으른 편이어서 아버지(취중에)께 자주 맞고 야단 맞으면, 형이 감싸준다(형을 질투하거나 미워한 적은 없고 오히려 형이 고맙다고).

○○국민학교 2학년때 엄마가 재봉공장을 다니시자, 동네 형들과 어울려 놀다가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했다. 동네 형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며 노는 것이 재미있어 집에서는 학교에 간다고 나가 학교를 가지않고 만화가게나 오락실을 다니며 공놀이하고 놀았다. 선생님이 엄마와 함께 불러 교실에서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매질을 하였다. 이때부터 자신은 매맞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 시작했으며, 그때 너무 창피했으며 지금도 그 선생님은 너무

싫고 혼이 난 후에도 여전히 학교가기가 싫어서 교문앞에서 되돌아온 적이 많다. 국3 때는 담임선생이 무관심하여 더욱 학교를 자주 결석한 채 길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엄마에게 들켜 엄마는 공장일을 관두시고 자신을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러나, 국4, 5, 6학년때는 선생님들이 모두 좋으셔서 학교를 비교적 열심히 다녔다. 특히 6학년때 담임선생님은 자신에게 무척 잘 대해 주셔서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녀공학인 ○○중학교에 올라가 담임 선생님은 좋았지만 다른 선생님들에게 많이 맞자 학교를 무단 결석을 해버렸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를 가면 여전히 교문 앞에서 발걸이 되돌아진다고함. 자신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하고 별로 사귀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결석을 많이 하니까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여 일부러 피했다. 담임이 자꾸 결석하면 퇴학처분을 당하니까 차라리 자퇴(중1)하라고 하여 자신은 엄마가 직접자퇴 수속을 밟으셨다. 집에서 자신이 자퇴한 것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자신때문에 화를 많이 내시는 데 그때는 밖으로 나와 아버지가 술이 깨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 간다.

자퇴한 후 집에서 빈둥거리며 한 일년을 놓고 있을때 동네 친구한명이 놀돈이 없으니까 자기 친구네 집을 털자고 하여 그 집에 들어가 6천 5백원을 훔쳐 1천 5백원을 썼는데 자신은 자꾸 마음이 찝찝해서 나머지 돈을 돌려주자고 하였으나, 그녀석이 남은 돈을 훔친집 아들과 다쳐버린 후에 경찰서 불들려 자신도 함께 잡힌 적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경찰서에 들어가 본 것이다. 거기서 실컷 두들겨맞고 나와 그 녀석과는 말도 많하고 지낸다. 그런데 그 녀석은 자기동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다.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등산장비공장에 취직하여 1달정도 다니다가 엄마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하는 식당을 다니라고 하자 자신은 이미 그곳에 정이 들어 싫다고 하자 아버지가 그럴려면 집을 나가라고 하여 직장을 바꿨으나 그곳이 장사가 안돼 자신이 반달만에 해고되었으며 또 다른 백화점의 식당으로 옮겨

일을 시작한지 나이가 어리다고 3일만에 쫓겨났다. 그 이후 다시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자 엄마가 TV에서 작업훈련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에게 권유하여 여기를 들어오게 됐다.

나. 현재의 생활

— 인쇄과를 지원하기 전에 자신은 그전에 식당에서 일해 본 적이 있어 조리과를 지원하려 했으나, 엄마는 인쇄과가 전망이 있다며 그쪽을 권하고 자기는 싫다고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조리과를 직접 가보니 너무 번거러워(자신은 너무 게을러서) 인쇄과를 택하게됐음.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제일 나이가 어려 매일 자질구레한 일은 모두 자신의 몫이었고 형들도 무서우며 단체생활하는 것이 안 맞아 관두고 차라리 딴 곳에 취직하려고 한 달을 결석을 했다가 자퇴서를 내려고 왔다가 교무과장과 3시간 동안 면담을 하였는데 기숙사 생활이 힘들면 통학을 해보라고 권해서 지금 막 다시 다니기 시작하고 있는 중.

— 앞으로 일년 더 이곳을 다니고 난 후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장을 딴 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장을 딸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다닐지는 모르겠다. 만약 학교를 다닌다면 결석을 할지 아니면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다닐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10년 후의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

— 자신은 남을 괴롭히거나 싸움을 해본적 도 없으며 술이나 담배는 할 줄은 알지만 자신이 싫어해서 하지않는다.

— 상담이라고는 교무과장과 함께 얘기본 것이 전부인 데 이때 자신은 약속이 있어 마음이 조급한 상태여서 별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다. 면접자의 소견

— 아직 어리고 수줍어하며 나이에 비해 그다지 활발한 편이 못돼 남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자신이 게으르고 한가지 일을 끝까지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시기이며 자신의 생각을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것 같다.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해주면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면 심성은 착하고 순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 례 10.

가. 가정과 개인

- ① 1973년 1월 11일생, 20세, 남
- ② 거주지:상도동(전세)
- ③ 학력:고등학교 2학년 중퇴(자퇴)
- ④ 가족관계
부:회사에서 청소원
모:샌드위치장사(지금은 잠시 쉼)
형제:누나(21세, 은행원), 남동생(14세, Y중 1)
- ⑤ 종교:기독교
- ⑥ 취미:운동

전남 장성에서 농사일을 하시던 부모가 7년전(85년)에 서울로 돈을 버신다고 올라가시고 형제들은 할머니,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함께 장성에 남아 농사일을 거들며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고2때 국민학교때부터 친구인 4명과 함께 오토바이(친구들 각자 가지고있어 통학용으로 사용)를 타고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데 깡패들을 만나 깡패들이 자신들의 오토바이를 뺏으려하자, 패싸움이 일어나 경찰에 모두 붙들려 들어갔다. 경찰서에서 할아버지께 연락을 하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는 몰래 비밀로 해주셨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은 좋으시다고)에게 매를 맞고 학교를 다니던 중 학교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학급비를 걷으면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혼자 올라와 돈을 다 쓰고 내려왔다. 나중에 부모님이 아셔서 돈을 마련해주신 일도 있다. 또 두꺼비패라는 조직에 가입해서 술이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뺏는 일을 하며 어울려 놀다가 그 조직의 선배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이번에는 부모님이 아셔서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하시면서 서울로 함께 올라가자고 하셨다. 그러나, 그일 후 곧장 서울로 못오고 여전히 장성에 남아 있었는데 그 패거리들과는 어울리기가 싫어서 학교를 자퇴함(이유는 아버지께

서 배운것은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 절대로 빨간줄을 긋지 않기 위해 애쓰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후에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이들어서). 자퇴 시 선생님께서 고등학교는 마치도록 해야한다고 만류하셨으나 학교를 계속다니면 그 패거리들과 어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퇴를 결심했고, 자퇴후 한 일년을 집에서 농사일을 거두고 있다가 작년(91년) 9월에 서울로 동생과 올라옴. 누나는 장성에 남아 그곳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아서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데 자리가 난 학교가 없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동생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장성에서는 교회에도 나갔었으나 서울에서는 술, 담배를 하면서, 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창피하여 잘 다니지 않고 있다.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 장사하시는 것을 돕다가 구청에 다니시는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훈련소에 들어오게됐.

—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으셔서 말을 해서 안되면 매를 맞는다. 특히 담배를 피우지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몰래 피다가 들켜 크게 몰매를 맞은 적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기는 커녕 무섭기는 해도 오히려 존경한다.

나. 현재 생활

— 인쇄과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듣고 지원했으며 여기서 지금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별로 없고 선배들과도 별 무리없이 지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밤새 나가서 일을 하시므로 집에 엄마와 동생만이 있는 것이 불안하여 통학으로 바꾸었다. 동네에 아직 친구들이 없고 대신 공과친구나 선배들과 잘어울려 논다.

주로 노는 것은 술을 마시거나 여의도나 한강 고수부지에서 가끔씩 놀지만 주말에 일하느라 바빠서 돌아다니며 놀시간이 없는 편이다. 지금은 엄마가 장사하던 곳이 공사중이라서 일을 쉬고 계시므로 자신의 용돈이라도 벌어보기위해 이삿집센터에서 일을 주말마다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서 재미있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한2만원씩 드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자식에게서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시라며 그 만두기를 바라신다.

— 앞으로는 자격증을 따고 난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후 인쇄 제통의 직장을 다니던지 해서 딱 10년만 고생해서 후에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너무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려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 자신은 운동도 잘하고 힘도 좋지만 먼저 시비를 걸거나 해서 싸움을 하지는 않고 싸움이 일어나면 지지는 않는다.

— 상담은 목사님과 얘기해 본 적이 있다는 데 말을 하고나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다. 면접자의 소견

— 활발한 편이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 데 만일 다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데 친구들을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것 같고 자신의 목표가 너무 거창한 반면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할지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해서 미래의 계획이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출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사 례 11.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5년 4월 11일생, 17세, 남

② 거주지:신길동(자택)

③ 학력:고 1 중퇴(자퇴)

④ 취미:당구

⑤ 가족관계

부:인테리어가게 운영

모:주부

형제:큰누나(23세, 회사원), 작은누나(19세, 대학생)

부모나 형제들간의 사이는 좋다

중 3때 여름방학중 친구들과5~6명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집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아예 3일 동안 집에 연락도 안한 채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내다가 돈이 떨어져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첫번째 가출 경험이다. 부모님께서는 야단을 맞았으나 별로 심하지는 않았고 이기간에만 해도 3~4번 더 집을 나가 3일~1주일 정도 연락없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으나 본드같은 환각제는 사용해본 적 없으며 남의 돈을 뺏거나 해본적도 없다. 놀다가 돈이 떨어지면 모두 집으로 돌아 갔다. 또 이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친구들과 함께 싸움을 해본 적이 있다.

집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하지 않았다. 또 학교는 점점 더 가기가 싫어지고 공부도 못하는 데 부천에 있는 공고를 들어가 그 곳의 친구들과 어울려 방과 후 근처에서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그때 마침 우범청소년 단속기간 중이어서 형사들에게 붙들려 경찰서에 넘겨졌다가 다시 학교로 넘겨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연락하여 아버지가 오셨고 담임선생님한테도 꾸중만 들었지 별 탈 없이 집에 들어가 씻고 잠을 잤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는 주로 당구를 치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하면서 노는데 어느날 갑자기 학교를 너무 가기 싫고 집에도 있기 싫어서(자신도 왜 그런지 알 수 없다고 함) 1달 동안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에도 연락을 안한 채 자취하는 친구집에 머물면서 주유소에서 일을 하다가 놀다가 하면서 빈둥거리다가 부모님이 함께 친구집으로 돌이닥쳐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는 가출기간이 제일 길었는데 부모님은 한심해 하시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시고 학교는 어떻게 할것이나는 물음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쉽게 허락하셨다. 다음날 학교로 갔더니 담임이 학교에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보류중이라하면서 자퇴를 허락하셨다.

작년에 자퇴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다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2달 하다가 다시 놀고 있을때 작은 누나 친구가 이 직업훈련소를 다니고 있어서 작은 누나가 집에서 놀지말고 다녀보라고 권해서 들어오게 됨.

나. 현재의 생활

— 자신은 어떤 공과를 택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아버지가 목공과를 들어가고 해서 이 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형들과 사이가 좋고 다른 공과에 비해 훨씬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임선생님을 꺼리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으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더 생활하기가 어려워 다시 어제부터 통학하기 시작했다.

—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소에서 알선해 주는 직장을 다니며 점정고시(학교로 다시 돌아 가고 싶지 않으며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지도 않다)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후 연예학원을 들어가 공부한 후 연예계에 진출하고 싶다. 자신이 특별히 연기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실은 부모님도 알고 계시며 특별히 반대하거나 하시지는 않는다.

— 상담은 해본 적이 없으며, 별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다. 면접자의 소견

－ 딸을 스스로 안하려고 해서 힘들었으며 유도질문을 해도 그냥 웃으며 아무 생각없다는 식이어서 면접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편이었다. 자신의 딸로는 성격은 활발하여 사람들과 잘 사귀는 편이라고 딸을 한다. 학교에 왜 가기가 싫은 잘 모르겠다는 식이고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들은 내용만을 토대로 한다면 부모님의 관심과 훈육 통제력이 적은 데 문제가 있는 듯 싶다.

사 레 12.

가. 개인과 환경

① 1973년 11월 15일생, 20세,남

② 거주지:신림동(자택)

③ 학력:중졸

④ 가족관계

부:6년전(1986년) 위암으로 사망

모:화장술 공장

형제:큰 누나(24세, 대학생) 작은 누나(22세, 만화학원)

⑤ 취미:무

군산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누나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외국으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가셨다. 어릴 때 특히 할머니가 잘 대해 주셨으며, 동물들을 좋아했고 개구리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이 난다. 몇 살 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울로 올라왔고 7살 때 억지로 엄마가 교회에 다니게 했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다. 국민학교때 선생님들은 다 좋았으나 4학년 때의 선생님은 자주 매려서 제일 무섭고 싫었으며 학교 생활은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도 없어 별로 재미있지 않았다. 웅변학원, 주산학원, 태권도장을 다녔으나 자주 빠지다가 엄마에게 혼난 적도 많다. 6학년때 좋아하던 할머니가 간암으로 6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매일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나 소용이 없어지자 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 또 이 때 친구가 자기 누나의 돈을 훔쳐 자신에게 선물을 사 줬는데, 친구가 자기엄마에게 돈을 훔친 게 들통나자 자신이 그렇게하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 일을 담임에게 말해 자신이 불러가 야단을 맞았다.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나 담임이 믿어주지 않아 속상해서 엄마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가 새벽에 경찰에게 붙들려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최초의 가출이다. 중학교에 진학하자 1, 2학년 때도 역시 공부도 못하고 (특히 수학, 영어는 제일 싫었으며) 친구들도 없었으나, 그래도 수업은 빠지지 않았다

방학이면 아침에 말도 없이 나가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다. 중 3 때 외국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약 일 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본인은 아버지가 그냥 싫어서 별로 애기를 나눠 본 적도 없고 나누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위암 말기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아버지는 외국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12살 짜리의 아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고백하고 그 외국 여자가 자식과 함께 한국으로 찾아오자 아버지는 함께 가기를 원했으나 엄마가 보내주시질 않았다(그때의 심정을 물어보니까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었다고함). 또 중 3 때 수업(특히, 국, 영, 수 시간)도 멍멍이 치거나 한번은 학교에 책가방만 놓고 무단외출하여 오락실에서 놀다가 선생님께 들켜 하마터면 처벌을 받을 뻔했다. 성적은 말도 못할 정도여서 고입시험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서 선생님과 상의해 중학교만 마치고 선생님이 영등포에 있는 직업훈련소에 들어가게 해 주셨다. 그 곳에서 관심이 있는 정비과를 들어갔으나 너무 힘들고 공부가 어려워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졸업한 후 취업시켜준 정비공장에서 3개월 일을 했는데, 여기서도 형들이 너무 괴롭혀 판두고, 대신에 사장이 서울기계공고 야간에 넣어 주어 좀 쉬을 것같은 건축과를 지원했으나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고 약 7개월 정도 다니다가 공부도 어렵고 애들도 질이 나쁘고 싫어서 그만두었다. 이 때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교를 그만 둔 후에는 일만 했으나 이것도 곧 그만 두고 다른 직장으로 여러 번 옮겼다. 그 때마다 엄마에게서 끈기가 없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다.

나. 현재의 생활

엄마가 광고를 보고 응시해 보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실은 별로 들

어오고 싶지 않았으나 엄마가 시키는 것이므로 그냥 들어온 것이다. 목공과를 택한 것도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므로 재미있고 쉬울 줄 알았으나 역시 공부가 어렵고 잘 하지도 못해 자격증시험을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냥 졸업만 하고 취직을 할 지 검정고시학원을 다닐 지 모르겠으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 설계를 해 보거나 생각을 해 보려고 한 적도 없다. 목공과의 형들은 나이를 많이 따지는 편이어서 불편하고, 특히 기숙사 생활에서 제일 큰 불편은 잠을 많이 못자는 것으로 자신은 보통 12시간 정도를 자는 편인데, 여기서는 7시간 정도만 잘 수 있으므로 매우 불편하고 따라서 자신은 주말에 집에 가면 잠만 잔다. 집에서의 생활 수입은 하숙을 치거나 방을 세를 내주어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며, 자신은 1주일에 5천원~1만원정도 용돈을 받아서 쓴다. 통학을 하고 싶어도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고, 여기를 그만두고 싶어도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가 없다. 자신은 엄마 말을 거역해 본 적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 요즘 자신은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자신은 상담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다.

다. 면접가의 소견

평장히 수줍어하며 활달하지 못한 편이어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것 같다. 친구라고는 국민학교 때 사귀 한 살 아래인 후배 뿐이라고 한다. 지금도 가끔씩 만나 얘기를 주고 받는 정도이다. 문제는 자신은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배울 만한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아존중감이 적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며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것 같다. 한번쯤 심리 검사같은 것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물론 사교적인 기술이 부족해 특별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자학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어려울 것 같다.

사 례 13.

가. 가정과 개인

- ① 1974년 9월 29일생, 19세, 남
- ② 거주지 : 대림동(샛월세, 생활보호 대상자)
- ③ 학력 : 고 2 재학 중
- ④ 가족관계
 - 부 : 7년전 사망(산업재해)
 - 모 : 섬유회사 직공
 - 형제 : 남동생 2(중2, 중1)
- ⑤ 취미 : 노래 부르기, 독서(1일 1권씩)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2살 때 서울로 이사왔고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이었는데 한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신 적이 있었으나 그 일로 부부간의 큰 갈등은 없었고, 국 6 때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화상으로 사망하시자 집안의 경제사정은 어려워졌고 3년 후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생활은 더욱 어렵다(현재 생존). 국, 중학교 시절에는 공부는 중간 정도 였으나 비교적 착실한 학교생활을 하다가 야간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다른 친구들은 주간에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엄마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이 때 학교의 친구들은 질이 나쁜 친구들이 많아 술, 담배를 배웠고 패싸움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애썼다. 환각제 같은 것에 호기심은 있었으나 자신은 해 보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다. 자퇴 후 카센터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이 때 여자친구도 만나 지금까지 사귀고 있는 중이다. 다시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안산에 있는 사촌형과 한 2달을 지내고 공고의 디자인과를 지망했으나 떨어지고 외가 친척이 소개해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다.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쫓린 학생들만 들어오는 곳으로 다들 전적들이 화려하며 나이 차도 심하고 무척 거친 학교

이다. 여기를 다니면서 서빙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새벽 1시 쯤 나오다가 어떤 녀석이 돈을 요구하며 때리기에 자신도 때려 주었는데 다른 녀석들도 합류하게 되자 자신도 친구들을 불러 패싸움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게 자신만 붙들리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구치소로 옮겨 다니다가 재판을 2번 정도 받았고, 학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여 어렵게 집행유예(보호관찰기간, 94.1.9)를 받고 풀려났으며 학교는 재학 중으로 되어 있고 담임이 직업훈련소를 소개해 주었다.

나. 현재생활

방위산업체를 가기위해 전기과를 택했으며, 여기서 자격증을 따서 꼭 방위 산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 친구와 장사(경양식)를 하고 싶고 대학은 나중에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 들어가고 싶다. 고등학교는 여기서의 출석이 인정이 되어 ○○고등학교를 자동으로 졸업하게 된다. 수업이나 기숙사생활은 만족스러운 편이고 공과의 형이나 동생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다. 특히 26세의 같은 공과의 형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자신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자신을 잘 이해해주며 세상의 경험도 많은 것 같아 보였다.

지난주 집안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 훈련소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려고 엄마에게 의논했으나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포기했다. 자신의 엄마는 아주 용기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것이 제일 즐겁고 철창을 사이에 두고 엄마와 면담할 때 가장 슬펐다.

중학교 때 사귀 절친한 친구 3명과 모이면 공원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애가를 서로 터놓고 한다. 또 요즘은 보호관찰기간이므로 쓸 데 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고 산다. 자신은 남의 이목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며 열심히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 면접자의 소견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할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전달하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듯하다. 자신이 식구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과 책임감이 있으며 가족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도 많은 것 같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친구들을 선별하여 사귄 줄도 아는 것 같으며 남들과 별 문제없이 잘 지내는 듯하다. 문제는 생활이 너무 어렵고 처음에 주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여 이후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 것 같다. 가정생활이 안정되면 학업을 계속해도 좋을 듯하다.

사 례 14.

가. 개인과 환경

① 1974년 1월 30일생, 19세, 남자

② 거주지 : 신림동(전세)

③ 학 력 : 고2 중퇴 (자퇴)

④ 가족관계

부 : 야채장사

모 : 야채장사

형제 : 누나(21세, 회사원)

⑤ 취미 : 운동(태권도, 합기도)

⑥ 종교 : 기독교

⑦ 집안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시며 화를 잘 내시고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한 번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매부터 드셔서 아주 무서워 했고, 술을 많이 드시면 엄마를 때리시기도 했다(그런 때는 아버지가 싫었으나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집안에서 부모님과도 누나와도 사이가 좋은 편이어서 특별히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전반적으로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합기도와 태권도를 꾸준히 배워 운동에는 자신이 있다. 중 1 때 교회옥상에서 친구들과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웠고, 중 3때 선배들이 후배들 기강을 잡는다고 때려서 얻어 맞은 후에 술을 사주어서 처음 마셔 보았다. 한번은 별 일도 아닌 일로 (이불을 개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고) 야단을 치시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매를 때리시자 너무 화가 나서 3일 동안 친구집에서 자고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찾아내서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달래셨다. 또 중 1 때 자신은 상관도 없는 일에 친구

가 후배들에게 사과를 받을 일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후배녀석들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덤비자, 얼떨결에 자신이 한대 쳤는데 후배의 코뼈를 부러뜨려 학생부에 불러가 7일 동안 유기정학을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에는 재미있게 지내다가 2학기 때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와서 일일 나이트티켓을 사라고 하자 자신과 친구는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사게해서 친구는 한장을 샀으나 자신은 싫어서 계속 거절하자 선배가 때려 이를 되받아치며 싸우다가 선생님께 끌려갔는데 자신은 그냥 아무일도 아닌 것 처럼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나이트표를 선생님께 건내주자 그 소문이 와전되어 자신이 선생님께 고자질한 것으로 소문이 나서 선배들 20~30명이 단체로 자신을 구타하였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거의 매일 방과 후에 일어났다. 그렇다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친구라고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일이 고 2 때까지 계속되어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못살게 굴자 학교를 잠시 쉬고 나가지 않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면 또 다시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구타했다. 그래서 학교를 나가지 않는 날이 더 많고 시험도 제대로 보지 못해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 지자, 부모님께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기꺼이 자퇴할 것을 허락하셨다.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자퇴는 하지 말라고 만류는 하셨으나 굽히지 않고 자퇴서를 제출했다.

자퇴 후 친구와 검정고시학원을 2달 다니다가 친구는 계속 다니고 자신은 레스토랑에서 주방보조로 약 1년정도 일을 한 후 집에서 놀았는데, 처음에는 학교를 가지않는 것이 좋았으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학교다니는 아이들이 부러워졌다. 그러나,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집에서 쓸데없이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가 혼련소라도 다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시자, 마침 집에서 놀고 있던 것이 부모님께 미안스러워 선뜻 승낙했다.

나. 현재생활

처음에는 조리과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전기과가 전망이 더 좋

다고 하시면서 그 쪽을 지원하기를 희망하시자 그대로 그 뜻을 따라 들어 왔는데 비교적 만족스럽다. 단체생활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 기숙사 생활이 힘들지만, 만일 통학을 하게 되면 여기를 계속다니게 될 지 자신 할 수 없어 그냥 기숙사 생활을 계속한다. 공부가 좀 어렵고 형이나 동생들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며, 같은 공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포함해서 2명 밖에 없어 좀 창피해서 올 8월에 보는 검정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꼭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알선해 주는 직장을 다니며 돈을 좀 벌고 일을 배운 후 기회가 닿고 공부를 계속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대를 다니고 싶다. 열심히 살아서 그 동안 부모님께 속 썩혀드린 것을 사죄하는 뜻으로 편안하게 모시고 싶다. 자신은 환각제나 남의 돈을 뺏어 본 적도 없을 뿐아니라 경찰서에 붙들려 가본 적도 없다. 물론 싸움은 많이 해 보았으나 그것도 자신이 시비를 먼저 걸어 싸우거나 하지 않는다. 상담의 경험은 없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신과 가장 절친한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거나 해서 해결해 나간다.

다. 면접자의 소견

활달하고 사교적인 듯하며 만일 고 1때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일이 한두번 맞는 정도로 끝났으면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을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으나,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남들과 똑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평범한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일 뿐인 것 같다. 벌써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만일 합격하면 자신이 그려놓은 미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사 례 15.

가. 개인과 환경

① 1973년 3월 8일생, 20세, 남자

② 거주지 : 봉천동(자택)

③ 학력 : 고 2 중퇴(자퇴)

④ 취미 : 영화보기

⑤ 가족관계

부 : 노동

모 : 사망(암)

형제 : 동생(남, 중3)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한복을 만드시거나 수선하는 일을 하셨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성격은 아주 비슷하셔서 기분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편이다. 그러나 부부사이나 자신과 부모 사이가 특별히 나쁘거나 하지는 않다.

국, 중 때는 공부도 중상위권에 들어 갔으며 학교생활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고 친한 친구 4명이 있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즐겼다. 중3 때 사촌형들과 당구장에 처음 들어가 보고 곧 친구들과 함께 당구장을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200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술과 담배는 연합고사를 앞두고 100일주를 마시기 시작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자주 논두렁(학교가 교외에 있는 곳이므로)에서 자주 마셨다. 그러나, 집에서는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한 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다.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과 술이나 담배는 해보았으나 남의 돈을 뺏거나 본드같은 환각제는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주 얻어 맞았고(한달에 1~2번씩), 따라서 학교생활이 재미없어 지면서 자율학습이나 보

충수업을 자주 빠져 성적은 하위로 떨어졌다. 방과 후에 담배를 피다가 담임에게 들켜 혼난 적도 있었고 한번은 학교로 등교하는데 버스에서 우연히 친구 2명을 만나 이미 수업에 늦었으니 아예 놀다가 늦게 들어 가자고 해서 산에서 술과 담배를 피다가 호기심으로 본드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고 그 이후로 본드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러는 중 어머니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시는 동안에 자신이 방과후 병원에 있고 밤에는 아버지가 병상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그때 학교에 있어서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그 때의 느낌은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아주 많이 울었었다. 집안을 돌보기 위해 큰 집에 계시던 할머니가 오셔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가끔씩 파출부가 와서 일을 도와준다. 고 2로 올라가서 봄방학 때 친구 하나가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간다고 자신도 함께 나가자고 해서 자신은 며칠만 함께 있겠다는 조건으로 3일 동안 가출을 했었다(당시 의리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가서 집으로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온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친구네 집에서 머물며 주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선배들이 단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남의 밥이나 라면을 뺏어 먹는데 자신은 너무 화가 났으며 학교생활도 재미가 없어서 울컥하는 성미에 아버지께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하셔서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있다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지가 자퇴서를 가지고 학교로 가셨는데 이유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말하고 꼭 복학을 약속하면서 제출하셨다고 하며, 자신과 담임과는 전혀 연락이 닿지 못해 만난 적이 없었다.

자퇴후 검정고시 학원과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학원은 2달 만에 그만 두고 일은 6달 동안 하다가 자동차 정비학원을 3개월 정도 다니다가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3일만에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때 머리를 다쳐 지금도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전혀 기억을 못하며 2달을 입원해 있었고 퇴원

후 그냥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였다.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특별히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않고 가끔씩 일일 노동으로 돈을 벌어 여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했다. 자신이 이렇게 빈둥거리는 것에 대해 아버지는 별로 참견하지 않았다.

작년에 친구네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친구가 술을 산다고 해서 고수부지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큰 길가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친구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잠시 다녀오겠다며 갔는데 그 2명에게서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이 함께 싸우다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쳤는데 어떤 학교 앞으로 도망와 잠시 쉬다가 깜짝 잠이 들어 새벽 3시가 되어 친구들이 궁금해 혹시하는 심정으로 고수부지를 다시 찾아갔다가 모닥불을 쬔고 있던 전남 김제에서 올라온 또래들 3명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쪽에서 13명이 1명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갔다가 싸움이 붙어 한참 싸우는데 경찰이 와 모두 연행되었고 자신들은 정상이 참작되었으나 상대방 중 하나가 이빨이 부러져 자신의 아버지가 대신 치료비를 물어주고 나왔는데 아버지에게 몹시 미안했으며 아버지는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친구들이 대학 원서를 쓴다고 할 때는 학교를 그만 둔 것이 후회되었으나 복학을 하기에는 나이도 많아 자신이 없어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기로 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시다가 광고에 나온 직업훈련소를 권하시길래 너무 미안해서 응시했다.

나. 현재의 생활

정비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정비과를 지원했는데, 이 공과는 예비역들이 너무 많아 많이 때리고 예비역들의 몫인 일도 자신을 포함한 미필들이 모두 해야 한다.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한방에 8명 중 4명이 예비역들이어서 나머지 4명이서 모든 일을 다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나 누군가의 부모가 전화를 해서 예비역들끼리 미필들끼리 서로 방을 달리 배정해 지금은 그래도 수

월하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아뭏든 몇몇의 예비역들의 횡포가 심해서 여기를 관두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한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딴 후 군대를 1년 미룬 후 전문대 시험을 봐서 붙으면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의 자동차설계부서로 취직하고 싶다. 그러나, 만일 대학에 떨어지면 군대를 다녀온 후 카센타를 차릴 계획이다. 이때는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후자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공부는 너무 어려우니까, 상담을 해본 적은 없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다. 면접자의 소견

성격도 밝고 사교성도 있으며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어느 쪽이든지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며 어른들에 대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나쁜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가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미와 어머니의 사망이 함께 맞아 떨어져 일어난 것 같다.

사 례 16.

가. 가정과 개인

① 1973년 6월 13일생, 20세, 남자

② 거주지 : 시흥(전세)

③ 학력 : 고 1 중퇴(자퇴)

④ 가족관계

부 : 운전

모 : 회사

형제 : 없음

⑤ 취미 : 운동, 기계다루기

부모님의 성격은 모두 화통하신 편으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으시다 한번 화를 내면 아주 무섭다. 자신은 진주에서 태어났으며 형제가 없으나 버릇나 빠질까봐 부모가 아주 엄하게 기르셨고, 부모님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다.

국 1 때 별일 아닌 것으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매를 맞아 그 선생님이 몹시 싫었고, 국 4 때는 친구 3명과 학교에는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는 학교가는 것처럼 나가 8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다가 선생님께 들켜 몹시 혼났으나 전반적인 국민학교 생활은 재미있는 편이었다.

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아주 재미 있었고 결석은 하지 않았으며 공부도 중위권으로 즐거웠으나, 중 1 때 반에서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날 대청소를 하느라고 서로 책상들이 뒤바뀐 상태에서 자신의 서랍에서 없어진 물건이 나와 담임에게 오해를 받고 그 이후로 무슨 일만 생기면 계속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자신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선생님도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도 담임을 몹시 싫어했다. 중 2, 3때 선생님들은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고 더이상 인문계통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 공고를 택하게 되었고 전공은 토목과를 선택하

였다. 고1때 선생님과과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성적은 하위로 떨어지고 점점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지다가 패싸움 발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싸움에 끼어들어 여러번 싸웠다(이때는 의리가 중요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다가 친구가 여자친구 문제로 다른 패거리들과 싸우게 되고 자신도 함께 싸우다 선생님께 들켰고 친구는 잘못 맞아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일단 처벌이 보류되자 자신의 생각으로는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것 같아 아예 자퇴할 것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3일 동안 혼만 나자 아예 집을 나와 친구집에 머물다가 1주일이 지난 후에 들어가자 부모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부모가 자퇴서를 대신 내고 자신은 학교에 발을 꿰었다. 선생님이 몇번인가 계속 연락을 하셨으나 자신이 피해다녔다(창피해서).

이 때, 술이나 담배를 배웠고 본드는 호기심으로 3, 4번 해보았으며, 싸우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 주는 등 2, 3번 정도 경찰서에 들어가본 적이 있다. 자퇴 후 봉제공장을 1년 2개월 정도 다니다가 악을 판매하는 외판원을 2달 정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부산에 놀러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해 집으로 돌아올 차비도 없자, 일단 돈을 벌기위해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보면서 아예 부산에서 정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며 1년 넘게 외지에서 돈을 벌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가 친구들에게서 들은 것이 있어 직업훈련소에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떻냐는 권유에 자신도 그 동안 돌아 다니면서 자격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으므로 쾌히 승낙하고 여기를 지원한 것이다.

나. 현재 생활

정비계통에 관심이 있어 들어왔으며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좋으나 예비역들의 횡포가 심해서 좀 아니꼽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기왕 들어왔으니 꼭 졸업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견디고 있다.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단 취직한 후 사회생활을 해 본 후에 군대를 기능병으로 제대하고 1급자격증을 땀후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 고교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를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검정고시를 준비할 마음이 별로 없다.

자신의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자신 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 정비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친구들은 지금 대학생들인데 자신은 한때 학교를 그만 둔 것이 후회스러운 적이 있었고 또 부러워서 생각을 해 보았으나, 자신은 이미 공부보다는 실기(기술)를 먼저 배우는 것이고 나중에 이론을 배우는 것인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자신의 어렵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먼저 조용히 생각을 해 본 후에 어느 정도 결말이 보이며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기분을 풀지 남에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상담은 해 본 적이 없다.

다. 면접자의 소견

자존심이 있어 자신이 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으며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모의 속을 썩혀 드린 것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며 보다 책임감이 생기는 듯하며 관심이 있는 것에는 배우려는 욕심이 있어 만일 공부에 흥미와 자극이 될 만한 계기가 생기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패싸움에 끼어들면서 학교에서의 처분을 기다리기 보다는 아예 그만 두어 버리면서 보통의 학생들과 다른 길을 걸어 오는 듯하다.

사 례 17.

가. 가정과 개인

① 1969년 12월 14일생, 24세, 남자

② 거주지: 흑석동(자택)

③ 학력: 고졸

④ 취미:운동(검도, 테니스)

⑤ 가족관계

부:한식집운영

모:분식점운영

여동생:21세,학원에 재학 중

⑥ 군대 :방위(18개월)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한전에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였고,어머니는 집에 계시다가 아버지가 권유하셔서 2년 전에 분식점을 동네에 차리셨다(어머니가 비사교적인 편이라서).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시고 권위적이며 화통하신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말도 잘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반면에 어머니는 아주 순종적이고 조용하신 편이었으나 어머니와는 말을 많이 하고 친한 편이다. 여동생과는 별로 친하지 않아 대화가 없는 편이다. 그러나, 집이 싫지는 않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편해서 좋다.

국민학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과도 친해서 아주 성실하게 학교를 마쳤고 중 1, 2 때 역시 별 문제 없이 학교(성적은 중위권)를 잘 다녔으나 중3 때 연합고사 끝난 후 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이나 담배를 시작했으며, 싸우거나 남의 돈을 뺏는 일도 해 보았다. 자신은 원래 은행원(외삼촌이 은행의 지점장이었고 아주 샤프하게 보여)이 되고 싶어 상고를 가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대학을 가야한다고 하시며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길 희망하셔서 그대로 따랐다. 아버지와는 더욱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고1, 2 때까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는 문제가 없었고 단지 성적이 나빴었다가 학생들의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게 하는 것이 불만이고 몇명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거부 등의 데모를 하였다. 결국 주동자로 몰려 6, 7명이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게 되자 어머니께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자퇴를 결심하였는데 당시 아버지는 지방에 출장 중이어서 어머니가 대신 자퇴서를 제출하였다.

나중에 올라오신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고 학교 일로 함께 그만둔 고등학교 친구들과 부산으로 기분전환하러 갔다가 카페에 취직해서 약 3달을 지내다가 함께 온 친구들이 서울로 가자 자신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로 올라왔다.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며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본드도 하곤 하다가 1년과정을 끝내고 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졸업장을 땀에 따고 보니 웬지 학교를 그만둔 것이 그냥 후회가 되곤했다. 단과학원을 다니며 전문대를 시험보았으나 낙방하자 집에서는 실망하는 듯하자 자신이 햄버거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원비를 벌어 부모 몰래 단과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시험을 보았으나 또 실패했다. 그러자 그래픽학원을 다니면서 6개월 과정을 수료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군대(수송부)를 방위로 들어가 제대할 때 쯤 아버지가 신문에 서 보시고 직업훈련소를 추천해 주셨다.

자신은 놀 때는 질이 나쁜 동네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지만, 보통 자신에게 의지가 되는 국민학교 동창들과 어울렸으며 특히 그 중 제일 친한 1명과 거의 비밀이 없을정도이다. 경찰서에는 4, 5번 출입했었는데 대부분은 패싸움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주는 등 주로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처리해 주셔서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신다. 아버지는 이미 자신이 고등학교를 그만 두고 대학시험에 떨어질 때부터 자신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버지와는 서먹서먹함이 여전히 남아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대화가 없다.

나. 현재의 생활

군대에서 수송부에 있어서 자동차 정비도 해 본 적이 있고 또 자신도 정비에 관심이 있고 특히 디자인 쪽으로 흥미가 있어 정비과를 지원했다. 자신뿐 아니라 공과에 있는 다른 예비역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다닌다. 공부나 선생님들과는 문제가 없고 다른 형이나 동생들과도 별 위화감없이 잘 지내고 있다. 자신은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차를 몰고 이 훈련소를 통학하고 있다. 집에서는 공부를 하거나 가끔씩 검도(5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 (질이 나쁜 친구들과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을 만나거나 한다. 앞으로 자격증을 딴 후에 전문대를 시험봐서 들어가면 자동차 디자인을 공부해서 대기업에 디자인 쪽으로 취직하고 만일 떨어지면 방통대라도 다니면서 아버지가 가게를 내는 것을 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한 2, 3년 다른 곳에서 일을 해 본 후에 가게를 경영하면서 계속해서 부모 몰래 시험을 볼 것이다(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이유는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끈기, 인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난날 돌아본 것은 남자라면 그 당시에 대부분이 해 보는 것을 한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가 중요하므로 지금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담은 사촌형과 자신의 미래를 많이 의논하곤 했지만 상담기관에 의뢰하거나 해 본적은 없다.

다. 면접자의 소견

다른 피면접자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약간 쑥스러워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얘기했지만 숨기거나 하지는 않는 듯했다. 자신의 미래에 긍정적이며,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 하지만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문제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학교에서 주동자로 몰려 무기정학이라는 처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에 아예 자퇴를 하는 것이 뭔가 더 남자다와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일어난 듯하다.

사 례 18.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1년생 (22세), 남자

② 학력:고교 2년 중퇴(야간 고등학교, 자퇴)

③ 가족관계

— 부:자유업(인쇄업을 부업으로함)

— 모:주부

— 제:여동생 2(첫째 여동생은 고교 졸업 후 직장생활, 둘째 여동생은 고교 2년 재학 중) 보통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다.

부와의 관계:아버지가 피면접자를 잘 이해해주는 편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짖거나 충고를 하기 보다는 포용해 주시는 편이다. 남들이 보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모습, 생활, 생김새 등 모두가 아버지와 꼭 닮았다. 생활하는 방식, 태도 등이 매우 비슷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려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충고를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 예로 자신이 학교 다니는 동안 줄곧 성적이 30-35등 사이였는데 30등을 하면 ‘자식 성적이 좀 올랐네. 다음에는 한 25등은 할 수 있겠다’ 그러시고 그 다음 시험에서 35등을 하면 ‘왜 5등만 떨어졌나. 사나이가 화끈하게 떨어지는 김에 한 10등 떨어져보지.’ 이런 식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가 주의를 주시고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까지처럼 멋대로 살지는 않았을텐데.

모와의 관계: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야단도 많이 치시고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왜 들어와서 또 속 썩이나’고 말씀하셨기는 하지만 말씀만 그러실 뿐 자신이 힘들때 많은 도움을 주셨다.

부모 간의 관계:아버지는 성격이 낙천적인 편이고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 못된다. 자유업 하시다가 많이 망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으나 두 분간의 관계는 좋다. 아버지는 술을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자신이 알기로 여자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형제 간의 관계:여동생 둘 중 첫째 여동생은 고교 졸업 후 회사다니는 중이고 막내는 중학교 때 유도를 해서 대전체고로 진학했으나 건강이 안좋아 현재 서울에 있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다.

자신이 정상적인 course를 밟지 못하고 빗나가게 살았기 때문인지 동생들의 잘못에 대해 다른 오빠들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게 된다. 평소에는 동생들과 잘 지내나 동생이 담배를 핀다거나 할 경우 때려서라도 고치게 한다. 전에는 자신이 돈을 벌고 동생이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돈을 벌기 때문에 가끔 자신에게 용돈을 주기도 한다. 동생 친구들 중 술집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

나. 학교 생활

집이 개포동으로 학교까지 너무 멀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야간인문고등학교였는데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 학교생활했다. 국민학교 때부터 고교 중퇴할 때 까지 공부를 잘 한 적이 없다. 30-35등 정도였다. 공부에는 관심없고 놀러만 다녔다. 고1때부터 여자친구를 깊이 사귀었다. 중퇴전에 자잘한 일로 선생님들께 야단 많이 맞았지만 정학이나 근신을 당한적은 없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노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고 또 사귀던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2 중간 쯤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었다.

다. 그후생활

학교를 그만 둔 후 집에서 나와서 천호동, 미아리, 서울역 부근, 잠실 등에 있는 stand bar, cafe, night club 등에서 waiter를 하며 돈을 벌었다. 집에서 나와 3년정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집에는 가끔 어디있다는 정도만 연락을하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주로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 세계의 선후배 친구들을 많이 알게되었다. 그 친구들과 어울려 패싸움도 꽤 많이 하고 기물파손 등으로 경찰서에도 불려가곤 했다. 전과가 있는 친구들도 많고 거칠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좋은 친구들이고 평생만날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돈도 꽤 벌었지만 험하게 쓰는 편이라서 모아둔 것은 없다.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부모님께서 많이 실망하셨지만 아버지는 ‘넌 어째 나랑 하는 것이 똑같냐(아버지도 고등학교 때 충청도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라고 말씀하실 뿐 다시 학교를 들어가라던가 하는 말씀은 없으셨다. 자신도 학교를 그만 두고 그런 생활한 것에 대해 후회도 없고, 다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것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그만두고 크게 빛나가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준 것도 큰 힘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인 것 같다. 자신의 친구들 중 폭력배 행동대원도 있고 어느동 누구라던 동네 주먹패들이 다 알만한 친구도 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강패, 전과자 등 한 마디로 나쁜 사람들로 보이지만 자신은 자잘한 패싸움 외에 큰 범죄행동에 휩쓸린 적은 없다.

라. 현재생활

아버지 소개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 이곳 훈련소 인쇄파를 졸업하시고 현재 인쇄업을 부업으로 하고 계신다. 자신도 술집 생활을 3년 정도 하다보니 이제 술집에서는 그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쉬면서 막노동을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팔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직업훈련원 가서 자격증 따고 직업도 가져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시험보고 입학했다. 이곳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식사나 잠자리에 큰 불만 없다. 아침에 6시 20분에 일어나야된다는 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할 만하다. 같은 과 대부분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기때문에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른다.

인쇄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까 머리에 잘 안들어 오고 ‘인쇄’에 대해서도 큰 매력을 못 느꼈지만 지금은 7월 자격증 시험준비 하고 있고 인쇄과도 마음에 든다. 다른과에 갔었으면 하는 생각 없다.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서 졸업후 정규직장을 다니며 돈을 좀 모은 후 작게라도 가게를 내고싶다. 장사를 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셔서 안할 작정이다.

다시 학교를 갈 생각은 전혀 없다. 현재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여자친구 문제이다. 여동생 친구 중 한 명인데 서로 안 것은 5년 째되고 사귀는 것은 1년 째 넘었다.

금년 4월부터 성관계도 가끔 가지고 있으며 3년 후 째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 여자친구가 직장생활하다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나와서 친구들과 자취하는데 그 친구들이 술집에 나가는 친구들이라 그 친구들에 휩쓸려 술집에 나갈까봐 걱정이 되고 그 친구들의 휴대폰 쏘쏘이에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질까봐 신경이 쓰인다. 그 외에 학교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에는 걱정되는 점이 없다.

사 례 19.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1977년생 (16세), 남자.
- ② 학력:중학교 1학년 중퇴 (자퇴)
- ③ 가족관계
 - 부:상업 (과일가게)
 - 모:상업 (과일가게)
 - 형:정비 기능사 (19세)
 - 누나:고등학생 (18세)

집안 경제수준은 보통 하는 편이다. 집은 면목동이나 통학거리가 멀어 기숙사 생활하고있다. 국민학교까지 제주도에서 살다가 중학교 입학 무렵 서울로 이사했다. 형은 인천에서 직장다니며 따로 살고 있고 집에는 부모님과 누나가 함께산다. 부모님은 크게, 혹은 자주 싸우시는 편은 아니나 썩 사이가 좋지는 않다.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에게 눌러 지내시는 편이다. 형은 평소에는 자상하나 피면접자가 싸움을 하거나 학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오면 무섭게 때린다. 어떤 때는 며칠씩 걷지도 못할 정도이다. 형도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날나리’로 싸움도 많이하고 다녔는데 자신에게는 ‘넌 아직 너무 어려. 그럴 나이가 아니야’라면서 매우 엄격하게 대한다. 지금 정비 기능사인데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나가 살고 있다. 누나는 성격이 양순한 편으로 자신과 충돌이 없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말썽을 많이 부려 엄마 속 많이 썩혀드렸다. 그 때는 철이 없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울면 ‘왜 우나 이게 뭐 울 일인가?’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울면 너무 속상하다. 엄마가 우는게 제일 싫다. 아버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 어머니가 성격이 워낙 강해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맞는다.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머니가 심하게 혼내고 때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히려 항상 말리는 쪽이다.

나. 학교생활

공부는 보통 이하. 공부가 재미없고 너무 하기 싫었다.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을 다녔는데 거기서 유도, 태권도, 격투기 등을 배웠다. 호신술이나 쌍절봉 쓰는 법 같은 것도 거기 다니는 형들이 가르쳐주었다. 학교가도 재미도 없고 해서 엄마 몰래 신문팔이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 안가고 그돈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녔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친구들이 나쁜 애들인 줄 몰랐다. 지금은 후회가 된다. 여자친구도 많았지만 깊이 사귀는 친구는 없었다. meeting은 많이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 꼬시려고 말 붙이고 앞에서 왔다 갔다하는 여자애들은 질색이다. 학교 안가고 오락실가서 놀다가 괜히 자기 노려보고 그러는 애들 있으면 싸움을 걸어 때려주었다. 체육관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싸움에는 자신있었다. 자퇴하기 전에 유기정학을 한번 받았는데 그때도 꽤싸움 때문이었다. 같은 반 애들 열 명과 그 동네 깡패 열명이 동네 놀이터에서 싸웠는데 처음에는 맨 주먹으로 싸우다가 그쪽에서 무기(파이프, 체인 등)를 쓰는 바람에 격렬하게 싸우게 되었다. 자신은 쌍절봉을 썼는데 정신없이 휘두르다 상대방 한 아이의 입에 맞아 이빨 5개가 부러졌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을 고소했는데 아직 소년원갈 나이가 안돼서 부모님이 벌금내고 풀려났다. 그 때문에 유기정학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자그만한 잘못을 해서 퇴학당할 것 같아 먼저 자퇴서를 냈다. 엄마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퇴학 당하면 복교를 할 수 없지만 자퇴를 하면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승락해 주었다. 학교 다니는 동안 가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 그후생활

학교를 그만 둔 후에는 미장이 일을 배웠다. 한동안 일하다가 가방공장, 봉제공장 다니면서 돈 벌었고 공장 다니는 동안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봉제공장은 대우도 안 좋고 분위기가 싫었다. 가방공장은 형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봉제공장은 여자들이 많았고, 열심히 살려하기보다는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고 돈 쓰고 남자들 꼬시려하는게 보여,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그만 두었다.

학교 그만두고 공장생활하면서 좋았던 것은 돈 벌어 엄마에게 맡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달래서 불편없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제일 괴로웠던 것은 교복입고 가방메고 다니는 애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다. 특히 작업복 입고 손에 기름 잔뜩 묻히고 뒤편에 나갔을 때 학생들을 만나면 창피하고 부럽고 너무 괴로웠다.

학교 중퇴할 때 같이 퇴학당한 애들 중 열심히 살지 않고 빚나간 애들과 자신과 다른 점은 그 애들은 편한 것, 보기에 좋은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 힘들게 일하고 더러운 작업복 입고 고생하기보다는 쉽게 벌어서 멋지게 살아보려 하기 때문이다.

라. 현재생활

공장 그만 둔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직업훈련소에 가보는게 어떠냐고 해서 왔다. 처음에는 정비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너무 어려울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인쇄과에 억지로 넣었다. 아주 안맞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지는 않다. 여기 1년 마치고 다시 정비과로 들어가려 한다.

이곳 생활은 대체로 만족한다. 식사나 잠자리도 불편없고 형들도 잘해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좀 힘들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싫은 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때린다는 점이다.

현재 크게 고민되는 점은 없다. 다시 정규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학생들보면 부럽고 공부하고 싶다. 어렸을 때 꿈은 외교관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되는 것이 아닌가보다.

훈련소 마치고 자격증 따서 돈 좀 벌다가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중동쪽), 한국에 돌아와 사업하고 싶다. 10년 후에는 아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사 례 20.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1978년 생 (만 15세) 남자
- ② 학력:중 1 중퇴 (자퇴)
- ③ 출생지:서울
- ④ 가족관계
 - 부:직장
 - 모:주부
 - 여동생:1명 (중학교 1학년)
 - 남동생:1명 (국만학교 5학년)

자양동 거주. 기숙사에 있는 것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출퇴근 안하고 기숙사에 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친하다. 아버지는 좀 무섭다. 여동생과 자주 싸우는 편. 남동생과 친하다.

나. 학교생활

공부를 매우 못한 편이었다. 머리에 안 들어오고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다. 공부가 싫기도 했지만,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공부 못하는 것 외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운다거나 무엇을 훔친다거나 하는 일로 처벌을 받아본 적은 없다. 다른 아이들은 미팅이나 소개팅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고는 했지만 자신은 관심이 없었다. 미팅은 아직 한번도 안해보았고 여자친구를 사귀는 적도 없다. 특별히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선생님은 없었다. 자신이 공부를 못했고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라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선생님이 없었다.

친하게 어울려 다니는 친구도 없었다. 중학교 1학년 중간 쯤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성적도 형편 없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 자퇴하기 이전에 근신이나 정학을 받아본 적은 없다.

다. 그후 생활 및 현재 생활

학교를 그만둔 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이 집에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 그만 둔 후에 일을 배우거나 웨이터 노릇을 하거나 했었는데 자신은 그냥 집에 있었다. 아무 일도 안하면서 집에 있으려니 너무 무료하고 부모님 눈치도 보였었는데 신문광고에서 어머니께서 직업 훈련소 광고를 보시고는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동의를 하고 입학했다. 용접과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하고 싶거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고, 입학했을 때 여기 선생님이 권유하셔서 들어 왔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기상시간, 식사 등이 적응이 안되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다. 형들도 잘해주고 같은 나이 또래들이 있어 그 애들과 친하게 지낸다. 현재 크게 고민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은 없다. 용접과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도 있다. 만약 용접과를 안 갔다면 목공예과도 재미있었을 것 같다.

학교 그만 두고 안다닌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 동생들 학교 다니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하다. 여기 마치면 학원에 들어가 검정고시 공부를 할 작정이다. 대학까지 시험볼 생각은 없고 고등학교 졸업자격까지는 따고싶다.

10년 후 쯤에는 용접과 관련된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것 같다. 어렸을 때 꿈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검정고시 합격해서 학력 높이고 자격증 따서 직장에 들어갈 것 같다.

라. 면접자 소견

키가 자그마하고 귀엽고 애타는 인상. 말투가 매우 공손하고 어른스러움. 표정의 변화가 얼굴에 잘 나타나지 않고 말수가 매우 적으나 가끔 웃는 모습이 밝아 보임. 부모와의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생각됨. 현재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 자격시험을 치루었다 함. 이곳을 마친 후에는 진학하고 싶으며 부모도 이에 동의했다 함.

사 례 21.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1974년생 (만 18세) 남자
- ② 학력: 고1 중퇴
- ③ 출생지: 서울
- ④ 가족관계
 - 부: 노동 (페인트업, 공사장 십장, 막노동)
 - 모: 주부
 - 자: 여동생 1(중 3)

면목동 거주 국민학교 때와 중 1, 2 중반 쯤 까지 성적은 중간 정도에 큰 말썽은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큰 충돌은 없었으나 중 2말부터 불량 씨클에 가입, 학교도 잘 안나가고 싸움하고 다니고 그러면서부터 아버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졌다. 아버지에게 무섭게 맞은 적도 여러번 있었다. 여기 들어오기 1년전에 큰 사고친 후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막노동 나가시는데 따라다녔다. 막상 일을 해보니 페인트냄새에 숨이 막히고 환각 상태에 빠진적도 있었다. 너무 고되고 힘들어 그때 처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 우리를 키우시는지 비로서 알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의견이 안맞거나 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하시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잘해드리고 싶다.

여자 동생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은 아니다. 동성이 아닌데다, 3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 다만 자신이 노는데 빠져 제대로의 코스를 거치지 못했고 함께 어울리던, 지금 여동생 또래 여자애들의 심리상태를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여동생이 놀고 싶어하거나 노는 기미를 비추면 그때 그때 잡아주려 한다.

나. 학교생활

국민학교,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30~40등 정도였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힘이 없는 애였다. 때리면 맞고, 돈 달라면 돈 뺏기고 지는 것, 숙이고 들어가는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렇게 매일 겁나하면서 학교 다니는게 너무 불만이였다. 중 2학년말 쯤 친구가 동네 형 한명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형은 그 동네(면목동 일대 동부시장 근처까지)에서 잘 나가는 형들 중 하나였다. 싸움도 잘하고 패거리들도 많아서 함께 다니면 품도 나고 든든하고 맞을 걱정없는 것이 너무 좋았다. 동네 깡패들의 세계에서는 ‘선배빨’이라는게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잘 나고 잘 싸워도 선배빨이 없으면 그 동네에 자리를 잡기도 힘들 뿐 아니라 토박이 주먹들에게 맞고 쫓겨나기 십상이다. 친구 소개로 알게된 형을 통해 다른 형들도 알게되고 그 형들 쫓아다니면서 술이랑 담배도 배우고(중2말) 독극물(본드 등)도 해봤다. 술과 담배는 그 뒤로도 많이 했지만 본드는 오래하지 않았다. 어디서 싸우거나 맞고 오면 형들이 쫓아가 뒤처리해주는 것이 든든하고 자랑스럽기까지했다.

하지만 형들이 항상 잘해주는 것 만은 아니다. 때때로 군기잡는 식으로 조그만 것 꼬투리를 잡아 엄청 때린다. 주로 독방에서 때리는 데 한번은 각목으로 하도 심하게 맞아 5명이 입원하고 자신도 기어서 집에 왔다.

선배빨 등에 업고 중 2 끝날 무렵 ‘파(불량 circle)’ 하나를 만들었다.

그때 학교에 ‘망부석파’가 있었는데 그 파랑 선배 형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망부석파에 맞서서 ‘화진파’를 만들었다. 중 2때까지 간신히 그나마 유지되던 성적이 중 3되면서 완전히 곤두박질쳐서 거의 매번 꼴찌를 했지만 관심도 없었다. 그때부터 면목2동에 있는 ‘진다방’을 아지트 삼아(진다방 뒤에 주차장이 있어 거기서 놀고 본드도 마시고 그랬다.) 아침부터 가서 ‘죽돌이’노릇했다. 학교도 거의 안나가고 가출도 해보고 망부석 파와 패싸움도 하는 바람에 근신, 무기/유기 정학 다 받아봤다. 그래도 퇴학은 안 당하고 겨우 졸업장은 받았다.

졸업하고나서 인문고 떨어지고, 동대문 상고 야간도 떨어지고 경기도 가까

운데에 ○○고등학교라고, 여기저기 다 떨어진 애들이 오는 비정규학교에 시험보러 왔는데 그냥 백지를 냈는데도 정원미달이라 전원 모두 합격되었다.

입학도 그렇고 학교자체도 담도, 교문도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모양이라 학교라는 기분이 전혀나지 않아, 그때부터 학교는 등록만 해두고 거의 매우 진다방으로 출근, 커피값 800원 내고 하루 종일 형들, 같은 파애들과 있으면서 매일 오는 ‘죽순이’ 들 사귀고 음악다방이라 판도 돌리면서 지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패싸움도 많이 하고 지나가는 애들 세워두고 돈도 많이 뺏았다. 고1 때도 죽순이들과 따라오는 친구들의 돈을 뺏아서 술값, 담배값을 대곤했다. 고 1중간 쯤 친구들과 가출하면서 학교 그만두어 버렸다. 그 이듬해 다시 1학년으로 복학했는데 복학생이라고 말썽 일으킬까봐 그랬는지 선생님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성질나서 아예 그만 두어 버렸다.

다. 그후생활

학교 그만두고는 card장사, 군고구마 장사도하고 남대문에서 청바지 띄어다가 팔아보고 하다가 cafe, restaurant, room salon 등에서 waiter, 스키장에서 front보는 일 등을 했다. 중학교부터 술을 배워 술이 센 편(소주10병 정도)이지만, room salon에서 waiter 하면서 속을 많이 버렸다. 몸도 많이 상했지만 손님들 비위 맞추고 굶신거리는 일이 싫었다.

학교 그만두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2번 있었다.(전과는 없다.) 한번은 스키장 front에서 일할 때 였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식당에서 잔밥 털고 쓰레기 치우던 놈이 몇달 다른 데서 일한 후 다시와보니 front로 승격되서 선배노릇을 하며 아니꼽게 굴어 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술먹고 취해서 칼 들고 지배인 죽인다고 그러는 것 말리다 싸움이 붙어 호텔 로비에서 싸웠다. 서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끌려가 열손가락 손도장 찍고 사진 찍혔다.

또 한 번은 작년(18살때) 친구집에 놀러가서 둘이 술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는데 친구가 자꾸 거슬리는 말하고 비위를 상하게 해서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취한 상태라 이성이 없어 점차 싸움이 격해져서 병을 깨들고 싸웠다. 그 때가 12시가 넘었었는데 싸움이 격렬해지고 취한 상태에서 흥분을 해서 친구집 가구며 문이며 다 부셨다. 친구도 다치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 차가 왔는데, 그때야 정신이 들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영창 대기실까지 갔다. ‘이번에는 정말 걸렸구나’하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그때까지의 무절제한 생활이 너무 후회가 됐다. 같은 파 후배들 몇 명이 성폭행으로 걸려 들어와 포승에 수감차고 가는 걸 보면서 여기서 나가게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기물파손, 폭력상해 등 여러가지가 걸려 교도소에 갈 사안이었지만 어머니가 빼주셨다. 거기서 나와 그때부터는 waiter 때려치고 아버지 따라 막노동판에 다녔다. 일 다니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도 알게되었다. 한동안 막노동하다가 친구가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는게 어떠냐고 권하고 아버지도 자격증 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여기 오게 되었다.

라. 현재생활

이곳 직업훈련원은 같은 파에 있던 친구 한명이 함께 가자고 해서 왔다. 전과가 생길뻔한 이후로 이런 생활이 싫어졌고 사회에 자리를 잡고 살아보고 싶었다. 기계과에 1지망을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 7월에 있는 자격시험에 꼭 합격하고 싶다. 이곳 생활에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잠자리나 음식, 교과 내용이나 선생님들께는 불만이 없지만 대인관계가 불편하다.

깊이 사귀고 싶은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려니 외롭다. 집에 가도 그전에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만나면 또 그런 생활을 할 것 같아 일부러 피한다. 나오라고 연락와도 만나가고 일요일이면 불러내는 거 피해서 막노동을 나가거나 한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훈련원에서도, 집에서든 친구가 없어 너무 외롭다.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제일 큰 고민은 여기 훈련원 마치고 대입 점정고시 시험을 본 후 기계와 관련된 전문대에 들어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가지 일을

꾸준히 한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어서 목표대로 앞으로 꾸준히 잘 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는 점이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하리라고 생각 안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학교 안다닌 것이 앞으로 무엇인가 이루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실감하고 있다.

10년쯤 후에는 기계관련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어있을 것 같다. 이 곳을 마치고 점정고시를 보아서 전문대나오면 기술 뿐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것들도 일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이다. 꾸준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가끔씩 자신이 없어진다. 어차피 내 문제니까 주변의 도움보다는 내 자신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면접자 소견

강해보이는 인상. 중학교 때의 불량 circle에 가입해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생활 pattern에서 벗어나 훈련원의 생활 및 그 이후의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대안적인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외로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이곳에서의 훈련상태가 양호하고 가족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임. 피면접자에게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계를 대치할 만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보여짐. 현실적으로는 현재 훈련소에서의 관계는 이미 형성된 상태이고 피면접자가 이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 피면접자가 가진 문제의 시작은 공부에 대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데다 자신의 몸집이 작고 약한 것에 대한 열등감과 ‘power’에 대한 동경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례 22.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1975년생(만 17세) 남자
- ② 학력:중3 중퇴(퇴학)
- ③ 출생지:서울
- ④ 가족관계
 - 부:상업
 - 모:주부
 - 형1:회사원
 - 제1:학생(중3)

용산 거주.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시고 친부모이다. 두 분 모두 성격이 조용하신 편으로 두 분 사이는 보통 정도이다. 집에 와서 아버지나 어머니와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형, 동생과는 2살 씩 차이가 나는데 집에서 말썽 부리는 자식은 자신 뿐이라 둘 다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싸우지도 않지만 친하지도 않다. 거의 접촉이 없는 편이다.

나. 중퇴 당시 생활

학교 다닐때 성적은 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려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쏟아주시거나 보살펴 주시는 분이 없었다. 항상 수업 시간에 떠돌고 딴 짓 한다고 주의 듣고 맞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미워하는 선생님도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담임선생님과 특히 사이가 안 좋아졌다.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고, 중 3 중반 쯤 퇴학당한 뒤 다시 복학하려고 두 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그 때마다 그 선생님이 적극 반대를 해서 복학이 허가되지 않곤 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근신 당하고, 중 3 올라와서 정학을 당했는데, 그 때도 선생님이 조금만 변호해 주었더라면 그렇게

까지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을 학교에서 쫓아 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복학하려고 그럴 때도 ‘그런 자식이 학교에 들어오면 애들 다 망친다’고 했다고 들었다. 어차피 학교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은 없지만 그 선생님은 두고두고 원망스럽다. 청소년 선도기관에서 조사나 보호를 받은 적은 없다.

다. 중퇴 후 지나온 생활

꽤싸움 대판하고 좀 오랜기간 가출했다 돌아와 보니 퇴학 처분이 되어있었다. 그걸 보고 친구 4명과 5명이 다시 가출하기로 하고 돈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두놈은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너무 잘해주셔서 못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3명이서 집을 나갔다.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을 들고 부산, 경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돈이 모두 떨어졌다. 그러고나니 나머지 놈들도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않아 집 근처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한국일보 지사에 가서 신문팔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신문팔이하다가 식당 배달원으로 취직 했는데 배달 스쿠터를 망가뜨리고 도망나왔다. 껌팔이 좀 하다가 다시 조선일보 배달원으로 취직했는데 얼마간 하고 있으려니 배달원 기숙사로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가 있는 동안 돈을 벌어 쓴다거나 자유롭다는 것이 한동안은 좋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학교 그만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 해본적 없다. 그냥 닥치는대로 그때 그때 주어진대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앞날에 대해 계획 같은 것 없다.

라. 현재상황

형한테 이끌려 집에 돌아온 후 아버지께서 비정규학교라도 들어가거나 학원 등록하고 검정고시라도 보라고 하셨지만 다시 공부할 생각도 없고 하기도

싫어 그냥 모른척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라도 학교에 넣을 기세라서 도망치듯 직업 훈련원에 들어왔다. 이곳에 대해 누구에게 들은 적은 없었고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곳이 있다고는 듣고 있던 터라 전화교환에게 지방에 있는 훈련소나 서울에 있더라도 집(용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훈련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여기를 가르쳐 주어서 엉겁결에 오게 되었다. 인쇄과도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모집 날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미달된 과가 인쇄과와 가구과 밖에 없어서 들어오게 되었다. 수업 내용도 재미없고 이런 걸 왜 하나 하는 생각만 든다. 수업시간에 매일 자거나 소설책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여기 생활에 대해 애착도 없고 또 꼭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특별히 이곳에 대해 불만스럽거나 바라는 것도 없다.

현재 크게 고민되는 것도 없다. 이곳에서 나가면 우선 한 1년 정도 waiter 생활을 해 보고 싶다. 아직 한 번도 안해 보았는데 친구들 하는 것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

10년쯤 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 안해봤다. 그직장을 다니던가, 가게를 경영하던가 등의 그냥 무엇인가 하고있겠지. 이곳에서의 전공을 살릴 생각은 없다.

마 . 면접자 소견

우울하거나 의욕이 없이 가라앉아있는 것은 아니나 이곳생활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 자격증시험에 대비할 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고 할 생각도 없다함. 특별히 이 곳 생활이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나 진득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거나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다고. 인상이나 분위기는 밝고 명랑하나 안정되지 못하고 수선스러운 느낌을 줌.

사 례 23.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 : 1975년생(18살), 남자

② 학력 : 고 1 중퇴

③ 가족관계

부 - 체신공무원 작년 은퇴. 씨름선수.

모 - 2인 : 작은 엄마 - 친모

큰 엄마 - 양모

이복형 1. 육군하사관, 이복형 2. S대 재학

친누나 - 친 엄마와 동거

남동생 - 큰 엄마와 동거

고 향 - 전라도 구례 - 중 3때 서울음.

④ 운동을 좋아함.

나. 학교생활

○ 공부는 잘 하는 축

○ 고 1때 엄마가 고향에 제사지내러 간새, 친구 2명과 여자친구 3명이
랑 집에서 합숙, 노느라 무단결석 4일 함.

→ 중 3때 친구로 - 타학교, 학교안가는 아이들 - 어울리면서 노는아
이들 세계로 들어감.

다. 그후 생활

○ 처음엔 몹시 후회

○ 고 중퇴 후 - 공고 재입학 10일 후 그만둠 : 아이들이 지저분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 식당에 취직해서 접시 닦기로 한 6개월 일함 : 처음엔 월급 65만원,

나중엔 75만원

- 주방장되면 대우와 수입이 좋은데 단 10년 이상해야 되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한 5년 하면 된다고 들었음.
- 친구의 소개로 식당에 취직함.
- 경찰서 앞 전봇대에 붙은 모집광고를 본 친구랑 같이 입학신청했는데, 친구는 면접서 떨어짐. - 1kg은 1000g 등을 몰라서.

라. 현재생활

- 금년 3월에 입학 91명 시험에 46명이 합격
- 처음엔 군대식 단체생활 - 6시 아침점호 후 수업, 밤 10시 지역 점호등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잘 적응 함.
- 식사, 운동은 좋은데, 잠자기가 좀 불편함.
 - 한방에 7-8명씩 침대에 자는데, 담배연기와 늦게까지 얘기하는 소음 때문에.
- 훈련원에 도서관이 없고, 신문은 각자 구독신청해서 봄.
- 무협지를 좋아해서 영웅문을 읽고 있음.
- 다시 학교갈 생각안함 - 학교 다니는 친구도 내년엔 고 3되면 이 곳으로 기술 배우러 온다하고, 다른 친구도 졸업 후 전문대에 가서 기술배운다 함.
- 1류 조리사가 되어 행복하게 살겠음.

사 례 24.

가. 현재상황

- 경찰서 앞 전봇대에 붙어있는 모집광고 보고 신청.
- 평소에 음식 만드는 것 좋아함.
- 처음에는 군대식의 규칙적인 생활이 좀 불편했지만 이제는 적응되어서 큰 불편없음.
- 음식, 의복, 잠자기, 선생, 동료등 대체로 만족스러움. - 주말에 외출해서 일요일 밤늦게 까지 놀다가 월요일 아침 8시 까지 등교하기가 힘이 듦.
-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집안걱정 - 국민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와 별거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림.
-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은 지금 후회되니 학교가기 싫더라도 꼭 참고 졸업은 해야된다.
- 같이 시작한 친구하나는 그만두고, 다시 DJ나 음악테이프 장사 시작

나. 지나온 생활

- 음악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무단결석하고 가출하는게 몇번 되풀이 되다가 중퇴했음 - 학교 그만둔 후 음악테이프 장사(추력 빌려서 친구랑 같이), 카페에서 DJ로 일했음. - 그런 후 전망이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기술을 하나 익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남의 도움은 별로 안 받고,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도움되는 말을 해주었음. 그 여자는 미국 유학갈 준비를 함(미용기술사로 - 미국에 엄마가 있어서)
- 학교 중퇴한 사람들중에서, 나쁜 길로 접어들어 소년원에 가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자기의 판단기준이 없는 것 같음. 나는 엄마가 고생하고 걱정할 일을 생각해서 아주 나쁜 일은 안했음.

다. 학교상황

- 공부는 보통 정도 - 운동좋아함 - 희망 : 등산가, CAR RACER
- 중 3때부터 음악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무단결석하고, 고 1때에 무단결석과 가출이 되풀이 되면서 중퇴 당했다. - 특별히 미운선생은 없으나, 학교 교칙이 너무 엄격한 것 같고, 상담선생은 한번 만났으나, 성의가 없어서 다시 만나지 않았다. - 유기정학도 몇 번 받음.

라. 가정과 개인

- ① 1974년생 (19살), 남자
- ② 공고 1년 중퇴
- ③ 가족관계
 - 어머니와 동거, 부친 별거(국민학교때 부터)
 - 페인트 가게함. → 건축업자
 - 형은 천안서 → 기계선반공
 - 누나는 → 회사에 다님(서울서) 수유리에 삼.

사 례 25.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2년생(21살), 남자
- ② 학력 : 고 1 중퇴(1988)
- ③ 가족관계
 - － 부 : 양복점 경영, 기술자
 - － 모 : 전에 가게운영
 - － 누나 : 회사에 다님 - 동생 대학보내기 위해 진학포기
- ④ 고 향 : 전라도
- ⑤ 취 미 : 운동하기, 그림그리기

나. 학교생활

- 장안동에 살면서 오이동 ○○중학 다니고, 재미있었음.
- 고입 때 □□공고에 신청했다가 낙방, 천호동의 △△고 야간에 입학.
아이들 수준이 다르고 별로 재미없었음.
- 한 아이와 싸우다 때렸는데 알고있던 선배여서, 선배들이 여럿이 자
기를 때려 준다기에 겁이나서 학교 그만둠.
- 중 3때 IQ검사 120이란 얘기를 상담선생에게 들었으나, 공부 잘 안하
다가, 중 3, 2학기에 벼락 공부해서 성적이 좀 올라서 욕심내고 □□
공고에 입학신청 했다가 떨어짐.

다. 그후생활

- 식당보이, 공사장 막노동 등 여러가지 일했음.
- 공사장 막 노동할 때 추운 겨울 두달 큰 고생하고 세상살이가 쉬운데
아니라는 걸 깨달음.
- 엄마가 TV에서 직업훈련원 모집광고 보고 입학신청함.
- 보호 관찰소에 갔다가 수감명령 받고 화곡동 천주교회에서 2주일간

교육 받았는데 좋은 선생들의 재미있고 뜻있는 얘기 많이 들었음.

○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의 신세도 많이 짐.

라. 현재생활

○ 단체생활에서 구속감 느끼는 아이들이 많은 편이지만, 자기는 막노동 하며 고생을 해 봐서 괜찮음.

○ 저녁 때 장기도 두고, 노는 시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함.

○ 음식이 별로 맛이 없음.

○ 일류 조리사가 되어 성공할 계획이고, 우선 지난 4월에 검정고시 보았으나 낙방, 8월에 다시 볼 계획이고, 나중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가고 싶음. 공부를 좀 하고 싶음.

○ 선생 좋고, 환경 좋아 만족함.

○ 아직도 노는 친구를 만나서 놀면서도 그들에게 충고함.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변했다는 등 얘기해도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음.

사 례 26.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 : 1973년생(20살), 남자

② 학력 : 중 3 중퇴

③ 가족관계

— 부 : 국민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이민감 — 현재 슈퍼마켓운영 —
을여름 한국을 방문예정 —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기억밖에
없음.

— 모 : 밖으로 나돌아 다님 — 딴 남자와 사귄 — 아버지 오면 야단
날까봐 걱정

— 남동생 : 공부잘함 — 고교생

④ 취 미 : 운 동

나. 학교생활

— 미운선생 : 국사선생 — 차별대우

— 이성교제 : 여학생과 동거생활

— 퇴학이유 : 가출, 동거생활, 장기결석

— 중퇴하기전 : 교칙위반 없었음.

— 노는 아이세대로 진입 : 학교가 재미없음

집도 재미없고, 친구가 좋아서

다. 학교밖 생활

○ 경찰서에 간일 있음.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에 간일 없고

○ 카페등에서 돈벌이, 노점상, 막노동

○ 친구의 도움받음.

라. 현재생활

○ 엄마의 권고로 입학

○ 친족이 여기에 근무 — 정보얻음

- 아침 일찍 일어나기, 단체생활, 기합등이 부담됨.
- 10년후 - 일류 회사 될 것임.
- 후배들 - 졸업 후 직업학교에 들어 오라고 하고 싶음.
- 친구들 경우(중 3때)유혹 많음.

마. 면접자 의견

- 부부관계에, 가정에 문제있다.
- 연애 신물난다
- 중 3때 친구영향 - 부업해서 번 돈 잘 쓴다.
-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 실제로 돈 벌수 있고, 자유롭게 살수 있는 현실이 문제이고 학교가 재미없음.

사 례 27.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 : 1974년생(19살), 남자

② 학력 : 고 2 중퇴

③ 가족관계

부와 모 별거 : 부와 아이들 동거, 부는 술 주정꾼

누나 1 - 기혼

누나 2 - 미혼 22세로 따로 삶 (친구와)

④ 취미 : 운동, 음악

⑤ 엄마 정 그리워 하면서 성장

나. 학교생활

○ 이성교제

○ 돈 벌어서 오토바이 사고싶어서 학교 그만둬

○ 중퇴전 교칙위반, 처벌 없었음.

○ 상담한 일 없고

○ 경찰서등에 가본일 없고

○ 성적 - 보통

다. 현재생활

○ 훈련원 - 매형 동생이 훈련원 목공예과 졸업하여 소개함.

○ 잠자기 불편 - 술, 담배 냄새, 시끄러워서

○ 학교 - 선배가 후배 대하기 너무 엄하다 - 이것 고치길 요망

○ 희망 - 연예인, TV탈렌트, 조리학교 졸업하면 누나가 오토바이 사준
다했고, 그후 연예인 학원 다닐 예정.

라. 학교 나온 후 상태

○ 취직 - 웨이터 - 어려움 느낌

다. 면접자의 인상

- 청소년 — 정신연령 어리고, 엄마대신 누나에 크게 의존
- 얼굴이 예쁘장하고 의지가 약한것 같음.
- 중퇴 이유는 엄마가 아버지와 별거하고, 아이들 곁을 떠난 것

사 례 28.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5년생(18살), 남자
- ② 학력 : 고 1중퇴
- ③ 가족관계
 - 부 - 버스기사
 - 모 - 공장 노동자
 - 할머니 - 함께 삼
 - 형 - 직업훈련원에 같이 다님
- ④ 취미 : 음악

나. 학교생활

- 성적은 보통
- 중 2때 대구서 전학
- 고 1때 여자친구 사귀
- 가난하고, 성적도 나쁘고, 교칙위반해서 자퇴함.
- 학교 다닐때, 교칙위반한 적 없고,
- 한 번 가출한 적 있고
- 친구의 친구 통해 노는아이들 세계에 들어감
- 경찰서에 한번 간적있음.

다. 현재생활

- 아버지의 친구소개로 직업훈련원에 입학
- 훈련원 생활 별 불편없고
- 학교선생님들 :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 사회 : 아이들이 맘놓고 놀데가 없다.
- 후배들 :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해라

- 장래희망 : 10년후에 일류 기술자 되겠다.

라. 학교밖 생활

- 취직 : 신문배달, 레스토랑 웨이터
- 나쁜길로 간 친구는 : 공부도 잘 못하고, 여자친구와 선배들의 영향, 술, 담배에 습관되고, 가정문제 (예 : 형이 동생 못살게 굴거나, 무관심) 등을 이유로 나쁜 길에 빠진다.

마. 면접자의 소감

- 전체적 인상은, 조용하고, 수줍고, 순진한듯 하고
- 현재의 심리상태는 차분히 안정된 듯
- 제일 필요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 장래는 낙관적이고
- 문제의 핵심은 가난과 학교선생, 그리고 친구의 영향인 듯

사 례 29.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 : 1971년생(22살), 남자

② 학력 : 고 2년 중퇴(서울)

③ 가족관계

부 - 음식점(사철탕집)운영

모 - "

형 - 재대 - 재수생

동생 - 대학교 학생

집 : 샛월세, 신림동

④ 취미 : 농구, 등산

나. 학교생활

○ 중 3까지는 상위그룹, 고1부터 중간

○ 친구들 : 조속한 사람들

○ 이성교제 : 학교 그만둔 뒤에 사قم. 동거.

○ 중퇴 전 교칙위반 없음

○ 마을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노는 아이들 세계에 들어감

○ 중퇴하기 전 담임선생님과 상담한 적 없음.

○ 가출하면서 학교 그만둠. 학교가 싫어서 가출함. 의미없는 내용만 가르침.

다. 학교밖 생활

○ 가출해서 2년 동안 첫 6개월 혼자 지내다 그 다음 6개월 여자친구와 동거, 임신, 애기 땀. 6개월 후에는 집에 연락함. 2년동안 10가지 직업을 가짐(봉제, 미용, 막노동, 전자회사, 보석상, 주유소, 신문배달, 웨이터, 술집...)

○ 여자친구 : 동생과 미용학교 동기생

- 애기 떼었을 때 매우 괴로웠음.
- 학교 그만두었을 때의 부모반응 : 충격, 안전만 바람. 어머니 쓰러지고.
- 친구의 도움 많이 받고
- 젊은이들 가정문제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동안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나쁜 일을 하게 됨

라. 현재 생활

- 미용사로 일하다가, 직업 바뀌야겠다는 생각들어 구청에 알아보고, 직업훈련고를 알게 됨.
- 기술배우고 싶어서 연석과에 입학.
- 훈련원생활 : 직원의 관료적인 태도가 못마땅
- 현재 고민은 진로문제
- 상급학교에 다시가고픈 마음 없음.
- 선생이 아이들에게 끌려가는 현상 바뀌야
- 사회와 국가는 민족성, 자주성 지켜야. 같은 처지에 있음.
- 후배들에게 : 학교는 다니면서 좋은 친구만들고, 직업반 들기름
- 10년후 :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기술자.
- 근로청소년들의 의식화 모임인 “○○○○청년회”에 들어 저녁마다 친구들과 만남.
- 현대사에 관한 책 좀 읽고 신문 열심히 읽음.

마. 면접자의 소견

- 피면접자의 인상 : 조용하고, 느린 말씨. 깊은 생각, 키크고 깡마른 편.
- 심리상태 : 숙성, 정상, 비판적
- 장래예상 : 아주 낙관적·의식화된 청년
- 문제의 핵심 : 입시제도때문에 학교가 싫어지고 판매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신은 공부안하니 외로워 동네 친구들과 사귀게 되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

- 총평 : 상당히 놀랍고 (의식화 청년, 단체에 가입사실), 공부 열심히,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보임.

사 례 30.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4년생(19살), 남자
- ② 학력 : 고 1 중퇴
- ③ 가족관계
 - 부 : 45세. 간이나뿔, 술주정, 농사하다가 지금은 공장일(서울)
 - 모 : 식당에서 일함. 40세. 부모 사이 싸움이 잦음.
 - 동생 : 중 3. 공부안해 걱정
 - 누이동생 : 중 1
- ④ 취미 : 운동
- ⑤ 집 : 샅월세, 가난

나. 학교생활

- 성적은 보통
- 영어선생이 미웠음. 아이들을 막 때려서
- 여자친구 : 같은 고교생, 지금도 가끔 만남
- 학교 그만둔 이유 : 취직해 돈벌려고 가출해서 서울로 옴. 친척 집 신세짐.
- 중퇴하기전 : 정학받은 일 있음.
- 그 전에 가출 1번 한 일 있고
- 친구들과 의정부에 놀러갔다 오려니 밤인데 돈없이 택시탔다고 경찰서에 간일 있지만 집에서 돈 잤다 줌.

다. 학교 밖 생활

- 카메라 부속품 공장에 취직해서 한달 일하다 차정비 공장으로 옮겨서 6개월 일하다, 기계조립 공장으로 옮겨서 1년 일했는데 한달에 35만원 받음.

- 나쁜일에 들어선 사람들 : 나쁜 친구와 나쁜 환경이 영향, 학교 분위기도 나쁨.
- 부친은 술 적게 마시고, 모친은 부친에 더 친절했으면 좋겠고,
- 선생은 아이들을 때리지 말았으면
- 사회와 국가 : 물가가 너무 비싸다.

라. 현재생활

- 라디오 광고로 직업훈련원 소식듣고, 기술배우려고(연삭에 경험있고 취미 있음) 입학. 연삭과에는 밀링, 선반, 드릴링이 포함됨.
- 큰 고민은 아버지 건강 나쁜 것, 동생 공부 안하는 것
- 정규 학교 갈 생각없음.
- 같은 처지의 후배에게 : 참고 졸업하라고
- 장래희망 : 10년후 일류기술자 되겠음.

마. 면접자 소견

- 처음엔 수줍고, 말을 약간 더듬고, 다음엔 자유롭게 얘기함.
- 침착하고, 조심성 있어 보임.
- 장래예상 : 집 걱정할 정도로 책임감 있음. 장래가 낙관적으로 보임.
- 문제의 핵심 : 농촌의 가난한 환경 집안

사 례 31.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4년생 (만 18세) 남자

② 학력:고1 중퇴 (자퇴)

③ 출생지:서울

④ 가족관계

－ 부:돌아가심

－ 모:상업

－ 누나:2명 (둘 모두 시집가서 - 동거 - 큰 누나는 밀양에, 작은 누나는 안양에 산다.)

－ 형:1명 (인천에서 동거하며 화장품 판매업)

흑석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줄곧 한곳에서 살아 왔다. 어려서는 자가용도 있었고 집이 꽤 부유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까지는 별 불화없이 가정이 잘 유지가 되었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간을 앓으셨는데 계속 입원해 계시면서 수술비, 약 값 등으로 재산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국민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 때부터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4형제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악바리 같이 일하셨는데 정작 4형제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돈버는데만 너무 급급하셨던 것 같다. 그 때 자신이 국교 2년, 형이 국교 5년, 누나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키가 크고 훗날했던 형은 그 때부터 cafe waiter노릇을 하며 돈을 벌면서 학교도 잘 안가고 노는 길로 빠졌다. 누나들은 중학교 대충 마치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room salon을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은 국민학교 2학년 때라서 처음에는 가정이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점점 집에 마음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 동네 건달들이나 학교에서 노는 애들과 어울려 담배도 좀 피워보았다.

중학교에 진학하여서는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가솔이나 정학 같은 말썽은 일으키지 않았다. 이 무렵 형은 카바레 웨이터로, 누나들은 room salon hostess로 나가면서 집에서 나가 살고 있었다. 그나마 그럭저럭 유지되어오던 가정의 완전히 깨진 것은 고 1때 어머니가 웬 아저씨를 집에 데려 오면서 부터였다. 어머니와 그 아저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나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부남에 아이도 있었고,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집에 들어와 살았다. 그 때부터 그 아저씨 부인이 집에와서 행패부리고, 엄마와 싸우고, 새벽녘에 자기 남편 찾는다고 집안을 뒤지고 다니거나, 밤이고 낮이고 집으로 전화를 하곤 했다. 그런일들, 집안 분위기, 어머니, 누나, 형이 너무 지긋 지긋해져서 집에서 나와 며칠동안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텅 비어 있어, 누나에게 찾아가 보니 어머니가 누나네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 아저씨 부인이 간통죄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은 엉망이라 마음도 안정되지 않고, 집에 있기도 싫고, 공부는 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학교를 자퇴하고 나왔다.

한마디로 우리 집안은 엉망이다. 지금 그 아저씨가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아저씨 부인이 가끔 전화해서 괴롭힌다. 형은 카바레 웨이터하다가 형보다 8살 많은 여자랑 만나 동거하면서 그 여자가 경영하는 화장품 가게를 함께 하고있다. room salon다니던 누나들 중 하나는 4살 연하 남자와 밀양에서 동거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도 안양에서 동거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에 대해 크게 나쁜 감정은 없다. 다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또 나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어머니와 함께 우리집에서 살고 있는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아저씨’라고 부른다. 정정당당하게 어머니와 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

나. 학교 생활

공부에 크게 흥미는 느끼지 못했었고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였다. 고1때 자퇴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켜 본 적은 없었고, 미팅은 몇번 했지

만 한 아이를 오래 사귀어 본 적은 없었다. 친한 친구들은 중학교 동창들로 한 동네에 살면서 항상 함께 다녔고 지금도 그 친구들과 자주 만난다.

— 학교 다니는 친구, 직장 다니는 친구 등 다양. 가출은 학교 그만 두기 직전에 한번 해 보았다.

다. 그후 생활

학교를 그만 둔 후 구두닦이, 껌팔이, 신문팔이, 막노동 등 닥치는대로 안 해 본것 없이 다 해 보았다. 그러다가 친구와 종로에 나가 돌아다니다 웨이터 구하는 cafe가 있어 취직했다. 본래 성격이 한가지 일에 꾸준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 취직한 그 곳에서 2년 동안 웨이터 일을 했다. 주인 아줌마, 동료 웨이터들, 주방 사람들 등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가족 같이 친해져 그 사람들이 참 좋았고,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여자친구는 그때 학생이었는데 근 1년반 가까이 사귀었고 진심으로 좋아했었다. 사귀던 중에 여자친구가 집에서 나와 1주일 정도 자취방에서 함께 지냈는데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 앞으로 이 여자친구와 결혼 할지 안 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좋지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여자친구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고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지만 지금도 자신은 그에게 몇몇하다.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좋았지만 1년 정도 하다보니 회의가 들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굶신거려야 하고, 자기보다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대해도 참아야 하는 것들이 싫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신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그 사람들이 토해 놓은 것을 무릎 꿇고 앉아 치우며 바닥을 닦을 때 굴욕적이다시피 했다. 한 번은 술이 만취한 손님이 자신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모욕하는 말을 해서 따라 나가 때려 주었는데 하필이면 경찰서 앞에서 그러는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그 때 한 번 뿐으로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일을 평생한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생산적인 일도 아니고 최고로 많이 올라가야 지배인인데 그나마 cafe경영이 주인이 자주 바뀌어 안정적이

지 못하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곳을 그만 두고 친구가 다니는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해서 정비일을 배웠는데 손에 기름밥 묻히고, 일이 고 되기는 했지만 마음은 더 편했다. 3개월 정도 일을 배우다가 이곳 직업 훈련소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입학하게 되었다.

라. 현재 생활

이곳은 정비공장에서 함께 일한 친구로부터 알게되었다. 정비일이 이미 해 본 일이라 익숙하고 흥미도 있고 전망도 있다고 해서 정비과를 택했다. 오는 7월 26일 정비사 자격시험이 있는데, 꼭 합격하고 싶다. 자격증을 따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대우도 좋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곳 생활은 처음에는 침대생활, 기상시간 등이 익숙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생활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 함께 방을 쓰는 용접과 애들 중 하나와 성격이 안 맞아 마찰이 있었으나 그 애가 출퇴근으로 바뀌어 기숙사에서 나간 이후로는 애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 여기서 만나는 애들은 학교안에서 마찰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깊이 사귀려 하지는 않는다. 현재 제일 신경이 쓰이는 일은 7월 26일 자격시험으로 공부한 지가 워낙 오래되어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다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합격선에서 2~3점 모자라는 정도의 점수 밖에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

다시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제 다시 고 1로 들어가 졸업하고 진학하고 군대가고 할 생각하면 딱딱해지기도 한다. 이곳을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해 세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자격증을 따서 취직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곳 훈련원에는 ‘판금’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마치고 상계 직업 훈련원에 다시 취직해서 판금과정 자격증을 따려는 것이고, 세번째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려하는 것인데, 내년에 상계동 직업훈련원을 들어가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낮에 훈련원 다니고 밤에 학원을 다닐까 생각 중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좀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겠다. 우선은

7월 자격시험에 충실해야겠다.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모습도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비계통 자격증을 모두 따서 정비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다. 좀 규모가 작은 공장이라면 공장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학교를 그만두고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들과 자기와 다른 점이라면, 첫째는 그 사람들은 우선 땀 흘려 일하는 것 보다는 편히 벌어서 편히 쓰면서 그저 즐기면서만 살려하는 점과 두번째로는 자신의 미래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하지않고 되는대로 살려하는 점이 다르다.

마. 면접자 소견

피면접자의 전체적인 인상은 밝고 명랑하며 현재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들어오기 이전의 웨이터 생활이나 이성교제에서 여자친구와의 관계, 또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자신에게 닥친 것,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끈기를 볼 수 있었다.

피면접자의 문제의 시작은 가족안에서의 문제로, 어머니의 불륜관계, 형 누나들의 성실하지 못한 생활에서 받았던 타격이 큰 듯하나 현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감정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아저씨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업 훈련원에서 생활부원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면접자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도 양호하다.

사 례 32.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1975년생 (만 17세) 남자

② 학력:중2 중퇴 (퇴학)

③ 가족관계

－ 부:회사원

－ 모:돌아가심

－ 자:누나 2명 (큰 누나는 시집가고, 작은 누나는 학교다님)

아버지는 연세가 51세시고 어머니는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다. 큰 누나는 시집가서 부산에서 살고있고, 작은 누나도 큰 누나와 함께 부산에서 산다. 현재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암사동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시고 엄격하시다. 아버지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 학교 생활

어렸을 때 부산에 살다가 국민학교 입학 무렵 서울로 올라왔다. 부산에 살 때 아버지는 항상 늦게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매일 밖으로만 나다녔다. 부산은 항구도시라 마약 같은 것도 들어오기 쉽고, 질 나쁜 사람들도 많았다. 동네 형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다섯살 때 담배를 처음 피워봤다. 담배를 배우고 나니 대마초도 주었다. 어지럽고 기분도 좋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아버지 모르게 담배를 피웠다. 서울에 올라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말썽을 일으켰다. 싸움을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 애들을 혼내주는 것은 자기의 몫이었다.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친구는 6학년 때 성목이라는 애로 반 애들을 협박해서 돈 뺏고, 특하면 애들 때리고 하던 아이였는데, 6학년 들어와서 둘이 크게 싸운 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친해졌다. 둘이 어울려 다니며 아이들 돈 뺏고 패싸움하곤 했는데 파이프 같은 무기도 썼다. 지금 성목이라는 친구는 사람을 질러서 소년원에 가 있다.

중학교 올라와서도 글도 못 읽고 공부는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노는 애들하고만 어울려 다녔다. 본드도 마셔보고 애들이랑 남의 집도 털어봤고, 지나가는 사람들 협박해서 돈도 뺏어보았다. 싸움은 자주했다. 이런 저런 일들로 퇴학 당하기 전까지 유기정확 3번 맞아봤고, 가출도 여러번 했었다. 퇴학당하게 된 사건은 반 아이중 하나가 본드를 마시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성질이 나서 의자로 유리창을 켰 후 그 파편으로 그 애를 찔러서 많이 다쳤다. 유기 정확을 여러번 맞은 뒤라 이 사건으로 인해 중 2 때 퇴학 당했다. 그 애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건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하던 졸업장이라도 따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못해서 죄송하다.

다. 그후 생활

○○아동상담소에 맡겨져 1년 동안 교육받았는데 도움이 안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학교를 그만두고 피혁공장, 의류공장, 레스토랑 웨이터 등 여러 직업을 전전 2~3달이 보통 그 이상 지속된 직업은 없었다.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은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좋아서 기일 저일 했다.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게 좋았다. 안 좋았던 기억은 금년 초 훈련소 왔다가 재미도 없고 별 거 없는 것 같아서 친구와 세 명이 훈련소에서 도망쳐 대림동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친구사이에 오해가 생겨 자기말고 다른 두 친구가 싸웠는데 각목을 찔기 때문에 많이 다쳤다. 이 일로 공장에서 나와 훈련소에 다시 들어가도 되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4월 10일 다시 들어왔다.

라. 현재 생활

○○아동상담소에서 교육 받을 때 그곳 선생님이 훈련소에 가보는 게 어떻냐고 해서 왔다(상담소에서 훈련소에 위탁한 형식). 아버지도 학력이 없어도 자격증을 따면 된다고 그러셨다. 이곳 생활은 4월에 다시 들어온 후 꾸준히

하고 있다. 수업 마치고 도장가서 킥복싱을 배우고 운동을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 같다.

여기 선생님들은 좋다. 국민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자신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항상 야단치고 때리거나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관심도 많이 보여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잘 해주신다.

현재 제일 힘든 점은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영어로 된 용어가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론 시간에 못 알아들은 것은 실기 시간에 말로 설명을 듣지만, 빨리 글을 배워야겠다. 7월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 데 따고싶다.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기는 하지만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10년 후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목표이나 킥복싱이나 health를 더 배워 대회에 나가보고싶다. 운동을 계속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마. 면접자 소견

면접 도중 내내 eye contact이 잘 되지 않았고, 시종 고개를 푹 숙인 상태. 말하는 내용이 조리가 없고 질문의 내용과는 pint가 맞지 않는 대답을 종종 함. 하지만 면담이 진행되어 가며 eye contact이 개선되어가고 웃는 모습을 보임. 직업 훈련원에 들어온 후 한번 도망나갔던 경험이 있음. 그 때는 얼마이는 생활이 싫었고 배우는 내용도 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함. 현재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태이나 글씨를 읽을 줄 몰라 흥미를 붙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기술 교육 이전에 한글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대마초나 본드의 흡입 등으로 지능이 떨어진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약간 어눌한 듯함. 피면접자의 문제의 시작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돌보아 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집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국민학교, 중학교, 또 그이후의 생활에서 함께 비행을 하던 친구들과 연결이 끊기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사 례 33.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 이:18세
- ② 출생지:서 울
- ③ 아버지 직업:사 업(건설업:설계, 지도)
- ④ 취 미:음악듣기
- ⑤ 생활수준:상

가족관계는 오빠와 딸 넷으로 둘째이다. 가정 분위기는 아버지가 엄격하고 이해를 못해 주고 사소한 잘못으로 아버지에게 많이 맞는다. 가족간에 대화와 애정을 못 느끼며 집안에서 답답함과 삭막함을 느꼈었다. 또한 언니도 무서워 언니도 "나가는 애들"에 속했었는데 철이 들고 후회를 많이 하여 피면점자에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 말을 안 들으면 수시로 때리고 무섭고 엄격했다고 한다.

나. 학교생활

"나가는 애들"에 속하며 주로 인적이 드문 일요일 저녁에 고대 캠퍼스나 "뽕뽕산"에 가서 이성친구와 "난장끼기"(다소 거칠고 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일명 시비결기가 이에 해당한다)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놀기도 한다.

학교의 분위기는 엄격하여 용의복장검사가 엄격하고 스포레이를 조금만 뿌려도 그 자리에서 앞머리를 찢리는 등 엄격한 규율의 학교였고 선배인 "노는 애들"에 속하는 언니들이 수시로 주먹과 발길로 때려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다고 한다.

다. 처벌 상황

피면점자는 두 번에 걸쳐 집을 가출하였다. 첫 번째는 1991년 4월에 친한

친구 3명이랑 가출하기로 모의하고 가출을 했으며 남자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해 준다고 부추겨 룸살롱의 접대부로 한 달 동안 잠적하였다. 친한 친구들은 거처를 알았지만 피면접자의 간곡한 비밀보장의 부탁으로 피로웠으나 비밀을 지키기로 하였다. 학교에서 한 달 이상 소식도 없어 장기결석이 되고 어머니와 담임 선생님이 열심히 거처를 수소문했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경찰에서 룸살롱의 점원으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 경찰에서 학교로 연락을 하였다.

즉시 학교로 불려와 학생부에서 몽둥이 수습대를 맞고 교감 선생님에게 불려 왔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로 전학갈 것을 종용하였다. 집에서의 통사정으로 정학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다시 얼마 후에 제가출하여 돌아 왔으나 학교에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 다른 학교로 전학갈 것을 강요받았다. 할 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도했으나 어느 학교에서도 받아 주지 않아 자퇴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간다.

라. 자퇴 후의 생활

가정에서는 가출이 두 번째라 첫 번째 처럼 충격은 아니고 잡아 와도 또 나갈 것이라며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며 더 이상의 신경을 안 쓰고 포기했다. 학교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배려할 수 없는 지경에 와 버려서 손을 뗐다. 피면접자는 공부는 더 이상 하기 싫고, 한편 학교 생활이 부럽고 학교 안 다니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아 학교에 대한 그리움은 전혀 없고 돈 벌어 쓰고 싶고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추호도 없으며 아버지의 구타와 잔소리, 간섭을 생각하면 여기가 훨씬 행복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 파마를 하고 귀걸이와 짙은 화장을 하며 현재의 관심은 돈과 이성에 있다고 한다. 룸에 있는지 일년이 넘었지만 버는 대로 쉽게 써서 돈은 거의 모으지 못하고, 좋은 남자를 건지면 결혼할 생각이며 앞날의 전망 속에서 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순간적인 삶을 위해 다른 여타의 것은 망각한 채로 살아간다고 한다.

마. 장래희망과 주위에 바라고 싶은 말

꼭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공부만을 치열하게 하며 각박하게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더 이상 학교 다닐 자신도 없고 학교에서도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 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 더 이상 학교제도에, 가정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각자의 인생인데 모두가 메사를 계획을 하고 한 목표만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른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외국에서는 성문제에 깊이 개입 안 하는데 우리는 한 동네에서 남자친구랑 걸어만 가도 주위에서 수군거린다. 근본적으로 어리다고 치부하고 차단하니까 호기심에서 해보고 싶고 그러한 욕구가 강해진다. 그렇다고 어른들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완벽한가? 우리에게 놀 장소도, 쉴 곳도 제공하지도 않고 분위기있는 카페에 왔다는 사실만으로 나쁜 학생으로 단정지어 버린다. 우리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다. 풍부한 감성이 있고 이성을 그리워 하는 애절한 심정이 있으며 뜨거운 정열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우리를 나무라기 전에 어른들 자신부터 추수하고 반성해야 한다.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학교와 이해, 간섭과 억압이 아닌 따뜻한 관심이 있는 가정을 제공했는가?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삶을, 현재적 삶을 사랑한다. 더 이상 그 무엇을 위해 유보하는, 현실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바. 면접자 소감

가출로 인한 정학으로 다른 학교에서 받아 주질 않자 다시 룬살롱 접대부로 일한다는 사실이 면접자에게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피면접자는 같은 "노는 애들"의 한 사람으로 씩씩하게 친구가 그 동안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있게 피력하였다.

주위에 바라고 싶은 말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들으며, 면담자는 청소년의 문제가 있기 전에 바로 어른의 문제가 있고,

많은 부분 거의 모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대화의 단절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행위 결과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제약조건을 주의깊게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할 자세대인 어른들은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고 아파하며 성장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세대차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또한 정확이후 방황하는 일부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흥업소로 잠적해버렸는데 그들이 미래의 전망 속에서의 삶의 형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정과 학교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도피처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꾸지람으로 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낀다는 것이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가출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할 장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정책으로서 퇴학 직전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상담, 교육적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퇴학생학교의 설립도 요청된다.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마저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곧장 아무런 준비 없이 도피처로 일반 사회의 불건전한 환경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는 친구처럼 자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 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다른 많은 학생 몰들인다고 방치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그들이 학교교육의 희생자임을 함께 통감하면서 올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의 시기에 그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삶의 중요한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시기에 그들이 가져야 될 삶이 전면적으로 성숙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학교는 가정, 사회, 언론이 전혀 갖지 못하는 교육적 기능을 다하는 배움과 놀이로서의 전인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지적으

로 뛰어난 학생만이 교육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진실로 추구하는 전인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여 그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돕고 그들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선언적인 구호 이상의 사회와 학교와 가정의 상보적인 도움으로 전면적인 의식개혁이 시급하다.

사 례 34.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3년생(20살), 남자
- ② 학력 : 고 1 중퇴
- ③ 가족관계
 - 부 : 건축업자
 - 모 : 주부
 - 형 : 입대
 - 누나 : 대학생
- ④ 평범한 집안, 보통수준의 경제생활
- ⑤ 할머니와 동거(전예) - 지금은 고모와 동거

나. 학교생활

- 공부 잘했음 - 수학 1등, 영어 끝찌
- 학생 여럿이서 다른 노는 애들과 패싸움 - 오토바이 뺏어 달아나다 강도로 붙잡힘.
- 소년 감별소에서 보호관찰 2년으로 결정됨.
- 퇴학당함

다. 그후생활

- 공사장 막노동, 노점상 등 여러가지 일을 함.
- 집에서 놀기도 함.
- 3월에 조리과에 입학

라. 현재생활

- 집에서 통학함 - 기숙사 생활이 부자유스러울 것 같아서 : 감별소 생활 6달에 자유의 가치 배움.
- 검정고시를 준비함.

- 학생들에게 학칙이나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가르친다면, 퇴학받을 일을 안하게 될 것 같음.
- 경찰의 비리 비판 — 소수가 잡혔을 때는 돈 좀 받고 풀어주려고 하다가 한 학생이 경찰 유도심문에 걸려 다른 애들을 붙잡히게 하고, 풀려난 다음, 또 신문에 사건이 기사화 되자, 한 건 올리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 청소년비행의 제일 큰 원인은 가출 — 놀러 갈데가 없고, 집에도 재미가 없음.
- 운동 좋아하고, 책과 신문 열심히 읽음.
-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선생들(특히 교장, 교감)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많은 학생들이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임.

사 례 35.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1년생(22살), 남자
- ② 학력 : 고 1 중퇴
- ③ 가족관계
 - 부 : 출판업
 - 모 : 가정주부
 - 부모 : 사이가 안좋아 자기가 어릴 때 자주 다툼.
 - 형 : 대학생

나. 학교생활

- 중 3때 너무 재미 있어서, 고교 때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학교다니기 재미없었음.
- ○○고 태권도부, △△ 아이스하키부에서 운동선수로 1학년 다님.
- 중 3때 같은 학교에 간 친구들은 공부 잘하고 문제없고, 혼자서 고교에 입학한 친구들은 문제아가 됨.
- 1988년에 싸움해서 학교 그만둠.

다. 그후생활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 있었음.

라. 현재생활

- 군대갔다 온 형들끼리 전공별로 패거리를 만들어 신경전을 벌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기숙사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답답함. 처음 두달은 괜찮았는데 석달째 하니까 공부 안됨.
- 잠자기 전 꼭 술을 마셔야 잘 잠. 술 주정을 안함.
- 술에 의존해서 사는 것 같은 친한 친구가 같은 과에 있음.
- 장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몰자 일류조리사가 되어서 밥벌이

를 하는게 독립과 자유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라 답해줌.

- 혼자서 여행다니고 싶다 함.
- 책읽기, TV보기, 신문읽기 등 다 재미없다고.
- 그저 운동만 재미있다 함.
- 태권도 2단, 권투, 합기도 등 고루 해 봤음.
- 후배들에게는 후회되는 일 하지 말라고.

사 례 36.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 : 1973년생(20살), 남자

② 학력 : 고 3 중퇴

③ 가족관계

부 : 교통사고로 부상 - 고령, 부부가 어린이 용 가위 만드는 가내수공업

모 : Bus표 팔기 - Token Box

형 : 전문대 다님 - 부업해 부모 도움

누나 : 일다님

나. 학교생활

○ 중 3때 - ○○중 - 야구선수로 △△고에 뽑힘 - 소외감 - 문제상기

○ 흡연해서 - 3일 정학

○ 패싸움 - 상대편 크게 다침 - 퇴학

다. 학교 밖 생활

○ 보호소년원 생활 10개월

○ 출소하자마자 훈련원 다니기 시작

○ 면회온 엄마의 고마움 느낌

○ 이제는 많이 철이 들

○ 소년원에서 5살 위인 간호원 누나의 도움 받음 - 지금도 연락있음

라. 현재생활

○ 3달의 기숙사생활 재미없어 집에서 통학하기로 함

○ 훈련원 끝난 후 밤 8~12시 까지 부업해서 용돈벌어 부모돕기

○ 10년뒤 - 일류 조리사 될 희망

마. 면접자 의견

- 침착, 차분한 성격 - 부모 위하는 마음있고, 지난일 후회
- 노는 아이들 - 노는 생활 오래되어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함.
- 면담 시 만족 (매우)
 - * 학교 옮긴게 문제의 시작

사 례 37.

가. 가정과 개인

- ① 1969년 2월 8일생, 24세, 남자
- ② 거주지: 고척동(전세)
- ③ 학력 : 고1 중퇴(퇴학)
- ④ 가족관계
 - 부(공원)
 - 모(공원)
 - 여동생들(22세;회사원, 17세;고2)
- ⑤ 취미 : 혼자서 돌아다니기
- ⑥ 군대 : 면제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고 부모는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서울로 국 2 때 올라왔으며, 국2 때부터 국4때까지 이사를 자주 다녀 친구들을 사귀기가 어렵다가 국4 때 개봉동으로 이사가면서 동네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이 때 사귄 친구들은 지금까지 만나고 있으며 비밀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하다. 국4 때 는 동생과 집앞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들려 부모한테 몹시 맞은 적이 있어 그 다음부터 도벽은 없어졌다. 국민학교 전반적인 생활은 재미있어 선생님이나 성적면에서 별 문제는 없었다.

중1, 2 때는 선생님과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다가 중3 때 담임이 체육선생님이었는데, 담임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았고 자신도 담임을 싫어해 사사건건 충돌이 많아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전반적인 중학교 생활은 충실한 편이었으나 성적은 나빴다. 집에서도 온순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었다.

공부는 너무 못해서 대학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았고 자신도 흥미가 없어 공고를 시험을 보았으나 야간에 불자 창피해서 아예 입학을 하지 않고 재수

를 했다.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어 술이나 담배를 배웠고(본드는 해 본 적이 없다) 남의 돈을 뺏어 나이트를 가거나 하는 등 유흥비를 마련하면서 놀다가 어느 정도 시험에 자신이 생겨 6~7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시험을 보아 인문계 남녀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 1 때 자신은 다른 애들 보다 1살이 많아 좀 학교 생활이 거북했으며, 담임은 자신의 고향사람이었지만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편애하는 등 위선자 같은 사람으로 느껴져 아주 싫어했으며 담임과 마주 앉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 였다. 이 때 친구들이 하나, 둘씩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보니까 자신도 그만 두고 싶어져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에게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말을 꺼냈다가 몹시 혼나 1주일 동안 집을 나가있다가 붙잡혀와서 계속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부모도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담임은 졸업은 해야한다고 설득하다가 안되니까 자퇴서라도 제출하라고 하셨으나 그 때 당시는 담임이 너무 싫어 이를 거절하자 학교에서 퇴학처리를 했다. 자퇴 후 전자회사에 3개월 정도 다니기도하고 룸싸롱에서 6개월정도 다니기도 하는 등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유통회사에서 약 1년 일하고 2년 정도는 일일 노동을 하였다.

자신은 술버릇이 너무 나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등 파출소는 많이 드나들었고 경찰서도 4, 5번 정도 들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물어 주거나 즉결을 받아보는 등 많이 있었다.

부부사이나 형제들간에 별 문제 없고, 자신이 술을 많이 먹은 날에는 집에서 부모나 동생들에게 큰 소리를 많이 내므로 부모나 동생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보다 하고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것 같다.

자퇴 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으나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따려고 결심을 했었으나 지금은 전혀 모르겠다.

나. 현재의 생활

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집안이 어려운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 다니기가 어려웠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가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정비과를 택하였다. 공부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이론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따라가기도 힘이 들지만 실기는 재미있고 예비역들과도 사이는 원만한 편이어서 기숙사 생활은 별로 힘들거나 하지 않지만 자신은 예민한 편이어서 옆에서 시끄럽게 굴면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통학하고 싶었으나 집에서 통학을 하다보면 끈기가 없어 곧 그만 두려고 할 것이니 아예 기숙사에 붙어 있으라고 해서 자신도 그냥 남아 있다. 자신은 집에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탓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신이 늘 그래 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주말에 집에 가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못다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술마시며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데 요즘은 자신의 술버릇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금주를 하고 있다. 앞으로 자격증을 따고 알선해 주는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생활에 보탬이 된 후 자신의 가게를 여는 등 여유가 생기면 그때가서 졸업장을 따든지 하겠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면 자신의 노력은 물론 부모의 뒷바라지와 남들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항상 뒤돌아 보면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다. 면접자의 소견

원만하게 면접은 진행되었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 지난 날을 돌이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주 피상적이 되었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 인상을 받았다.

일단 여기서 자격증을 얻어야만 자신이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있으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문제는 담임을 잃어 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등 별로 착실한 친구들이 아니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사 례 38.

가. 개인과 환경

① 1973년 1월 10일생, 21세, 남자

② 거주지 : 역곡(전세)

③ 학 력 : 고 2 중퇴(퇴학)

④ 가족관계

부 : 버스운전

모 : 양장점(친구와 동업)

형제 : 동생(남, 중2)

⑤ 취미 : 낚시, 술마시기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목장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다시 무슨 일인가를 하다가 또 실패해 김포로 내려왔다가 자신만 고모(미혼)와 살고 다른 식구들은 서울로 올라가 떨어져 살게 되었다. 자신은 아버지가 싫었다.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서 아버지는 실패자라는 등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버지가 그냥 싫었다.

국 6 때 고모가 결혼을 하자 서울로 올라와 부모와 같이 살게 되었으나, 여전히 아버지가 싫어 서로 보면 말이 없거나 싸울 때가 많아 집에 있기가 싫었으며 반면에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녔다. 중 2 때 아버지와 의 쌍인 것 때문에 집을 3달 정도 나가 있으며, 길거리에 붙은 구인광고를 보고 3달 동안 일을 하다가 집에 전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 때 가출동안에 담배와 술을 배웠으며, 중학교 때 약 2번 정도 가출을 했다. 가출 중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가 보였는지,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 부모와 함께 학교로 가서 다시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도 그냥 훈계하는 정도로 끝났다. 성적은 중위권 정도였으며 특별히 선생님들이나 선배들과도 사이는 나쁘지는 않았다. 친구들과 물려다니며 남의 돈을 뺏거나 패싸움, 본드는 한달에 5~6번 정도 하

곤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부모에게서 책값을 받을 때 속여 돈을 더 많이 타내어 남는 돈은 저축을 했고 한번은 자신이 사고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50만원을 얻어 그 동안 모은 돈과 합했더니 한 100만원이 마련되자 부모 몰래 압구정동에 월세방을 얻어 집을 나와 풀마니들 4명을 데리고 레스토랑, 룸싸롱을 돌아다니며 한달에 200~250만원 정도를 벌었다. 그 2년동안 집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하는 곳에 온 손님 중 한명을 꼬셔 그 여자(26세)와 동거를 했다. 모은 돈으로 근처에 전세를 얻어 2년동안 동거를 했으며 이 기간 중에 웬지 연락을 하고 싶어져 집에 전화 연락을 하고 한번 용기를 내어 찾아 갔는데, 부모님은 그 동안 살이 쪼다는 등 농담을 하시고, 할머니나 친척들에게는 꾸중을 들었다. 물론 부모님께는 동거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배운 것이 없으니 유흥가 계통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셨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앞날이나 나이, 군대 문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거녀에게 헤어지라고 하고 전세방을 여자 명의로 돌려 남겨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왔다(웃으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하다고 말함). 외삼촌을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담하니 삼촌이 직업훈련소를 소개해주었다.

나. 현재 생활

올해초 신체검사를 받는 문제로 증명서를 떼러 학교로 갔더니 고2 퇴학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당연한 처리라고 생각됨), 여기 정비과는 삼촌이 제안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공부도 재미있고 그런대로 만족한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예비역들이 이일저일 시키는 것이 많아 아니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참고 견디어 꼭 졸업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검정고시로 기본적인 학력으로 졸업장을 딴 후

군대를 기능병으로 제대한 후에 해외로 나가 취업해서 자리가 잡히면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다(굳이 해외로 나가고 싶은 이유는 단지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기 때문이라고만 말함). 엄마는 대학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은 그 쪽 방면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든 것같아 지금은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착해진 것 같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신상태로만 나가면 될 것 같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지금 와서는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의 일 때문에 아직도 서먹서먹한 면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 아버지가 여러가지 일에 실패를 많이 하셨고, 또 처가살이 때문에 기가 죽어 사시는 것이 가슴아프고, 자신이 꼭 집안을 일으켜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주말에 집에 가면 동생과 얘기하거나 그냥 소일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한다. 중학교 때의 친구들과는 4년만에 다시 연락을 하며 가끔씩 만나고 이 혼련소에서 다들 친하게 지내기는 하나 특별히 흥금을 털어 놓는 친구들은 아직 못 만났다. 경찰서나 상담은 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 놓는 것이 별로 탐탁하지 않다.

다른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는 정도에 있어 빠르거나 늦는 것은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면접자의 소견

사회를 경험해 보고 혼자서 독립된 생활을 해 보아서인지 아주 어른스럽게 행동하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훨씬 책임감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주위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많이 들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됨으로써 집에서 아버지와의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시작된 듯하다. 자신의 앞가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같아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사 례 39.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1978년생
- ② 아버지직업:용달 운전자
- ③ 어머니직업:슈퍼마켓 야채 정리원
- ④ 취미:구기

피면접자는 다른 가정 보다 더 엄한 아버지와 큰 형을 두고 있다. 아버지와 형(사대, 2년 재학)은 자신의 의견에 복종하지 않으면 곧잘 주먹을 휘두르는데, 특히 아버지의 경우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어깨 한 번 두드리 주시는 일도 없다고 하며, 큰 형도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 항상 화를 내고 동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많다고 한다. 피면접자는 아버지와 큰 형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다.

어머니는 가정경제의 일부를 책임지시기 위해 일을 하시고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 30분경 퇴근하시는데 피로 때문인지 자주 짜증을 내신다고 한다. 그렇지만 피면접자에게 어머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대답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살림과 다소 경직된 집안 분위기 속에서 피면접자가 친구처럼 대하며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작은 형 (인문계 고 2 재학)이라 한다. 작은 형은 자신을 잘 이해해 주며, 싸울 때는 ‘맞지 말고 때려야 한다’는 식의 충고를 해 준다고 한다.

나. 학교생활

피면접자는 아이들과 원만하게 사귀며, 아이들 사이에서 주먹이 센 녀석으로 인정 받고 있다. 친한 친구는 국민학교 5학년 때 부터 알아 온 네 명의 아이들이며 방과 후에는 이들 뿐 아니라 학급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친구네 집을 돌며 비디오를 보거나 함께 놀다 집에 오후 6시경 귀가한다고 한다. 여러 친구 중 특히 네 명의 친구와 더욱 가까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이

야기에 특별히 귀 기울이고 얘기가 잘 통한다고 한다. 주로 하는 얘기는 선생님과의 학교 얘기, 그리고 남자들끼리 통하는 얘기라고 대답했다. 주위에서 이들을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눈초리이며, 자신도 일부 동감한다고 한다. 특히 뽕땅을 뜯거나 약한 아이들에게 숙제를 대신 해오게 하는 일 등이 그렇다고 한다.

피면접자는 국민학교 6학년 때 길동축구팀을 만들어 친구들과 운동을 즐겼는데, 교감 선생님께서로부터 불량 씨클로 오해받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 교감선생님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고 잘못 안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때리고, 벌을 주셨다 한다. 또 이와 비슷하게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 힘 없는 약한 아이를 대신해 싸움을 했는데 이때도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벌을 주셨다 한다. 해명하려 하면, 그 때마다 때리시기 때문에 학생부 선생님 앞에서는 바로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성적은 중간 쯤으로 1학년 때 보다 조금 오르고 안정되었다.

다. 처벌 상황

172센티미터의 건장한 체격에 , 중 2 치고는 어른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견은 분명히 표현할 것 같아 피면접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 갔다.

피면접자의 친구 ○○이와 △△는 영심이(돈 먹기)를 하다 시비가 벌어졌다. 이 때 ○○이는 팔을 다쳐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 였는데 △△가 ○○이를 때렸다고 한다. 이에 피면접자는 다친 애를 왜 때리냐, 비겁하다 등의 말로 항의하면서 친구 ○○이를 △△이로부터 보호했으나, 현민이는 자신의 뺨(주먹 패나 쓰는 아는 형)을 들어 너희 혼날 줄 알아 하고 위협했다. 이에 피면접자는 형들에게 맞고 오는 아이들을 수차례 봐 왔으므로 온근히 겁도 나고 저자식들 두고 보자라는 식의 반발심도 생겼다고 한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 날 △△는 다시 ‘너희들을 우리 형들이 다 죽여버린대’ 하고 위협하고 마침 형들에게 공중전화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 전화를 끊

고 교수부지로 가 주위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께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경찰이 출동해 이들은 도망쳤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의 어머니가 진단서를 떼어서 학생부실로 찾아 오셨다. 병원비는 물론 피면접자와 함께 싸운 네 명의 학생을 강패 운운하며 퇴학시키라고 흥분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많이 다친 사람은 △△가 아니라 피면접자이의 친구라 한다. 피면접자와 그 친구 넷이 학생부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을(△△와 그 친구들은 제외하고) 퇴학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담임 선생님 몇 분이 함께 싸웠는데 왜 한 편만을 징계하냐고 나서시면서 두 쪽 모두 칠일 근신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들의 근신태도가 성실하다 하여 근신 기간이 하루 줄어 들었다.

근신 기간 중 이들은 매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세 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의 눈총과 책망(저 자식들은 싸움질이나 하는 놈, 될성 싶은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 본다)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해 주었고 오히려 치켜 세워 주는 아이도 있었다. 이 일로 △△네 아이들과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라. 근신 후의 생활

면접자가 그 때의 일을 후회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자 ‘싸울 일이어서 싸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몽둥이를 들고 싸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만약에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가를 묻자 되도록 말로 하고 폭력은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진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내심으로 싸움은 이겨야 싸움이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바. 장래희망과 주위에 바라고 싶은 말.

피면접자의 장래희망은 변호사이다. 덧붙이는 말은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

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싶기 때문인데,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부터나 할 작정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충분히 놀고 싶기 때문이다.

주위에 바라고 싶은게 있다면 하고 묻자 피면접자는 선생님들은 처벌은 주 시기에 앞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해달라 하였다.

마. 면접자 소감.

과연 피면접자가 근신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꼼꼼히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었다. 피면접자는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을 휘두르지 말아야 겠다고 대답하였으나 '형들이 때린다', '맞고만 있을 수는 없다' 등의 다른 이야기를 했다.

피면접자의 이러한 생각은 단지 피면접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피면접자와 전에도 친했고 지금도 친하며, 앞으로도 친할 친구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결속력이 강하고 피면접자 처럼 비슷하게 의협심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싸울 일은 많아질텐데 일회적인 효과만을 발휘하는 처벌만 늘어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사 례 40.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 이:18살
- ② 출생지:서울
- ③ 아버지직업:철물점
- ④ 취 미:노래부르고와 기타연주
- ⑤ 생활수준:중

피면접자는 부모와 누나, 여동생 1명을 가족을 두고 있다. 가정 분위기는 아버지가 말이 없고 술만 드시면 자신을 포함하여 특히 어머니를 구타하여 평상시에는 잘 해주시다가도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께 반발심이 누적되었다. 아버지는 근검절약하고 성실하나 성격적으로 식구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누나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가출을 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온화한 성격으로 매사를 참고 사시는 형이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아들이 한 명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크다.

나. 학교생활

피면접자는 성격이 호탕하고 사교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이라 주위에 친구들이 많고 인기가 있다. 개성이 뚜렷하고 자유분방한 세계를 좋아하며 획일적이고 규율에 얽매이는 스타일을 무척이나 싫어 한다. 성적은 중간층으로 ○○고등학교에 원래 배정 안 받기를 학수고대 했으나 9학군 중 가장 엄하고 스파르타식의 교육방식인 학교에 배정받게 되면서 갈등은 커져 갔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중학교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던 피면접자는 ○○고등학교에 배정받으면서 마치 학생을 쥐어 짜는 듯한 엄격함과 스파르타식의 교육방식에 염증을 느끼며 마치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 입대를 한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교칙이 엄격하고 철저한 규율, 선생님의 잦은 매질, 1학년인 학생에게도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 교복입기 등의 학교 분위기

에 강한 불만을 참아 내고 있었다.

다. 처벌상황

피면접자가 ○○고등학교 1학년 1990년 10월 경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체육선생님에게 머리를 박박 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탁 앞으로 나와 몽둥이로 맞고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 순간 참아야 하는데 일 순간 그 동안 참아 왔던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울분과 불만이 터져 나와 교사에게 대들고 몽둥이를 집어 던졌다. 그 다음 날 체육선생님은 반성문을 쓸 것을 요구하고 용서를 빌라고 했다. 피면접자는 그다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고 했다. 화가 난 선생님의 주장으로 자신은 교사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정학처리가 됐고, 피면접자는 더 이상 학교생활에 대한 애착도 없고 3학년까지 참아야 될 세월들이 끔찍하여,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자퇴하기로 결심하였다. 자퇴를 하면서 시원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혼재하여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

라. 자퇴 후의 생활

피면접자는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데 자신은 집에 있는 자신이 무척 불안했으며 마음의 갈등이 심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듣거나 저녁시간이면 학교를 그만 두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함께 이야기 하고픈 상대를 찾았다. 자퇴 후의 2주일은 친구들이 그리워 무척 외로웠고 불안했으나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는 것은 자신에게 정신적인 형벌과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 마음을 다지고 전학을 알아 봤으나 불가능하였다. 할 수 없이 다시 다른 학군으로 고등학교연합고사에 응시할 것을 결심하여 그 해 응시하였다.

1991년 △△고등학교로 배정 받아 현재 2학년 학생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피면접자에게 △△고등학교는 분위기가 자유롭고 선생님들도 체벌을 하지 않아 부드러운 분위기에 학생들의 자율을 존중해 주어 이상적인

학교라고 만족하였다. 피면접자는 원래는 성악을 전공하려 했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락그룹의 대중음악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음악을 하는 친한 친구들과 그룹을 결성하여 하루 4시간 이상의 연습을 하고 있으며, 대학로에서 라이브 콘서트도 개최하였고 청소년 락콘서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마. 장래 희망과 주위에 바라고 싶은 말

피면접자의 장래희망은 대중음악의 다양한 장르와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독특한 장르를 새롭게 열 수 있는 가수이다. 주위에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달라는 것과 남학생에게 선생님들은 무조건 가혹한 체벌을 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체벌의 효과는 순간적이고 학생을 인간으로 보지 않은 처사라고 한다.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어른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자원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체벌을 하시려면 감정의 매가 아닌 사랑의 매로 해달라는 것이다. 사랑의 매라는 미명 하에 감정의 매로 하지 말아달라.

대체 사랑의 매의 기준치가 어디 있느냐? 학교생활이 단순히 학업만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행복한 학교,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지식의 저장고가 아닌 인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융통성있고 경직적이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의 따뜻한 학교였으면 좋겠다.

마. 면접자 소감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은행적금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 존중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학습에서 소외되었던 학생을 피교육자가 아닌 학습의 주체로서 그들의 관점에서 인간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민주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피면접자에게 맞지 않는 스포르타식의 교육방식은 학생에게 오히려 커다란 억압으로 작용하므로 학습자의 요구, 권리, 필요, 흥미 등을 고려해 훈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앎과 깨달음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장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비인간화시키는 학교규칙 하에 고통을 느끼며, 쉽게 치유되지 않는 심적 상처를 받는다. 인격교육이 학교에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는 청소년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조력하며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대화를 기꺼히 할 때 그들은 결코 빗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숙하리라 확신한다.

사 례 41.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 이:14살
- ② 출 생 지:서 울
- ③ 아버지 직업:사업(동성철제 경영)
- ④ 취 미:자전거타기, 축구, 활동적인 활동
- ⑤ 생활수준:상
- ⑥ 주거지역:인근 한양아파트

피면접자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환경이며, 가족은 부모님과 아들 둘 중 둘째이다. 집안 분위기는 엄하지 않고 부드러운 편이며,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지만 관심이 집안일 보다는 바깥일에 관심이 많아 집을 많이 비워 일하는 아줌마가 살림을 도맡아 한다. 형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지금의 집안 분위기는 형 위주이다. 형은 자신을 이해해 주기 보다는 간섭을 자주 하고 이기적이고 자주 때리기도 하여 형을 무서워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그렇듯 피면접자는 집안에서는 부모와 형에게는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자신을 이해해 주지도 못한다고 느껴 친한 친구에게 마음의 대화를 한다. 필요한 물건이나 세세한 사항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는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사업 때문에 바쁘시다.

나. 학교생활

피면접자는 명랑하고 활동적이어서 친구들이 많고 여러 아이들과 원만하게 사귀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친한 친구는 1학년때 한 반인 자전거를 함께 타는 8~10명의 친구들이다. 이들과 함께 다닐 때는 방과 후 집에 가방을 놓자마자 오락실에서 만나 집 부근이나 올림픽공원에서 7,8시까지 자전거를 타며, 휴일에는 한강고수부지나 남한산성등으로 멀리 친구들과 자전

거를 탔다. 피면접자와 그 친구들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이유는 자전거타기가 일단 재밌고 먼 곳을 돌아 다니며 속도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에서 해방된 느낌이 강해, 자전거를 타고 나면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해지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들의 학교성적은 거의 중·하위권이며 생활수준은 상으로 유복한 편이다. 피면접자는 자전거 절도사건 이전에는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중위권 학생으로 교사나 친구들에게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행위도 하지 않은 학교교칙에 잘 따르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다. 처벌상황

1차의 면접은 피면접자가 과외가 있어 다른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래포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며 대략적인 연구의 취지를 말하고 설문지를 미리 줘서 작성해 오게 했다. 2차 면접 때는 처음과 달리 친숙하게 미리 질문에 대해 생각은 했는데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사건의 발단은 친구가 오락실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며, 8명의 친구들 중 절도상습범인 승일이가 친구들에게 함께 훔치자고 제안하여 자전거가 고장난 터에 자신과 친구들의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8명의 친구들 중 두 번에 나뉘어 자전거를 훔치게 되었다. 올림픽공원에서는 3명, 황제예식장 앞에서는 5명의 친구들과 망보기, 자전거 훔쳐 타고 오기, 도망치기 등을 서로 나뉘어 하였다. 피면접자는 올림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승일이가 자전거 좋은 게 있다고 가져 와서 순간적으로 그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망갔다.

피면접자와 그 친구들은 두 번에 나뉘어 자전거를 훔쳤으나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에서 평소 ○○이란 친구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잘 훔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이의 친한 친구인 △△에게 "너희들 요새 나쁜 짓 했지? 난 알고 있어. ○○이랑 뭘 훔쳤는지 이실직고해. 다 알고 묻는 거야"라는 유도질문을 하여 평소 순진하고 교사 말을 잘 듣는 △△은 겁에 질려 두

번에 걸친 자전거 훔치기 사건을 다 이야기 하였다.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 체육교사에게 피면접자를 포함한 8명은 불려가 운동장에서 몽둥이로 엉덩이와 다리를 수십대씩 차례로 맞았다. 맞는 동안 매 맞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남의 물건 훔친 것이 잘못된 일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실을 일러 바친 성일이란 친구가 야속하고 미웠다. 집에 돌아와 옷을 벗어보니 다리가 온통 피멍이 들어 움푹달작 할 수 없고 무척 아팠지만 그 보다는 집에서 아실까봐, 학교에 널리 알려질까봐 두려웠다. 아마도 승일 엄마가 학교에 찾아 오지 않았던들 사건은 체육교사 선에서 일단락 되었을 것이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교장실로 찾아가 "귀한 아들을 어떻게 피멍이 들도록 구타할 수 있느냐? 물론 내 아들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려야 했었느냐?" 했으나 이러한 사건의 내용을 모르신 교장선생님은 당황하셨고 더욱 화가 나서서 도둑질은 나쁜 것이라면서 정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 학생부로 8명은 불려 가서 사건 사고내용 진술서를 각자 쓰고 이를 동안 "언제 누구 누구랑 자전거를 훔쳤냐? 어디서, 왜 자전거를 훔쳤냐"의 같은 질문에 계속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로 부터 이들 후 정학조치를 받고 일주일의 근신에 처했다. 현충일이 끼어서 일주일 중 삼일은 학교에 가서 8명이 함께 반성문을 쓰고 청소를 하며, 근신 첫 날은 병원에 가서 누워 있었고 집으로 돌아 왔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 두려웠고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선생님들이 차별할까봐 두려웠다. 어린 나이에 정학기간과 그 이후 일week은 많은 갈등 속에 무척 괴로웠다.

라. 근신 후의 생활

가정내에서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물건을 찾다가 뭐가 없어지면 피면접자에게 "이 도둑놈아. 남의 물건 왜 훔치냐? 너 그것 가져 갔지?"하며 매사 의심하고 피면접자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르겠다고 말한다. 집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 1주일 동안은 어머니가 피면접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격적인 언사가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전처럼 해주셨다. 어머니는 이 사건 이후 7명의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강조했으나 자전거 타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는 정학기간 동안 선생님과 친구들이 차별할까봐 두려웠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같이 대해 줬다. 7명의 친구 중 피면접자가 생각하기에 절도상습범인 승일이 나머지 친구들에게 흉치도록 영향을 주었고 ○○은 특히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 ○○은 국민학교 때 부터 흉치는 것을 배워 흉치는 것이 습관화 되었을 뿐더러 정학기간 동안 어떠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피면접자를 포함한 일곱 명의 친구들은 이 사건에 ○○의 영향으로 호기심이 발동하여 휩쓸린 것이며, 이 친구들은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의 요구대로 구태여 멀리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좋은 친구를 사귀며 예전 친구는 또 다시 휩쓸릴 가능성이 있어 현재 새로운 친구를 10여명 정도 사귀고 있고 자전거는 혼자 방과 후 3시간 이상씩 꾸준히 타고 있다고 한다.

정학조치에 대해서 피면접자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친구들사이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대략 20여명은 자신이 가지지 않고 친구들이 가진, 갖고 싶은 물건 때문에 학용품, 자전거 등을 훔치는 데 자신들만 적발되어 운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이상한 눈길로 보거나 경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대수롭지 않게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도둑질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안할 것이며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서 정학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인격적인 대우는 못 받았지만 자신 내부에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정학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재의 고민은 친구관계로 예전에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된다고 하였다.

다. 장래희망과 주위에 바라고 싶은 말

피면접자의 장래희망은 대학을 체육학과에 진학해서 태권도교사나 국가대표로 태권도선수가 되는 것이다. 운동이나 활동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러한 진로에 대해서 집에서는 장래진로를 강요하지 않고 인정해 주시는 편이다.

주위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학교’에 대해서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차별하지 않고 교사들이 혼지 등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학교상담실은 유명무실하다. 비밀보장도 못해 주고 때릴 것 같은 공포 분위기인데 누가 가겠는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덥고 추운 날 공부하기가 힘들니까 이럴 때는 방학을 늘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방학기간을 조정해 주테여 덥고 추운 날 학교에서 피로워 하면서 비효율적인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정’에 대해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매사 의심하는 것이 싫고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도 많고 친구처럼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쉴 곳, 갈 만한 곳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오락실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게 금지할 만한 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바. 면접자 소감

피면접자는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첫 날은 자신이 청소년을 위한 연구에 왜 선정되었는지를 궁금해 하며 다소 거리감을 두었으나, 그 이후 만날 때는 거리낌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었다. 자신의 정학처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다시는 흠치는 일은 안하리라 굳게 결심한 듯 보였다. 피면접자는 이제까지 학교규율을 크게 어긴 적도 없고 학교에 반항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이라는 친구의 영향으로 얼떨결에 자전거를 훔쳤기 때문에 정학과정이나 이후의 생활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태도에 인격적인 마음상함을 깊이 느꼈고, 정학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이해해 주고 대화하는 대상이 없어 자신 스스로 그러한 사건을 대처하는

데 어린 나이에 무척이나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부나 교도부에서는 좀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정학학생에 대해 행위결과의 처벌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주어 잘 선도할 수 있는 상담이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들었다.

사 례 42.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 이:18세
- ② 아버지 직업:노동(막노동)
- ③ 어머니 직업:노동(막노동)
- ④ 취 미:쇼핑

가. 가정생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자매로 피면접자는 차녀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며 부모님이 모두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살림을 꾸려 가고 있다. 집안 분위기는 부모님과 대화가 전혀 없으며 아버지가 자주 집안식구를 구타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피면접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피면접자는 부모님을 무서워하나, 언니는 피면접자가 담배 피는 것도 이해해 주며 많은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준다.

나. 학교생활

피면접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게을리 하면서 차츰 ‘노는 애들’에 속하며 노는 애들의 규율과 질서에 익숙해졌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담배를 피다가 혹은 후배를 선배대접 안한다고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께 찍혔다. 선생님들은 "한번만 더 그러면 짤린다"하는 말씀을 수시로 하였으며 그러는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발생 전까지는 피면접자는 학교생활에서 남녀공학이고 친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업고등학교 학생의 앞날이 사회적 차별도 심하고 취업 또한 외모와 실력이 뛰어나야만 보장되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주로 방과 후 노는 애들에 속하는 이성친구를 만난다. 주로 즐겨 찾는 곳은 카페나 락카페에 간다.

카페에 가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고, 락카페는 신나고 춤 추는 것을 보는 것도 기분 좋고 해방감을 느끼며 현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요일에는 대학로의 락카페나 돈암동의 카페에 오고 일요일에는 주로 집에 있다. 2학년 친구들 중 나가는 애들 8명 중 한 명으로 담배와 술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친구들과 주로 하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나 사귀는 이성친구 이야기,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

다. 처벌상황

사건발생은 올해 6월 매봉산에서 집단 패싸움이 그 원인이었다. 남녀친구 모두 6명과 함께 노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러 남학생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내려와 "이 산은 우리 구역인데 함부로 허락도 없이 여기 와서 노냐?"며 집중적으로 여자애들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순식간에 이를 말리려는 남자애들 간의 집단패싸움이 일어나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자애들이 많이 다치는 등 분위기가 무서워져 경찰서에 급히 연락하여 모두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서에서 학교로 연락을 하여 몇몇의 남학생은 감옥을 가고 여자친구 3명은 유기정학을 당하고 학교로부터 각기 다른 학교로 전학갈 것을 강요받았다. 학생부에서 반성문을 쓰고 학교로부터 "전학 당장에 가라. 3일안에 안가면 너 찢릴 줄 알아라"며 문제학생을 급히 내쫓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어머니가 찾아와 조금만 연기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급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알아 보았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겨우 ○○상업고등학교에서 받아주어 전학을 가게 되었다. 피면접자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학교 다니지 말고 차라리 미용학원에 가서 미용기술이나 배워라" "내논 자식, 니 마음대로 해라. 학교 다니지 말고 일이나 배워라"면서 전학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피면접자는 최소한 고졸의 학력은 되어야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서류를 가지고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상업고등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셔 오라 해서 할머니를 대신 모시고 가 허락을 받았다.

라. 정학 후의 생활

학교에서는 ○○상업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나 이전의 전력(문제학생)때문에 선생님들의 인식은 선입견으로 가득 차 예전의 친구가 그림고 학교의 분위기가 그리워 많이 울기도 했다. 새로 전학간 학교의 반 친구들은 크게 경계하지 않았으나 선생님에게 전학의 의미는 "일 저질러서 왔다"는 의미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머리를 하고 옷을 입고 지각을 했어도 유독 피면접자만 집중적으로 혼내는 특별대우를 하거나 "넌 하루만 빠지면 퇴학이다"면서 겁을 주기도 한다. ○○상업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뒤로 선생님의 선입견, 편견 때문에 무척이나 괴롭고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가정에서는 예전의 친구가 그리워 연락을 하고 싶고 연락을 받고 싶으나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나가려 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자르는 등 일방적으로 통제하였다. 정학을 받은 이후 부모님들의 간섭과 잔소리가 특히 심해졌다 한다.

마. 장래희망과 주위에 바라고 싶은 말

정학으로 앞날이 막막하고 걱정과 갈등을 많이 겪었지만 "정학"이라는 낙인을 부끄럽다기 보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자신의 잘못을 포용해 주기 보다는 문제덩어리를 하루마써 해치우려는 학교의 태도에 반발이 들었다. 피면접자는 정학의 처벌에 대해 잘못은 인정하지만 부당하고 일방적인 것으로 느끼며, 선생님들의 태도가 쌀쌀맞고 눈총이 따라와서 오히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한편으로 마음 잡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어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한다. 피면접자는 정학 사건과정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자신을 이해해 주기 보다는 그 행위 자체에만 얽매어 선생님과 부모님의 통제, 간섭, 선입견 등으로 무척 괴로웠다고 하면서 자신이 왜 방황을 하는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며 이해받으며 대화를 하기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바. 편집자 소감

피면접자는 얼굴이 예쁘며 귀걸이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이 분명하며 학력에 의한 사회적 차별구조, 인문계/실업계간의 차별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정학조치 이후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골치아플 것 같은 학생은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려는 학교의 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를 옮긴 이후 자신의 정학기록 때문에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려 해도 선생님의 선입견, 자신이 아무리 애써 노력하려 해도 그 낙인은 3년간 계속 지니고 다녀야만 할 커다란 멍에로 극복하기가 힘들어 더욱 낙인에 의한 영향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 학생이 학교내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학교교육 경험은 한 학생의 신분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사에 의한 학생의 범주, 낙인과 판단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 제도는 청소년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띠고 있는가? 오히려 학교교육 기관이 문제학생이라고 지칭되는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며, 소위 그것은 공교육제도의 부산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기관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다른 교육기관 보다 구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

소수의 학생을 위해 그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희생하는 교육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들 중 "나가는 애들"을 대할 때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판단증지(epoche)로서,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배제하고 인식의 개방성, 다양한 이해를 더해야 할 것이다.

사 례 43.

가. 가정과 개인

- ① 나이 : 1974년생(19살), 남자
- ② 학력 : 고 3 직업반 위탁교육
- ③ 가족관계
 - 부 : 기자
 - 모 : 주부
 - 여동생 둘 - 쌍둥이로 공부 잘 함

나. 학교생활

- 이성교제 - 밤도 같이 썸
- 노는데 빠져, 공부 싫어짐
- 교칙어겨 처벌 - 무기정학
- 싸움 잘 하는 편 - 1군에 속함
- 경찰서에도 가보고 패싸움 함.

다. 현재생활

- 훈련원 - 부모가 고름.
- 기숙사 - 부자유 느낌
- 현재고민 - 여자관계
- 희 망 - 유학가서 조리공부 더 하기
- 취직생활 - 겨울방학, 2-3달 레스토랑 - 힘든 걸 알았음.
- 사회에서는 지도자는 싸우지 말고 의롭게 지내고, 거지등 불쌍한 사람에게 도움주어야 함.
- 지난주 월요일 학교 2-3시간 늦게 왔다고 - 그 전날 여자랑 같이 지냄 - 학교에서 벌 받음 - 부모가 와 사정해서 제적 면함.
- 학교 - 선생 체면 위해 거짓말장이 만든다. 규칙 엄하다.

- 훈련원 - 솔직한질 요구 - 학교기준과 달라 당황하게 됨 - 학교보다 규칙이 너그럽고 더 자유느낌
- 세상일 맘대로 안 되는 것 같다.
- 훈련원 선생님들 존경하고, 부모님 고마운건 안다.

라. 면접자의 인상

- 집안에 문제 있는것 같진 않고,
- 학생이 싸움질 한다는 것은 친구의 영향 같음.

사 례 44.

가. 가정과 개인

① 나이 : 1974년생(19살), 남자

② 학력 : 고 3 직업반 위탁교육

③ 가족관계

부 : 회사원 - 시골(천안) 과수원 일 : 할아버지 하시던 일

형 : 대학생

모 : 가정주부

④ 취 미 - 운동

나. 학교생활

○ 이성교제 - 밤 새움

○ 교칙어거 처벌 받음

○ 가 울 - 한적 있음.

○ 경찰서에도 가 봄.

○ 놀다보니 - 공부가 처지고 - 부모의 권유로 직업반에 옴

다. 현재생활

○ 기숙사 생활로 저녁 때 지루함 - 이모집서 오길 원해, 통학할 수 있
으나 선생이 허락안함

○ 그 밖에는 만족스러움

○ 사회 : 너무 인간관계가 차갑다.

공개적으로 없다

학교 : 선생님이 더 너그러웠으면

집 : 지나친 간섭없이 어른대접해 주었으면

○ 나쁜 길로 든 아이들 - 노는데 너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양

다. 면접자의 인상

○ 깔끔해 보임

○ 큰 문제 없는 것 같음

사 례 45.

가. 가정과 개인

- ① 1973년 8월 25일생, 20세,남
- ② 거주지 : 시흥(임대 주공아파트, 생활보호 대상자)
- ③ 학력 : 고졸
- ④ 가족관계
 - 부 : 병 중(하반신 마비)
 - 모 : 장사
 - 형제 : 형(24세, 교도소 수감) , 누나(22세, 가출)
- ⑤ 취미 : 운동(오래달리기), 만들기
- ⑥ 종교 : 천주교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보건소에서 15년간 근무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와 목조사업을 하셨다.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하다가 9년전 쯤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자 싸움을 피하려다가 잘못하여 넘어졌는데, 척추에 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되고 사업은 부도가 나서 망하였다. 아버지의 성격은 불같고, 화를 잘내시는 편이어서 형제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편이었으나 다치신 이후로는 많이 화를 덜 내시게 되었다. 부부관계나 형제들간에 관계는 좋은 편이었고, 특히 막내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감싸 주셨다. 어머니가 천주교를 믿으셔서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형제들도 다 천주교를 믿었으며 자신은 지금도 다닌다. 중 2 때 자신의 오락시제를 보여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친구에게 한대 얻어맞았는데 코가 잘못되어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나가다 강패를 만나 얻어 맞아 본 적이 있다. 형은 처음에는 공부도 잘하다가 고 2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이상하게 행동하다가 교도소에 2년전에 수감되었는데

데 무슨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는 지는 모른다(엄마가 말씀을 안해 주신다고). 누나 역시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무슨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집을 나가 3년동안 전화만 가끔씩 올 뿐 이다. 자신도 한 때는, 고 2 때 쯤, 남들처럼 옷도 잘 입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해 보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배웠으나, 다른 형제들이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것이 부모님께 미안해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은 비교적 충실하고 반에서도 안전한 편이어서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 고1 때 부터 고 3 때까지 3년 동안 신문배달을 새벽마다 하면서도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였다. 방학때는 석간도 함께 돌려 돈을 벌어 자신의 학비, 용돈, 생활비 등으로 썼고, 중앙전자학원을 6개월 수료하였다. 졸업할 즈음에는 노트공장을 3개월 정도 다녔다.

나. 현재생활

아버지께서 동사무소 같은 데 전화로 알아보시고 직업훈련소를 권하셨다. 자신은 처음에는 정비과나 전기과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아버지께서 배운것도 있으니 전자를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잘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부도 재미있고 형들, 동생들과도 사이가 좋고 담임도 좋으며 기숙사 생활도 만족스럽고 또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여서 더욱 좋다. 여기서 자격증을 딴 후에 알선해 주는 직장을 다니다가 친척이 포항제철에 다니는데 여기에 취직하거나 작은 아버지가 하시는 인천의 공장을 다니거나 한 후 돈을 좀 벌어서 가능하면 전문대라도 갈 생각이고 나중에는 자신의 사업체를 갖고 싶다. 요즘은 부모님이 지나치게 자신의 일을 염려하시어 간섭하고 감싸주시는 것이 귀찮다. 자신은 욕심과 샘이 많은 편이며, 전에는 형제들이 집에 없을 때 외로워 말을 잘하지 않는 등 내성적이었으나 지금은 활발한 편으로 바뀌었다. 형이나 누나가 나쁜 길로 빠진 것은 주변의 환경이 너무 급변한 것과 집에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밖으로 나다니다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 같다. 자신이 나쁜 길로 들어서지 못한 것은 용기가 없어 해보고 싶은 것

을 하지 못한 것 같다. 형은 아버지와 성격이 똑같아(자신은 어머니를 닮았다) 화도 잘 내고 급한 성격이어서 더욱 쉽사리 나쁜 길에 들어선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귄 친구와 아주 절친하며 그 친구는 전문대와 직장을 함께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대학은 포기하고 직장생활만 하고 있다. 주말에는 집에서 있다가 성당을 다니거나 엄마를 도와드리거나 하는데 요즘은 길거리장사를 단속하는 기간이라 장사를 쉬고 계셔서 집안 살림이 어렵자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느라 아주 바쁘게 사신다. 경찰서나 정식 상담은 해본 적이 없으나 고해성사나 친구와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점들은 해결해 나가고 있다.

다. 면접자 소견

이야기도 조리있게 잘하며 예의도 차릴 줄 알고 성격도 밝은 편이어서 별무리없이 면접이 진행되었고 가정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형제들이 문제를 일으켜 모두가 집에 없는 것이 문제인듯 한데 자신이 부모님에게 다른 형제들 못까지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또 욕심이 많아 남을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보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 보여 자신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것 같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조사하여 그 개선책을 찾고자 한국 청소년 연구원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여러분은 청소년 자신의 문제와 생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결과는 학교생활에서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기에 여러분의 의견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평소에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국 청 소 년 연 구 원 장

* 다음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해당번호 앞에 V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써주십시오.

1. 나이는? 만 _____ 세
2. 성별은?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_____ ① 남자중학교 _____ ② 여자중학교
_____ ③ 남녀공학중학교 _____ ④ 남자인문계고등학교
_____ ⑤ 여자인문계고등학교 _____ ⑥ 남녀공학인문계고등학교
_____ ⑦ 남자실업계고등학교 _____ ⑧ 여자실업계고등학교
_____ ⑨ 남녀공학실업계고등학교
4. 당신의 학년은? _____ 학년
5.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_____ ① 주택가 _____ ② 상가 _____ ③ 유흥가 _____ ④ 기타
6. 당신의 부모님은 모두 계십니까?
_____ ① 부모님 모두 계심
_____ ② 아버지만 계심
_____ ③ 어머니만 계심
_____ ④ 두분 모두 안계심
7. 아버지의 직업은? _____
8. 어머니의 직업은? _____
9. 당신의 가정 형편은? _____
_____ ① 매우 넉넉하다 _____ ② 조금 넉넉하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조금 쪼들린다 _____ ⑤ 매우 쪼들린다

*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 V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써주십시오.

10. 당신은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아주 잘 사귀다 ____ ② 잘 사귀다 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 ④ 잘 못 사귀다 ____ ⑤ 전혀 못 사귀다

11. 다른 사람들은, 특히 어른들은 여러분의 친구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 ①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____ ② 반항심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____ ③ 질제심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____ ④ 잘 모르겠다

12. 다음의 사항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 ____ ①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부모님도 없다
____ ② 친구가 나를 나쁜 길로 유혹한다
____ ③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한다
____ ④ 성적이 안 오른다
____ ⑤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____ ⑥ 집이 너무 가난하다
____ ⑦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____ ⑧ 선생님들을 대하기가 어렵다

13. 여가시간을 주로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 ____ ① 혼자 ____ ② 부모님
____ ③ 형제, 자매 ____ ④ 친구나 아는 형들
____ ⑤ 이성친구 ____ ⑥ 기타 _____

14.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_____

* 다음은 가정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의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표시해 주십시오.

《예》

나는 상냥한 아이다	매	우	대체로	보	통	대체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이	다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매 우 대체로 보 통 대체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이 다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 ① 우리는 식구끼리 대화를 자주한다
- ② 부모님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③ 부모님은 내 생활에 세세히 관여하신다
- ④ 나는 커서 부모님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부모님 사이는 원만하다
- ⑥ 나는 용돈이 넉넉하다
- ⑦ 나는 우리집에서 태어나 불행하다

*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의 해당 답안에 V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써 주십시오.

매 우 대체로 보 통 대체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이 다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 ㉠ 나는 친구가 많은 편이다
- ㉡ 아이들은 나를 좋아한다
- ㉢ 나는 친구를 괴롭히기도 한다
- ㉣ 공부를 잘한다
- ㉤ 진학하여 계속 공부하고 싶다
- ㉥ 선생님을 존경한다
- ㉦ 학교생활이 즐겁다
- ㉧ 학교는 심신을 수련하는 터전이다

매 우 대체로 보 통 대체로 전 혀
그렇다 그렇다 이 다 그렇지 그렇지
않 다 않 다

- ㉨ 학교는 직업을 준비하는 터전이다
- ㉩ 학교는 입시 지옥이다
- ㉪ 세상에는 학교 말고도 소중한 것을
배울 곳이 있다
- ㉫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비해 과
도한 벌을 준다.
- ㉬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격이 존중된다
- ㉮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
님이 도움을 준다

15. 현재 학교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성적이 나쁘다
☐ ② 공부가 싫다
☐ ③ 선생님이 싫다
☐ ④ 반 친구들과 사이가 나쁘다
☐ ⑤ 나쁜 친구가 있다
☐ ⑥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다
☐ ⑦ 기타 _____

16. 여러분은 학교에서 처벌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다음문항으로 가세요) ☐ ② 없다(29번으로 가세요)

17. 처벌을 받기 전에 선생님과 학교생활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_
☐ ② 아니오

(아니오의 경우)

V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을 대하기가 어려워
☐ ②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_____

V(예의 경우)

상담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_____번

V(예의 경우)

‘예’라면 그 상담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잘 모르겠다

18. 처벌을 받으면서 학교생활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_
☐ ② 아니오 _____
 (아니오의 경우)

V(예의 경우)

상담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_____ 번

V(예의 경우)

그 상담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잘 모르겠다

V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을 대하기가 어려워
☐ ②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_____

19. 처벌을 받은 후 선생님과 학교생활이나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_____
☐ ② 아니오 _____
 (아니오의 경우)

V(예의 경우)

상담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_____ 번

V(예의 경우)

그 상담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잘 모르겠다

V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선생님을 대하기가 어려워
☐ ②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 ③ 잘 모르겠다
☐ ④ 기타 _____

20.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아 온 처벌의 종류와 그 이유는?

- ____ ① 근신 횃수 : ____ 번 이유 : _____
____ ② 유기정학 횃수 : ____ 번 이유 : _____
____ ③ 무기정학 횃수 : ____ 번 이유 : _____
____ ④ 퇴학보류 횃수 : ____ 번 이유 : _____
____ ⑤ 기타 횃수 : ____ 번 이유 : _____

21. 여러분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 ① 일시적 충동이나 호기심때문에
____ ② 어른이나 영화배우를 모방하여서
____ ③ 마음의 불안이나 긴장을 해소하려고
____ ④ 어른이나 사회에 대한 반항심으로
____ ⑤ 친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____ ⑥ 기타 _____

22. 여러분이 받은 처벌은 자신의 행동에 비추어 알맞은 정도였나요?

- ____ ① 내 행동에 비해 대체로 가벼운 벌이다
____ ② 내 행동에 대해 대체로 적당한 벌이다
____ ③ 내 행동에 비해 대체로 심한 벌이다

23. 여러분은 처벌 기간 중 학교에서 어떤 지도를 받았나요?

24. 처벌을 받은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 ____ 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____ ② 오히려 반발심만 생겼다
____ ③ 변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____ ④ 별 느낌이 없었다

25. 처벌을 받은 후, 친구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___ ① 거리를 두는 것 같다
- ___ ② 이상한 눈으로 본다
- ___ ③ 나에게는 무관심하다
- ___ ④ 위로해 주었다
- ___ ⑤ 기타 _____

26. 처벌을 받은 후, 가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___ ① 굉장히 야단 맞았다
- ___ ② 위로해 주었다
- ___ ③ 무관심했다
- ___ ④ 처벌 전 보다 자상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 ___ ⑤ 기타 _____

27. 처벌을 받은 후, 선생님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 ___ ① 나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 ___ ② 이상한 눈으로 본다
- ___ ③ 나에게는 무관심하다
- ___ ④ 기타 _____

28. 처벌을 받은 과정에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계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해주십시오.

29. 중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생각해 보지 않았다
☐ ②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③ 생각 중이다
☐ ④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 V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 ☐ ① 친구들이 유혹하므로
☐ ②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 ③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④ 기타 _____
- V

중퇴 후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는?

- ☐ ① 취업 ☐ ② 진학
☐ ③ 직업훈련 ☐ ④ 기타

30.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의논하고 싶은가요?

- ☐ ① 부모님
☐ ② 선생님
☐ ③ 친구나 아는 선배
☐ ④ 그 분야 전문가

31.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하겠습니까?

____ ① 예 V ‘예’라면 그 이유는? _____	____ ② 아니오 V ‘아니오’라면 그 이유는? _____
--	--

*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 앞에 V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써주십시오.

32.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전망이 매우 밝을 것이다	____ ④ 전망이 대체로 어두울 것이다
____ ② 전망이 밝을 것이다	____ ⑤ 전망이 매우 어두울 것이다
____ ③ 그저 그럴 것이다	

33. 여러분이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은?

34.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____ ① 학력	
____ ② 돈	
____ ③ 기술	
____ ④ 기타	_____

35.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할 때, 혼자 힘으로 시작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① 국가지정 취업알선 센터나 직업훈련원

_____ ② 사설 직업훈련원

_____ ③ 부모나 친족

_____ ④ 친구

*** 아래에는 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나타내는 두개의 반대되는 형용사쌍이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형용사 사이에는 여러분의 느낌 정도를 나타내는 7개의 칸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1번칸에 V표를 해주세요. 만일 학교가 가장 나쁜 곳이라고 느껴진다면 7번 칸에 V표를 해주세요. 이처럼 여러분의 느낌정도에 따라 해당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학 교 는 _____ 곳 이 다

	1	2	3	4	5	6	7	
① 좋은								나쁜
② 아름다운								추한
③ 깨끗한								더러운
④ 큰								작은
⑤ 무거운								가벼운
⑥ 강한								약한
⑦ 능동적								수동적
⑧ 날카로운								둔한
⑨ 빠른								느린

정학·중퇴 청소년 선도에 관한 설문

— 교도 주임 선생님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년연구원은 체육청소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학·중퇴 청소년의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정학·중퇴에 관련된 선생님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저희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줄 알지마는, 모두 청소년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됨을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 답변해주신 귀중한 내용들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설문의 내용이 다소 힘들고 부담이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청 소 년 연 구 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 건물 4층

1. 연세(만 세)와 성별(____ ① 남 ____ ② 여)

2.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____ ① 중학교 ____ ② 인문계고등학교
____ ③ 실업계고등학교 ____ ④ 종합고등학교

3.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상담실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____ ① 있다 ____ ② 없다

4.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는 상담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____ 명

5.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는 주부상담원 자원봉사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_ ① 있다(5-1로 가세요) ____ ② 없다(6으로 가세요)

5-1. 주부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몇 분입니까?

____ 명

5-2. 주부상담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요?(하고있는 곳에 모두
V표를 해 주십시오)

____ ① 심성수련
____ ② 개별면접(요선도 학생이나 정학생)
____ ③ 결연·후원제
____ ④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

5-3. 주부상담원들의 활동시간은 대개 1회에 어느정도 됩니까?

____ ① 1시간 이내
____ ② 1시간~2시간 이내
____ ③ 2시간 이상

5-4. 주부상담원들이 정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만일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6.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 “정학”을 당한 학생이 생겼을 경우 상담실에서 그 학생을 위한 활동을 하십니까?

_____ ① 한다(6-1로 가세요) _____ ② 하지 않는다(7번으로 가세요)

6-1. 정학생을 위해(정학기간 中) 상담실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_____ ① 반성문을 쓰게하고 하루내내 수용한다.

_____ ②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상담을 한다.

_____ ③ 정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그대로 실행한다.

_____ ④ 기타 : (직접 적어주세요 : _____)

6-2. 정학 기간이 지난후에도 그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_____ ① 한다 _____ ② 안한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7. 만약 외부단체에 정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귀학교 정학생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찬성(7-1로 가세요) _____ ② 반대(7-2로 가세요)

7-1.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2.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학생이 처벌을 받는 실제적 이유중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생징계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_____ ② 학생 신분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 _____ ③ 다른 학생에게 본을 보일려고
- _____ ④ 그 학생을 잘 선도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 _____ ⑤ 기타 : _____

9. 아래 문항은 저희가 생각한 정학·중퇴 청소년 선도방안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장점, 단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교 상담의 활성화	(장 점)	(단 점)
① 상담실에서 선도프로그램 활용	_____	_____
② 교도교사의 활동강화	_____	_____
③ full-time상담원의 학교배치 (또는 교육청내 1~2인이 있어 각 학교의 필요시 지원)	_____	_____
④ 학교교칙을 학생들에게 명시	_____	_____

2.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이용

(장 점)

(단 점)

① 자원봉사자의 교육강화

② 결연·후원제 실시

(요선도 및 정학청소년과
자원봉사자 결연)

③ 모든 학교에 자원봉사제도
활용

3. 외부단체에 위탁교육

① 청소년 관련 상담소의 증설

②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상
담소의 홍보활동

③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상
담소에 사회적 지원

④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상담
소에 학교의 적극적인 호응

⑤ 학생의 자율적인 재판제도의 도입

4. 중퇴청소년의 선도

① 중퇴처분의 자체

② 2차 상담제의 도입

(학교와 연결된 외부단체의
지속적인 장기상담을 통해
상담수료후 학교복귀)

③ 학생 수련원

(중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센터)

④ 진로교육의 보완

5. 기타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10.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정학생들을 상담하시다가 느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학·중퇴 청소년 선도에 관한 설문

— 학생 주임 선생님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년연구원은 체육청소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금번 저희 연구원에서는 정학·중퇴 청소년의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정학·중퇴에 관련된 선생님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저희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줄 알지만, 모두 청소년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됨을 이해하고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이 답변해 주신 귀중한 내용들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설문의 내용이 다소 힘들고 부담이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청 소 년 연 구 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 건물 4층

1. 연세(만 세)와 성별(____ ① 남 ____ ② 여)

2.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____ ① 중학교 ____ ② 인문계고등학교
____ ③ 실업계고등학교 ____ ④ 종합고등학교

3.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있습니까?

____ ① 있다 ____ ② 없다

4.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5. 정학생을 위해 정학기간중 학생부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 정학기간이 지난후에도 그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____ ① 한다 ____ ② 안한다

만일 한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7. 중퇴학생을 위해 학생부에서 사후대책으로 하시는 일은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만일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8. 만약 외부단체에 정학생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귀학교 정학생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찬성(8-1로 가세요) _____ ② 반대(8-2로 가세요)

8-1.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2.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 학생이 처벌을 받는 실제적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학생징계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_____ ② 학생 신분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_____ ③ 다른 학생에게 본을 보일려고

_____ ④ 그 학생을 잘 선도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_____ ⑤ 기타 : _____

10. 아래 문항은 저희가 생각한 정학·중퇴 청소년 선도방안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생각나는 대로 장점, 단점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외부단체에 위탁교육	(장 점)	(단 점)
① 청소년 관련 상담소의 증설	_____	_____
②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의 홍보활동	_____	_____
③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에 사회적 지원	_____	_____
④ 정학·중퇴청소년을 위한 상담소에 학교의 적극적인 호응	_____	_____
B. 정학청소년 선도방안	(장 점)	(단 점)
1. 학교 상담의 활성화		
① 상담실에서 선도프로그램 실시	_____	_____
② 교도교사의 활동강화	_____	_____
③ full-time상담원의 학교배치 (또는 교육청내 1~2인이 있어 각 학교의 필요시 지원)	_____	_____
④ 학교교칙을 학생들에게 명시	_____	_____
2.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이용		
① 자원봉사자의 교육강화	_____	_____
② 결연·후원제 실시 (요선도 및 정학청소년과 자원봉사자 결연)	_____	_____
③ 모든 학교에 자원봉사제도 활용	_____	_____

C. 중퇴청소년을 위한 대책

1. 중퇴처분의 자제

2. 2차 상담제의 도입

(학교와 연결된 외부단체의
지속적인 장기상담을 통해
상담수료후 학교복귀)

3. 학생 수련원

(중퇴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센터)

4. 진로교육의 보완

5. 학생들의 자율적인 재판제도
의 도입

D. 기타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1. 학생부에서 정학·중퇴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
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